

연구보고 2008-06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김 은 설
최 혜 선

육아정책개발센터

머 리 말

육아정책개발센터는 2005년 처음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우리나라 육아정책 수립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많은 정책보고서들을 산출해왔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농어촌 지역 양육지원 정책,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정책 등 육아와 관련한 사회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을 관심있게 다루고 이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러나 육아정책개발센터가 국가적으로 지니고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미션)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제안뿐 아니라 ‘육아정책을 이끌어갈 다양한 정보와 과학적 자료의 생산 및 보급’이라는 데이터 뱅크로서의 역할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발맞추어 2008년 본 기관의 주요 연구과제 중 하나로, 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그 데이터의 제시를 목표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3,747명이라는 대단위 표집을 구성하여 20-55세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가구별로 직접 방문을 하여 설문을 완성하는 조사 과정은 인력과 시간, 비용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규모가 아니었으나 국가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기초정책자료의 생산이라는 연구의 의의와, 본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역할을 공고히 할 하나의 연구사업으로서의 가치에 힘을 실어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는 충실히 완성될 수 있었다.

조사설계 및 연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유치원·보육시설 원장·시설장 선생님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청년분들, 그리고 질문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수많은 연구 참여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들이 우리나라 육아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고 정책의 방향성 결정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08년 12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연구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늦어진 결혼 연령, 낮은 출산율, 가족이기주의의 팽배 등 과거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그간 결혼관, 자녀관, 양육 의식 등을 조사한 연구들은 있어왔으나 연구의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전반적인 의식조사는 대부분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경향이 있어, 현 시대를 반영하는 한국인의 변화된 결혼·출산 및 양육관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사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현대 한국 사회 부모 또는 예비부모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교육관, 양육철학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임.
 -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는 육아정책을 세우기 위해 부모와 예비부모의 양육관을 포괄적이고 심도 깊게 조사하여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치관변화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는 현대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 등을 세대와 지역, 성별,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을 탐색함.
 - 조사의 결과는 육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나. 연구 내용

- 결혼·출산 및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파악
 - 미혼 및 기혼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분석함.
 -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부모에게 있어 자녀가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조사함.
-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 이해
 -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은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 모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양육가치, 교육관, 아동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함.
- 자녀에 대한 기대 및 양육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분석
 - 자녀의 능력, 소양, 학력, 직업 등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해외원정출산, 조기교육, 조기유학 등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살펴봄.
-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육아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추출하여 제시함.

다. 연구 방법

- 문헌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설문조사
 - 20~55세 성인 3,747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함. 지역규모를 고려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함.
- 전문가 회의
 -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설문지 구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

시함.

□ 포커스 집단 면접

- 3 차례의 포커스 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양육관과 양육실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함.

□ 원내 전문가 검토회의

- 육아정책개발센터 내 연구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4차례 실시하여 연구의 진행과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함.

2. '자녀 양육관' 개념의 이해

- 본 연구에서의 자녀 양육관은 '자녀를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가치관, 철학, 신념, 태도 등'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정의됨. 이는 다시 세 가지의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는 바,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에 대한 신념, 등이 그것임. 그 이외에도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치관을 함께 다루고 있음.

-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란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과 대가 의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가 여기에 반영됨.

- 자녀가치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로, 긍정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관계적 가치로 구분하고 부정적 가치는 부모 자신의 개인내적인 측면과 자녀양육관련 측면으로 구분함.

- 긍정적 가치 중 도구적 가치는 자녀로 인해 기대되는 보상을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는 개인의 성숙과 사회에 대한 기여, 정서적·관계적 가치는 자녀로 인해 갖게 되는 정서적·심리적 동기를 의미함.

- 부정적 가치 중 개인적인 측면은 자녀로 인해 부모 개인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제약과 부담을 의미하며, 자녀양육 측면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등이 포함됨.

- 본 연구에서 자녀기대란 자녀가 발달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발달과업 및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함.

- 신체적인 역량기대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

하며, 건강, 신체적 유능성, 생활습관을 포함함. 인지적 역량기대는 지적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며, 지적 유능성, 창의성을 포함함. 사회적 역량기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며, 도덕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 양육에 대한 신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이에서 비롯되는 양육신념, 그리고 구체적 현실적 사안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가진 양육과 관련한 태도, 의식, 가치관, 방법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함.
- 그 외에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가치관으로서 교육관, 아동관, 양육가치 등을 자녀 양육관 조사에 함께 포함하였음.

3. 결혼 · 출산 및 자녀가치 의식

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 미혼자의 92.5%가 결혼할 의사를 표하였고 7.5%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남성의 3.6%, 여성의 10.3%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나 개인의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33.3%,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28.9%,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22.2% 순으로 나타남.
- 미혼자에 대해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질 것인가를 묻는 문항에서, ‘자녀를 가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89.1%로, ‘갖지 않을 것이다’는 10.9%로 조사됨.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수준별 비교에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위집단이 중류이상의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결혼하여 자녀수를 계획하고자 할 때, ‘2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이 전체의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자녀수 계획에서의 차이는 경제수준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2명을 원하는 비율은 중상류층 이상에서 가장 높고 하위층에서 가장 낮음. 1명을 원하는 비율에서는 하

위층이 가장 높았고 중상층이 가장 낮음.

- 미혼자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에서 69.2%가 ‘선호하는 성별’이 없다고 답함. 남아를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는 11.6%, 여아를 선호한 응답자는 19.1%로 여아를 선호하는 미혼성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기혼자를 대상으로 현재 자녀수 조사에서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7%, 2명은 67.3%, 3명은 11.1%로 조사되었고 최대 자녀수는 5명이었음. 평균 가구당 자녀수는 1.92명(표준편차 0.59)으로 나타남.

나. 자녀가 갖는 가치에 대한 인식

- 자녀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5.1%가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1.5%가 ‘자녀는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9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함.
 - ‘자녀 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음. 특히 미혼은 34.3%만이 자녀를 꼭 낳아야한다고 응답하여 세대별 차이를 보임.
- 자녀의 긍정적 가치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한 것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양육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항목이었음(86.9%). 다음으로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86.2%),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83.8%), 늙었을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76.4%), 집안 내에서 내 위치가 확고해지기 때문(5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즉 정서적·관계적 가치가 가장 두드러짐.
 - 자녀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연령대별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데, 2, 30대에 비해 50대에서 ‘대를 잇기 위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집안내 위치가 확고해진다는 점이나 노후 경제적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남.
-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을 때 82.9%가 양육비와 교육비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함. 또한 양육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점(82.1%), 양육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77.2%), 취업과 직장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74.0%) 등에 높은 비율로 호응함. 따라서 양육측면의 부정적 가치가 개인측면의 부정적 가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함.

4.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인식

가.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

-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훈육과 통제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야 기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신념에 응답자의 46.9%만이 동의하였고 ‘과다한 관심은 버릇을 나쁘게 한다’라는 데 대해서도 46.7%가 반대의사를 보임.
-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자란다’라는 신념에 대해 65.0%가 동의하였고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다’라는 체벌에 대한 신념도 89.5%가 찬성함.

나.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에 대한 인식

-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서 양육해야 하고(93.3%)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라는 데 많은 응답자가 동의(71.3%)함. 그러나 이에 대해 20, 30, 40, 50대 등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영유아 모의 취업에 크게 찬성하지 않음에도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에 있어서는 취업모나 비취업모 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함(78.8%).
- 취업모일 경우 남녀의 가사와 양육 책임은 동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데 매우 찬성한 비율(49.3%)이 높았으나, 여성(60.9%)이 남성보다 높고 세대가 젊을수록, 도시지역이 아닐수록 ‘매우 찬성’비율이 높았음.
- 취업모의 영아 자녀에 대한 주양육자로는 경제활동을 중단하더라도 부모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고(49.5%) 조부/모 19.9%, 교육/보육시설 18.4%로 조사됨.

다. 발달 시기별 우선 지원 필요 항목

- 자녀가 영유아인 경우 놀이환경 조성(34.3%), 정서적 안정(28.0%)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초등생 자녀에 대해서는 독서를 통한 논리적 사고력 배양(38.4%), 체험을 통한 다양한 세상 경험(29.3%)를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대화하고 자녀를 이해하는 것(24.3%)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진학을 위한 정보수집 및 지원(18.1%), 인성지도(17.7%)를 꼽음.

라. 양육가치관, 아동관, 교육관

-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 지향인 ‘집단중심 가치관’과 ‘개인중심 가치관’ 중 자녀에게 보다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가치로서 개인중심 가치(52.1%)가 집단중심 가치(47.8%)보다 높은 선호를 보임. 그러나 이는 성별, 세대, 경제수준, 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나타냄.
- 발달의 성공적 성취에 대해 유전이나 성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모나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아동관 조사에서 ‘발달은 환경이 결정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80.0%).
- 자녀 교육에 있어 명문대 진학과 성취를 더 강조하는지 아니면 자녀의 흥미와 자질 계발을 우선 추구하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86.7%가 후자라고 응답함. 명문대 및 성취를 강조하는 비율은 지역 및 세대, 소득별로 다르게 나타남.
 - 자녀교육의 방식에 대한 교육관 조사로,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자녀가 주도하고 부모가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문항에서 자녀주도 교육관이 70.0%로 매우 높게 나옴.

마. 부모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신념

-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기회를 희생하는 데 대해 46.7%는 당연하다고 보며 53.2%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희생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모보다는 전업주부인 경우 부모의 희생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음.
- 자녀의 성취와 성공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44.7%가 매우 결정적이라고 보았고 51.1%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함.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 태도는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 상당히 잘 나타남.
-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과 희생에 대해 꼭 보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었음(69.6%). 그러나 세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는 보답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이 높게 조사됨.
-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 시기로, 가장 많은 사람이 대학졸업때까지(62.6%)로 응답함. 취업 전까지(14.7%), 대학입학까지(11.2%), 결혼 시까지(10.2%)의 순으로 나타남.

5. 자녀 기대 및 양육 현실

가. 자녀에 대한 기대

- 자녀가 가지기를 기대하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역량은 우선 순위에 있어 아들과 딸이 다르게 나타남.
 - 아들에 대해서는 성격 및 태도, 대인능력, 학업능력이 높기를 가장 바라고, 딸에 대해서는 성격 및 태도, 신체 및 용모, 대인능력이 가장 뛰어나기를 바라, 딸에 대해서는 신체적 역량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음.
 - 자녀가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에 있어서도, 아들은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의 순으로 기대하였고 딸의 경우는 자신감, 예절, 근면·성실성을 기

대 하였음. 자신감을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이 특징적이며 딸에 대해서는 예절도 중요하게 생각함.

-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보면, 아들은 47.4%, 딸은 40.4%가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원하였고, 장래직업으로는 전문직, 경영관리직, 사무기술직을 가장 선호함.
-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인생은 유명인보다는 자기분야에서 리더가 되기를 바랐고 평범한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을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음.

나. 현실적 교육·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 해외 원정 출산에 대해 응답자의 14.8%가 가능하면 본인도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임. 부정적 입장이 85.2%이긴 했으나 긍정적 입장이 15%에 가깝다는 것은 주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조기 교육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한글(97.1%), 영어(56.1%), 수리(71.5%), 예능(71%) 등 모두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만 4세 이전에 영어(외국어)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5.2%임.
- 자신의 자녀를 가능하면 조기유학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4.1%로 나타남. 20대의 응답은 31.4%로 상당히 높음.
-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을 가진 부모는 39.0%로 나타남.
- 입양에 대한 질문에서, 자녀를 입양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1.7%로 조사됨.
- 자녀가 다문화 가정 출신이나 이혼/재혼 가정 출신의 상대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보면, 찬성이 각각 68.5%, 60.8%였고 반대하여 교제를 단절시키겠다는 견해가 각각 31.4%, 39.2%로 나타남. 세대에 따라 비율은 차이를 보임.

다. 양육의 실제적 측면

-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라는 응답이 96.3%였으나 자녀연령이나 가정 경제 수준에 따라 응답에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는 인식이 35.7% 정도였고 많은 수가 보통 정도(44.6%)라고 생각함.
 - 부모 역할로서 가장 불충분한 부분은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46.4%) 다음은 생활태도에 대한 지도였음. 이러한 응답 경향은 월소득별, 자녀연령별, 지역별로 차이를 보임.
-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53.1%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함. 거의 또는 전혀 참여치 않는 경우는 16.0%로 조사됨. 이러한 응답경향은 세대별로, 경제수준별로, 학력별로 차이를 보임. 주부가 취업모인지 비취업모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자녀 양육에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6.1%), 자녀와의 갈등(21.9%)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6.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출산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셋째보다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한 장려와 지원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부담 이외에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특히 사회적으로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야 할 것임. 택시형 양육도우미, 양육지원자 근거리 주거 지원 등이 필요함.
- 취업모에 대한 차별적 차등교육비·보육료 지원이 필요함.
-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영아 보육시설 활용 선호가 18.7%뿐임을 감안하면 영아에 대한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 교육적 우수 환경이 치우쳐 있지 않고 보편적이 되어야 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용어의 정의	10
5. 연구의 제한점	11
II. 이론적 배경	12
1. ‘자녀 양육관’ 개념의 이해	12
2. 한국인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	23
3. 선행 연구 검토	26
III. 결혼·출산 및 자녀가치 의식	42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42
2. 자녀가 갖는 가치에 대한 의식	61
IV.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의식	66
1.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	66
2.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의 관련성	70
3. 발달시기별 우선 지원 항목	77
4. 양육지향가치관, 아동관, 교육관	81
5. 부모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신념	86
V. 자녀 기대 및 양육 현실	92
1. 자녀에 대한 기대	92
2. 양육의 현실적 측면	102

VI. 한국인 자녀 양육관의 특징	123
1. 부모의 가치관에 따른 양육관의 특징	123
2. 집단에 따른 양육관의 특징: 포커스 집단 면접을 중심으로	136
3. 양육관의 요소별 특징: 조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144
4.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154
 참고문헌	 159
 부 록	 165
1. 표집 대상 지역 및 표집가구수	
2. 영국의 자녀 양육관 관련 자료	
3. 설문지	
4. 추가분석표	

표 목 차

〈표 I-3-1〉 조사 대상 지역 및 표집수	6
〈표 I-3-2〉 응답자 특성	7
〈표 I-3-3〉 설문지 내용의 구성	8
〈표 III-1-1〉 향후 결혼 의향(미혼 대상)	43
〈표 III-1-2〉 미혼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44
〈표 III-1-3〉 미혼자의 결혼 후 자녀 출산 의향	45
〈표 III-1-4〉 미혼자의 자녀 출산 희망 이유	46
〈표 III-1-5〉 미혼자의 향후 자녀수 계획	47
〈표 III-1-6〉 미혼자가 향후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이유	48
〈표 III-1-7〉 미혼자가 선호하는 자녀 성별	49
〈표 III-1-8〉 미혼자가 향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50
〈표 III-1-9〉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행동(미혼 대상)	50
〈표 III-1-10〉 자녀가 없는 이유(기혼 대상)	51
〈표 III-1-11〉 향후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무자녀 기혼자)	52
〈표 III-1-12〉 무자녀 기혼자의 향후 자녀수 계획	53
〈표 III-1-13〉 선호하는 자녀 성별(무자녀 기혼자)	54
〈표 III-1-14〉 가구당 현재 자녀수	55
〈표 III-1-15〉 향후 자녀 추가 계획	56
〈표 III-1-16〉 자녀를 더 갖지 않으려는 이유	57
〈표 III-1-17〉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 경험	58
〈표 III-1-18〉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 이유	59
〈표 III-1-19〉 이상적인 자녀수	60
〈표 III-2-1〉 자녀 출산의 필요성 의식	61
〈표 III-2-2〉 자녀의 긍정적 가치	63
〈표 III-2-3〉 자녀의 부정적 가치	64
〈표 IV-1-1〉 양육방식1: 아이를 제지하지 않아야한다(자유탐색격려)	67
〈표 IV-1-2〉 양육방식2: 과다 관심은 아이 버릇을 나쁘게 한다(과다애정경계)	68
〈표 IV-1-3〉 양육방식3: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자란다(훈육/통제 중시)	69
〈표 IV-1-4〉 양육방식4: 잘못할 때는 때를 들 수도 있다(훈육/통제 중시)	70

〈표 IV-2-1〉 모의 취업과 양육1: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71
〈표 IV-2-2〉 모의 취업과 양육2: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73
〈표 IV-2-3〉 모의 취업과 양육3: 자녀와의 친밀도에서 취업모/비취업모 간 차이는 없다	74
〈표 IV-2-4〉 취업모와 양육4: 가사와 양육의 책임은 부부가 동일하다	75
〈표 IV-2-5〉 모취업과 양육5: 취업모가 출산할 경우 양육 주 담당자	76
〈표 IV-3-1〉 영유아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78
〈표 IV-3-2〉 초등생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79
〈표 IV-3-3〉 중고생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80
〈표 IV-4-1〉 자녀에게 보다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가치	82
〈표 IV-4-2〉 아동관: 성숙 중심 대 환경 중심	83
〈표 IV-4-3〉 교육관: 성취 강조 대 흥미 강조	84
〈표 IV-4-4〉 교육관: 아동중심 대 부모중심	85
〈표 IV-5-1〉 부모의 희생에 대한 신념	87
〈표 IV-5-2〉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88
〈표 IV-5-3〉 자녀의 보답에 대한 신념	89
〈표 IV-5-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	91
〈표 V-1-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능력에 대한 기대	93
〈표 V-1-2〉 아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적 측면	95
〈표 V-1-3〉 딸이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적 측면	96
〈표 V-1-4〉 자녀 교육시키고 싶은 수준	97
〈표 V-1-5〉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98
〈표 V-1-6〉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아들	99
〈표 V-1-7〉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딸	100
〈표 V-1-8〉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삶의 유형	101
〈표 V-2-1〉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103
〈표 V-2-2〉 적정 교육시기에 대한 의식	104
〈표 V-2-3〉 자녀 조기 유학 의향	105
〈표 V-2-4〉 조기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106

〈표 V-2-5〉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	107
〈표 V-2-6〉 거주지 이주시 가장 우수하기를 원하는 조건	108
〈표 V-2-7〉 자녀 입양의 가능성	110
〈표 V-2-8〉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11
〈표 V-2-9〉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고 할 경우 행동	112
〈표 V-2-10〉 자녀가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고자 할 경우 행동	113
〈표 V-2-11〉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	114
〈표 V-2-12〉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성 인식	115
〈표 V-2-13〉 부모 역할로서 가장 불충분한 부분	116
〈표 V-2-14〉 자녀와의 관계1: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짐	118
〈표 V-2-15〉 자녀와의 관계2: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임	119
〈표 V-2-16〉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	120
〈표 V-2-17〉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	121
〈표 VI-1-1〉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가치의 인식 비교	124
〈표 VI-1-2〉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1: 자유탐색격려주)	125
〈표 VI-1-3〉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2: 과다애정경계주)	126
〈표 VI-1-4〉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3: 훈육 및 통제 강조주)	127
〈표 VI-1-5〉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4: 체벌 허용	128
〈표 VI-1-6〉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의 교육수준 기대	129
〈표 VI-1-7〉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능력주) 기대	130
〈표 VI-1-8〉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소양 기대 비교	131
〈표 VI-1-9〉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직업 기대	132
〈표 VI-1-10〉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부모-자녀의 관계 인식	133
〈표 VI-1-11〉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134
〈표 VI-1-12〉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걱정 외국어교육 시기에 대한 의견 ...	135
〈표 VI-1-13〉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조기유학 의향	136
〈표 VI-2-1〉 제1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137
〈표 VI-2-2〉 제2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139
〈표 VI-2-3〉 제3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142

그 립 목 차

[그림 II-1-1] 자녀가치 개념	15
[그림 II-1-2] 자녀기대 개념	18
[그림 II-1-3] Siegel, 안지영, 김경혜 등에 따른 광의의 양육신념	19
[그림 II-1-4] Luster, 김미정, 이은주 등에 따른 협의의 양육신념	19
[그림 II-1-5] 양육에 관한 통합적 모형	20
[그림 II-1-6] 자녀 양육관 개념도	23
[그림 VI-3-1] 한국인 자녀 양육관의 특징	153

부 표 목 차

<부표 1>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이유	187
<부표 2>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행동	188
<부표 3>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189
<부표 4> 자녀를 더 가지려는 이유	190
<부표 5>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이유	191
<부표 6>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의 자녀수가 많은 이유	192
<부표 7>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의 자녀수가 적은 이유	193
<부표 8> 영역별 걱정 (체계적) 교육시기-한글	194
<부표 9> 영역별 걱정 (체계적) 교육시기-외국어(영어, 한자 등)	195
<부표 10> 영역별 걱정 (체계적) 교육시기-수리(수학적 개념, 연산 등)	196
<부표 11> 영역별 걱정 (체계적) 교육시기-예능(음악, 미술, 체육 등)	197
<부표 12> 예체능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198
<부표 13> 조기유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199
<부표 14> 입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200
<부표 15> 자녀에 따라 기대수준이 다른 이유	201
<부표 16> 자녀와의 관계8: 가정교육을 위해 자녀의 행동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202
<부표 17>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횟수	203
<부표 18>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복수응답)	2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골드미스’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신문지상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용어 사전(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하면, ‘골드미스(Gold Miss)는 30대이상 40대 미만 미혼 여성 중 학력이 높고 사회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계층을 의미하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이다. 골드미스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측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초점이 모이고 있다(부산일보 2008년 3월 18일자; 이데일리 2008년 3월 17일자 사회면 참조). 전에 없던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사회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에 대한 관념이 과거와는 달라져 혼인연령이 점차 높아짐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자녀 출산시기 또한 늦어지고 출생 자녀수도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처럼 물질적 풍요와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이라는 사회적 변화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국가 장래에 불안요소가 될 수도 있는 낮은 출산율이라는 변화도 수반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은 자녀 출산의 의향이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관을 가진 비율도 남학생은 22.8%, 여학생은 10.4%에 그쳐 청소년의 약 80%가 결혼을 선택적인 사항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문제에 대해서도 약 27.0%만이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매일신문, 2007년 3월 9일자). 이렇게 아직은 어린 청소년들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식까지도 앞서 제시한 미혼 여성들의 결혼관, 양육관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오히려 결혼과 양육에 대해 기대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 의식을 보면, 농업 중심 사회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어 가족의 확장을 사회의 확장과 동일시하면서 다자녀 양육을 추구하였고(김지신, 1996), 동일한 맥락에서 가족중심적 집합주의(collectivism), 권위주의, 효사상을 강조하여 시대 상황과 철학에 부합하는 가정 중심 양육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김경동, 1996; 김재은, 1987; 옥선화, 1989; 임희섭). 또한 남성 우위사상, 남아

선호 사상, 엄격한 수직적 신분사회, 권위복종의 부모자녀 관계 등의 영향으로 자녀의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달라(류혜령, 1994), 남아에게는 업적 또는 성취지향성, 책임감, 독립심을 강조했고 여아에게는 착하고 성실하며 순종적이고 겸손할 것을 원했다(권이중, 1988). 그러나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전통적 양육관도 결혼 및 출산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됨은 자명하다.

현대 사회가 도시화, 산업중심화 되고 학교나 직장내 경쟁에서의 우위를 지상과제로 삼게 되면서 전통 사회의 집합적, 유교중심적 양육관은 보다 능력위주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정현숙 등(2002)은 현대 부모의 양육특성 중 하나로 가족이기주의 팽배를 들고 있다. ‘내 아이는 뭔가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일부 부모들의 선민의식으로 ‘우리 아이’라는 개념은 없고 단지 ‘내 아이’라는 것만 강조하여 과정보다는 결과를, 협동보다는 경쟁을, 절제보다는 과시를 우선시하는 가족이기주의가 바탕이 됨으로써, 고액과외, 촌지 등 1~2명인 소수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교육비를 지불하고 높은 소비를 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식중심의 조기교육 열풍,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도덕 및 인성교육의 부재, 부모의 교육철학과 행동의 불일치 등을 문제시하고 이러한 자녀 양육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김지신, 1996). 단순히 현상을 보고 직관적으로 현대 사회 부모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추측과 우려를 넘어서서 경쟁사회 속에서 변화되어가는 국민의 의식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해 보는 것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을 내적 요인으로써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찾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간 결혼관이나 자녀관, 또는 양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측정된 가치관의 범위가 한정적이었고 조사 시기도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근래의 새로운 변화를 포함할 필요가 대두될 정도로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비교적 최근의 대단위 전국 조사로 2003년 여성부의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와 2005년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전체 가족실태조사의 일부로서 결혼관과 양육에 대한 의식을 몇몇 소수 문항에 걸쳐 조사한 결과일 뿐이었고 후자를 비롯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련의 보고서들(김승권 외, 2005; 이삼식 외, 2005)은 인구정책에 대한 기초자료의 성격으로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견조사에만 치우쳐있고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것과 관련된 부모의 전반적 가치관을 조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본 조사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현대 한국 사회 부모 또는 예비부모가 결혼과 출

산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교육관, 양육철학 등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이다. 현실을 바르게 반영하는 육아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거나 앞으로 기르게 될 부모와 예비부모의 양육관을 포괄적이고 심도 깊게 조사하여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가치관변화의 측면에서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empirical)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우리나라 성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과 신념 등을 세대와 지역, 성별, 경제적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이러한 의식에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육아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국가 육아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주 연구 내용은 미혼 및 기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연령, 성별, 지역, 종교 등 개인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가. 결혼·출산 및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파악

미혼 및 기혼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의 자녀를 낳을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어떠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부모조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식 이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은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나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우리나라 부모가 가진 양육가치, 교육관, 아동관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에서의 차이가 가져오는 양육관 자체(자녀가치, 양육신념, 자녀기대)의 차이를 비교·검토하였다.

다. 자녀에 대한 기대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의견 분석

부모가 가진, 자녀의 능력, 소양, 학력, 직업 등에 대한 기대수준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해외원정출산, 조기교육, 조기유학 등 자녀 교육문제와 관련한 사회 현실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라.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

조사, 분석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 육아정책 수립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자료의 수집 및 검토

선행연구를 비롯한 기존의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자녀 양육관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 조사 결과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범위, 설문 내용 등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외국의 대표적인 연구사례를 인터넷과 기존 문헌,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자료와 논문들을 수집하고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수행을 풍부화하고 원활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나. 설문조사

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20~5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을 규모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고 통계청 2005년 센서스 결과를 참고로 20~55세 인구수를 산출하고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인구비율에 적정한 표집수를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표집의 수는 다음 <표 I-3-1>와 같으며 이는 조사가 완결된 대상의 수이기도 하다.

각 시도의 시·군·구별 지역특성, 인구를 고려하고 지리상의 위치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지도를 참조하여 이웃하지 않고 도청 소재지가 아닌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시·군·구별로 다시 한 번 인구수를 고려하여 표집수를 결정하였으나 조사상의 어려움이나 접근 곤란성 등으로 인해 선정 시·군·구 20~55세 인구비율보다는 전체 시·도의 인구비율에 부합하는 표집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때 농어촌지역(읍·면지역)의 가구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¹⁾ 농어촌 지역은 전체 인구비율 7.5%보다 낮은 6.8%만이 수거되었다.

조사는 조사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주)’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원이 표집된 지역 내 무선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내에서 조사대상 연령인 모든 성인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문지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불가피한 경우 조사지를 남겨두고 사후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여 응답률을 높였다. 가구당 최소 1명에서 5명(단 한 경우임)까지 설문지를 완성할 수 있었고, 설문지는 미혼자, 무자녀 기혼자, 영유아부모, 초등생부모, 중학생이상 부모 등 다섯 유형의 응답자가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에 있어 이러한 구분은 가족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이론을 제시했던 Duvall의 입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가족의 주기상 이렇게 대상 집단 구분을 하여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²⁾. 이 구분은 또한 결과에 대한 분석시에도 하나의 기준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가구 방문시 한 가구에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응답 기준이 되는 자녀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의 원칙에 의해 정해졌다.

첫째, 중학생 이상, 초등생, 영유아 등 다른 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모로서 질문에 응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가 양육관이므로 양육이라는 개념에 보다 순수히 가까운 결과를 얻고자 하는

1) 주민등록상 인구와는 달리 가구 방문시에 면담가능했던 대상은 55세가 넘는 연령의 노령인구가 다수여서 설문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2) E. Duvall(1977)에 의하면, 가족은 크게 두 가지의 생활주기를 가지는 바, 가족의 확대 단계와 가족의 축소 단계가 그것임. 전자는 가족 성립으로부터 자녀 성장 때까지의 발달 시기이고 후자는 자녀들이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갖고 부모만이 가정에 남을 때까지를 의미한다. 이 두 시기는 다시 8단계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1단계는 결혼한 부부, 2단계 첫아이 출생~30개월, 3단계 첫아이 30개월~6세, 4단계 첫아이 6세~13세, 5단계 첫아이 13~20세, 6단계 모든 자녀가 결혼하고 가정을 떠나는 단계, 7단계: 퇴직 때까지의 텅빈 가정, 8단계: 은퇴로부터 양쪽배우자 사망까지의 단계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결혼 전 단계와 가족 1단계, 2-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를 포함하여 가족의 발달단계이론과 설정한 분석 구분의 기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어린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 신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위의 세 단계에 해당하는 자녀가 모두 있을 경우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용 설문지를 사용하게 된다. 만일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라면 초등학생 부모용 설문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녀 둘 이상이 동일한 발달 단계에 있을 경우, 즉 유아기 자녀가 둘 이상 있거나 초등학생 자녀가 둘 이상 있을 경우는 둘 중 나이가 많은 아이를 기준으로 답하게 하였다. 상대적으로 부모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낸 관계이므로 양육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표 I-3-1〉 조사 대상 지역 및 표집수

단위: 명

도시 규모	포함지역(시·군·구 수) ³⁾	전체 20~55세 인구	선정 시·군·구 20~55세 인구	설문완성 표집수
대도시	서울(11), 부산(4), 대구(3), 인천(3), 광주(2), 대전(2), 울산(1)	13,748,965 (49.8%)	6,927,428 (53.2%)	1,855 (49.5%)
중·소도시	경기(10), 강원(1), 충청(2), 전라(2), 경상(5)	11,833,165 (42.8%)	5,243,155 (40.3%)	1,637 (43.7%)
읍·면	경기(1), 강원(1), 충청(2), 전라(2), 경상(2)	2,065,545 (7.5%)	844,834 (6.5%)	255 (6.8%)
계		27,647,675 (100.0%)	13,015,417 (100.0%)	3,747 (100.0%)

2) 응답자의 특성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전국에서 총 3,747명으로 이들은 성별, 연령별, 지역규모별, 결혼 및 자녀유무별, 학력별, 월 소득별 등 10가지의 기준에서 다음 <표 I-3-2>와 같이 그 특성이 나타났다.

3) 선정된 시·군·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록 1에 수록되어 있음.

〈표 1 -3-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 분	계	구 분	계
전체	100.0(3,747)	월 소득별	
성별		200만원 미만	21.2(793)
남성	45.3(1,697)	200~299만원	28.0(1,048)
여성	54.7(2,050)	300~399만원	25.0(936)
연령별		400~499만원	14.3(536)
20대	14.5(542)	500만원 이상	11.4(427)
30대	35.6(1,333)	무응답	0.2(7)
40대	39.8(1,492)	경제적 수준	
50대	10.1(380)	상+중상	7.0(264)
지역규모별		중	51.2(1,918)
대도시	49.5(1,855)	중하	35.8(1,342)
중소도시	43.7(1,637)	하	5.8(219)
군지역	6.8(255)	무응답	0.1(4)
결혼/자녀유무별		기혼여성 취업상태	
미혼	16.0(598)	취업주부	45.4(771)
기혼 무자녀	2.7(103)	전업주부	54.6(928)
기혼 유자녀	81.3(3,046)	종교별	
학력별		개신교	25.3(948)
고졸이하	38.1(1,427)	불교	17.9(670)
전문대학 졸	22.3(837)	천주교	10.0(374)
대학교 졸	35.4(1,328)	없음	46.4(1,737)
대학원 졸	3.7(140)	기타/무응답	0.4(18)
무응답	0.4(15)	다문화 가정 여부	
직업		다문화 가정	0.2(9)
농림어업, 축산, 원예업	0.5(17)	해당 없음	99.8(3,748)
자영업	17.3(647)	자녀 연령별 ⁴⁾	
판매서비스직	10.0(374)	0~5세 자녀	(912)
기능숙련공	5.9(222)	6~11세 자녀	(1,187)
일반직업직	1.7(62)	12~17세 자녀	(1,243)
사무기술직	27.1(1,014)	18세 이상 자녀	(866)
경영관리직	2.5(94)	자녀 성별 ⁵⁾	
전문자유직	4.5(169)	아들	(2,351)
학생, 가정주부, 무직	30.6(1,148)	딸	(2,093)

4), 5) 이 경우 응답한 부모 한 사람이 여러 명, 여러 성별 자녀의 부모로 동시에 응답한 경우도 있어 백분율은 표시하지 않았음.

3) 설문내용

양육관을 조사하는 설문지는 다음 <표 I-3-3>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혼자 및 무자녀 기혼자와 영유아부모, 초등이상부모, 중학생이상 부모들은 상황에 민감한 문항에서는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도록 지시문을 삽입하여 대상별 특수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대상별로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표 I-3-3〉 설문지 내용의 구성⁶⁾

		질문 내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응답자 특성	일반 정보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 직업	
	경제적 특성	소득 경제적 수준 인식	
	가정 특성	가구 구성 형태 결혼 형태, 종교 다문화 가정 여부	
	자녀 특성	입양 여부, 장애아 여부 자녀수, 자녀 연령 및 성별	
결혼 및 출산 의식	결혼계획(미혼만해당)	결혼계획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자녀 출산	출산계획, 이유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과 현실의 자녀 수 비교	
자녀 양육 관	자녀 가치	긍정적/부정적 가치	자녀의 필요성 여부 자녀가 필요한 이유/필요하지 않은 이유
	양육에 관한 의식·신념	양육방식 (협의의 양육신념)	자유탐색격려, 과다애정경계 훈육 및 통제 중시
		어머니의 취업	모 양육에 대한 기본 철학 취업모와 자녀와의 친밀도 남녀의 가사, 양육 책임 분배
		시기별 중점 지원 필요 사항	영유아기/초등/중등 시기별 지원의 우선 순위
		양육지향가치, 아동관, 교육관	집단중심주의/ 개인중심주의 지향 환경결정주의 대 성숙결정주의 학문적 성취 대 흥미 강조 아동중심 대 성인중심

6) 설문지는 응답 대상에 따라 총 5종이 있을 수 있으나, 설문내용은 영유아 부모용이 가장 포함 내용이 많고 기본적인 것이므로 영유아부모용 설문지에 준하여 제시하였음.

질문 내용			
주제	하위 주제	문항 내용	
	부모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 정도 자녀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
		부모의 지원	자녀 양육지원 정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상 의무 자녀의 보상에 대한 기대
	자녀 기대	신체/인지/사회적 역량	기대 능력 자녀가 갖추어야 할 소양
		장래	기대하는 교육수준 자녀의 직업 자녀 인생에 대한 기대
	교육·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교육열 관련	원정 출산, 예능 교육 조기 교육, 조기 유학 교육을 위한 주거지의 이주 자녀에 대한 헌신
		입양 및 다문화 관련	자녀 입양 다문화 가정, 이혼가정에 대한 인식
양육의 현실 측면	부모-자녀 관계	자녀와의 관계 정도 부모 역할 수행 정도	
	영유아의 양육	가정내 양육 실태	부의 자녀양육 참여 자녀양육의 어려움

4) 예비조사의 실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가독성과 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지 개선과 수정에 활용하였다.

다. 전문가 회의

전문가 회의는 2차례 개최하였다. 첫 번째 회의의 목적은 연구 초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연구의 범위,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가족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자녀 양육관 조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언을 들어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전에 확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는 조사방법과 설문지 구성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과 내용에 부합하는 설문지가 구성되고 있는지 즉, 설문지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설문지 수정과정을 거치고 개선된 설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규정한 자녀 양육관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도 받았다.

라. 포커스집단 면접

3차례의 집단면접을 개최하여 양육관과 양육실제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들과의 면접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양육에 관한 관점들을 정리하였다.

제1차 포커스집단 면접은 37~41세 사이의 기혼 여성 6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와 영유아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제2차 포커스집단 면접은 28~31세 사이의 미혼 남녀 6명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장래의 결혼과 육아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3차 포커스집단 면접은 33~39세의 기혼 여성 6명으로, 모두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 원내 전문가 검토회의

연구 진행과정을 전문가 및 전문실무자의 시각에서 검토받고 피드백을 얻기 위해 육아정책개발센터 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4차례 실시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자녀 양육관이라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자녀 양육관에 대한 자세한 의미는 II장, 이론적 배경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녀 양육관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가치관으로서, 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의 의견 또한 양육관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자녀가치, 자녀기대,

양육신념 등의 개념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현대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노년기를 제외한 성인 즉, 20~55세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내용의 질문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질문들이 공통으로 다양한 연령집단에 주어졌다. 따라서 자녀가 영유아이거나 초·중학생인 경우는 응답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연령을 넘어선 자녀를 둔 경우, 즉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회상에 의해 답을 한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응답에 현상적 반응과 회상에 의한 것이 함께 혼용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둘째, 조사 표집에 있어 대상을 개인별로 접촉하기 보다는 가구 방문을 통해 가구 내 거주하는 해당 연령 성인을 모두 표집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물론 가구는 선정된 지역 내에서 무선표집을 하였으나 표집된 가구내 성인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포함으로써 한 가구당 1~5명의 개별 응답자가 발생하였다. 동일가구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공변인에 대한 통제가 부족했음이 결과에 대한 해석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원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미혼성인 집단 면접시 대학원생들만 대상으로 한 점 또한 편파적 결과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심층면접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전체 조사에서는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다.

셋째, 도시 규모에 따라 표집 수를 비교해보면,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조사대상이 6.8%에 지나지 않아 과도히 적은 인상을 주고 있다. 20~55세 인구를 고려해보면 이는 적절한 비율임을 알 수 있으나 그럼에도 지역 간 비교에서 월등한 수적 차이가 제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어촌에 청년, 장년층 인구가 극히 적고 지리적으로도 방문하여 설문을 완성하기가 무척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인구비례에 충실한 현재의 표집수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 양육관' 개념의 이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여러 측면에 대한 관점, 시각 등을 양육관이라 볼 때, 양육관은 기존 연구들에서 양육관, 자녀관, 자녀가치, 자녀가치관, 양육가치관, 양육신념 등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에 따라 조금씩 차이나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는 아니나 양육의 측면들을 해석하는 일련의 관점들이라 본다면 양육관이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각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모의 양육관은 자녀를 갖기 전부터 시작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자녀 인생 전반에 걸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대한 기본적 태도·의식·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관을 연구하였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처럼 광범위하고 전반적인 양육관 개념을 사용한 것이 있는 반면, 양육관이 포함하는 다양한 측면 중 한둘만을 선택하여 전체 양육관으로 개념화해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김옥민(1984)은 자녀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자녀양육관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간직하고 있는 철학이나 사상, 부모의 생각, 양육행동, 태도, 가치관 등'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김영희 등(2000)은 양육관을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적절한 판단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구성요소'라고 개념화하고 부모의 양육관은 양육자의 성격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더 나아가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양육에 대한 지식과 판단이라는 보다 작은 범위의 개념화를 한 것이다. 한편 김윤주(2005)는 자녀양육관을 '양육태도'로 개념화하면서 문미옥 등(2001)의 논의를 수용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행사하는 모든 행동과 사고'라고 정의하고 애정-중요, 자율-통제, 내향-외향 등의 세 차원에서 양육관을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관을 하나의 합의된 개념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연구자마다 관심을 두는 대표적인 변인에 따라 양육관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육관'이라는 용어자체의 사용을 비교적 자제하면서 양육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위개념들에 초점을 맞추고

양육을 연구하였다. 부모의 양육특성을 살펴보는 연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양육신념’이며 이와 더불어 ‘양육태도’, ‘자녀가치’, ‘양육행동’, ‘자녀관’, ‘양육목표’, ‘양육가치’ 등 다양한 개념적 측면이 연구되었으며 이러한 범주에서의 차이와 그 영향에 대한 논의가 탐구되었다(고윤희, 2001; 김미정, 2001; 김지신, 1996; 방경숙, 2004; 송승민 외, 2007; 안지영, 2000; 황성하, 19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이 사용한 각각의 양육관련 개념들조차도 여전히 동일한 정의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고윤희(2001)는 양육신념을 자녀 양육에서 인성을 중시하는지 지적성취를 중시하는지, 기본적으로 아동의 성숙(nature)을 강조하는지 환경(nurture)을 중시하는지 등보다 근본적인 양육에 대한 기저신념(deep belief)에 초점을 두고 개념화한 반면, 김미정(2001)과 이은주 등(2006)은 ‘과다한 애정은 경계해야 한다’, ‘자유탐색을 격려해야 한다’, ‘언어자극을 강화해야한다’ 등 양육과 관련한 구체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믿음, 즉 표면신념(superficial belief)을 양육신념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양육관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한 모든 개념들은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녀 양육관은 ‘자녀를 기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가치관, 철학, 신념, 태도 등’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세 가지의 하위 구성개념을 밝힘으로써 그 특성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 이는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양육에 대한 신념,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부모가 가진 양육과 관련한 가치관들이 양육의 실제와 관련을 가질 수 있으므로 양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관련 가치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

자녀가치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조사 문항들은 유사하나 자녀가치를 구분하는 하위요소를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자녀가치 연구들에서는 자녀를 가졌을 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였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하위요소를 다르게 표현하였다.

Fred 등(1983)은 자녀가치를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대가’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만족감과 대가란 것은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하나의 동기적인 힘이 되고 또 그들 힘이 상황의 장애나 편의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족규모와 출산력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치에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가 함께 병존하고 있어 긍정적 가치에 의한 만족감은 자녀를 출산하려는 동기가 되고, 부정적 가치에 의한 부담감은 자녀출산수를 제한하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동기가 된다고 한다. 긍정적 가치는 정서적 만족감, 경제적 이득과 안정, 자기 풍요화와 발전, 자녀와의 동일시, 가족의 응집성과 연속성이고, 부정적 가치는 자녀양육에 따른 정신적 대가, 경제적 대가, 주부의 생활스타일을 제한하는 기회대가, 육체적 부담, 자녀로 인한 부부갈등을 들 수 있다(김현주, 1985).

우리나라의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자녀가치를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차재호(1980)는 자녀가치를 ‘아이가 부모에 대하여 충족시켜 주는 요구들’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자녀가치 중 노후의지, 가계계승, 입신출세로 부모에게 영광을 안겨주는 것의 3개 항목을 과거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전통적인 자녀가치라 전제하면서, 이를 ‘자녀가치’ 연구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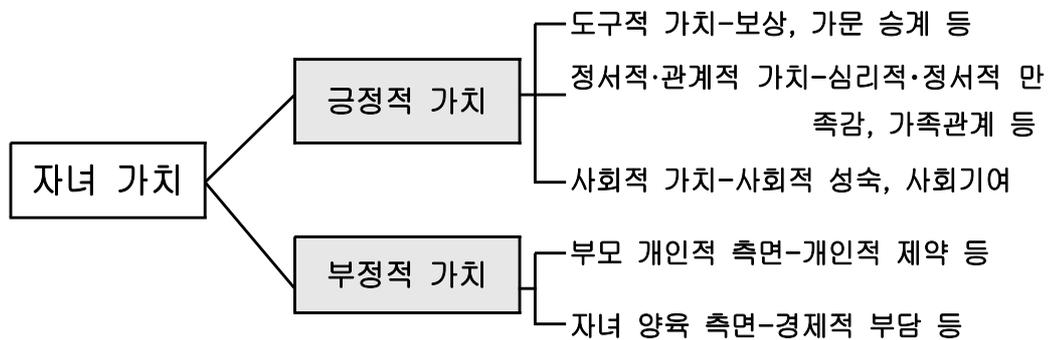
허은주(1988)는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자녀출산과 자녀의 기능에 대한 태도’로 정의하고, 부모로서의 사회·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도구적·애정적 가치, 경제적·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하는 자녀에 대한 부담가치, 그리고 자녀출산의 수동적 가치의 3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권용은(2003)은 연구에서 긍정적 자녀가치는 정서적, 도구적, 사회적 가치로, 부정적 가치는 양육 자체에 근거한 가치와 양육 이외 문제에 근거한 가치 등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비교한 김의철 등(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 제약, 사회적 제약, 외부적 제약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인 면, 관계적인 면, 가정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으로 구분한 연구들도 있다(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 박영신, 김의철, 2005;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또한 윤미라(2006)는 자녀의 가치를 자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만족감과 도구적 측면을 보상적 가치(긍정적 측면)로 보았고, 출산 및 양육행동과 관련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비용적 가치(부정적 측면)으로 보았다. 윤미라는 자녀에 대한 가치를 ‘자녀관’으로 보고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기를 기대하는 심리·경제·사회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자녀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란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만족과 대가에 대한 의식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려는

동기가 여기에 반영된다. 자녀가치는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로, 긍정적 가치는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사회적 가치로 구분하고 부정적 가치는 부모 자신의 개인내적인 측면과 자녀양육관련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긍정적 가치 중 도구적 가치는 자녀로 인해 기대되는 보상을 의미하며 가문승계와 부모됨, 자녀로부터의 보상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가치는 아이를 가짐으로써 기대되는 개인의 성숙과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숙과 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한다. 정서적·관계적 가치는 자녀로 인해 갖게 되는 정서적·심리적 동기를 의미하며, 자녀로 인한 기쁨, 정서적 만족감, 가족의 의미 등을 포함한다. 부정적 가치 중 개인적인 측면은 자녀로 인해 부모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제약과 부담을 의미하며, 자유시간의 제한, 사회활동의 제약 등을 포함한다. 자녀양육 측면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의미하며, 경제적 부담, 부모역할수행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그림 11-1-1] 자녀가치 개념

나. 자녀기대

아동학이나 가족학에서는 기대의 개념을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련짓고 있으며, 기대와 행동에 관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기대가 인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임종석, 2000). 부모의 기대는 특히 자녀들의 발달과 성취에 관련이 있다. 특히 부모와 교사의 기대가 아동의 성취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Goodnow, 1988; Miller, 1986), 부모의 기대가 특히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속에서 규정되는 부모의 가치관, 자녀에 대한 기대, 행동 등은 자녀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임종석, 200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무궁무진하며 그것들을 다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아동은 발달과정에 있어 각 발달시기마다 독특한 발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하면서 각 발달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과업이 있다(Erikson, 1950; Havinghurst, 1952). 발달을 연구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기대를 하는 것을 돕는다. 발달에 대한 지식은 아동의 실제 행동에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요구나 권리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Seifert & Hoffnung, 2000). 아동의 발달은 크게 신체발달, 인지발달, 정서·사회발달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정옥분, 2002; Berk, 2000).

3가지 영역 중 사회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가 가장 관심을 받았고 사회 발달에 대한 기대는 매우 구체적이며 다양한 변인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Hess 등(1980)은 또래상호작용, 의사소통, 정서적 통제, 환경적 독립을 변인으로 하였고, 이희선(1984)은 Hess 등의 연구를 기초로 예의범절, 순종, 정서적 성숙, 언어적 주장성, 독립성, 사회적 기능을 측정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Harvey(1984)는 대인관계 기술, Wang(1995)는 자기통제, 예의범절, 책임감, 성숙, 순종, 사려깊음, 바른 행동을, Dekovic(2002)는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을 측정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에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를 측정한 Azar(1984)는 자기 보호, 가족에 대한 책임감, 형제 보호, 부모에 대한 도움과 애정, 아동 혼자 남겨지기, 적절한 행동과 감정을 다루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관련 연구가 인지적 발달영역에 치중하여 이루어진 것(Edwards-Beckett, 1992)을 보면, 많은 연구에 비해 그 관련변인은 교육, 학업성취, 학업능력 등으로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기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인지발달에 대한 측정변인은 교육, 학업능력(이희선, 1987), 학업성취(김길기, 1993; 김은숙, 1995), 직업준비(이재구, 2000) 등이 있다. 특히, 인지발달을 부모의 기대와 관련시킨 연구는 주로 학업성취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자신의 능력이나 소질 이상의 높은 기대나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촉진적 또는 장애적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기, 흥미, 태도, 가치관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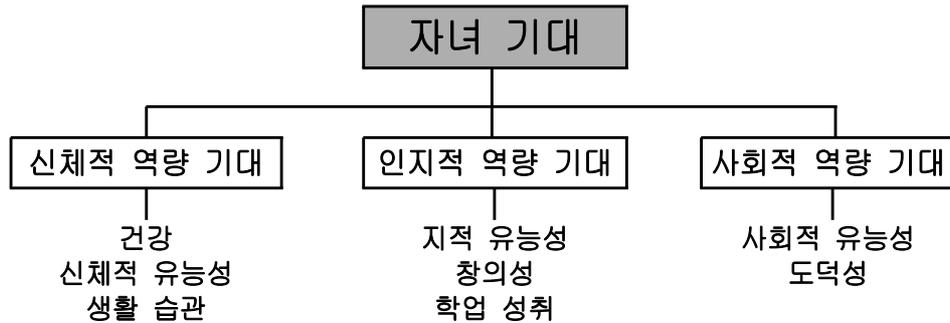
신체적 발달에 관한 기대의 관련변인은 신체적 변화와 일상생활 변인이 있는데 신체발달 영역에 관한 연구는 인지, 사회발달 영역에 비해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는, 신체발달 영역과 관련된 부모의 기대를 측정하는 연구가 거의 없고 아동의 신

체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으며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부모의 기대를 측정된 척도들의 변인을 분류해 보면 부모의 기대가 신체, 인지, 사회발달 영역으로 구성되지만, 선행 연구들 대부분은 발달의 3영역을 기대와 관련지어 동시에 연구하지 않고 한 영역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는 제한이 있다. 최근 몇 년동안 국내에서 3개 발달 영역에 대한 부모의 기대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발표되었다(이소현, 2003; 정미라, 2003). 정미라(2003)는 부모 면접과 문헌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신체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건강함으로, 사회 정서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강인함으로, 인지적 능력을 강조할 때는 똑똑함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부모는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뛰어나고, 우수한 능력을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학령기에 출현하는 가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 영역에 대한 기대를 역량기대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이소현(2003)은 어머니의 자녀 기대감 척도의 타당화를 연구하면서 3개 발달 영역별 자녀에 대한 기대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소현(2003)은 부모의 기대란 ‘신체, 인지, 사회 발달 영역에서 아동이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에 대해 자녀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의 행동, 태도, 성취, 능력에 대해 부모가 갖는 주관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말한다’고 하였다. 자녀기대로서 신체적 역량기대란 아동의 신체적 활동과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사회적 역량기대란 아동이 타인과 대인관계를 맺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행동과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로, 인지적 역량기대란 아동이 성장 후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되는 지적 능력과 행동에 대한 기대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의 결론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자녀기대란 자녀가 발달하면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취하기를 바라는 발달과업 및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한다. 신체적인 역량기대는 아동의 건강과 신체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며, 건강, 신체적 유능성, 생활습관을 포함한다. 인지적 역량기대는 지적 능력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며, 지적 유능성, 창의성을 포함한다. 사회적 역량기대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생활함에 있어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의미하며, 도덕성과 사회적 유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II-1-2] 자녀기대 개념

다.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주제 중 하나가 양육신념(parenting belief)이다. 안지영(2001)에 의하면 Sigel(1985)을 인용해볼 때, 부모의 신념이 곧 부모의 양육행동 차이를 가져온다는 개념적인 틀이 존재하며 자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부모의 신념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부모의 양육신념은 아동 발달 전반에 대해 가지는 목표나 가치관 등 다양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녀 발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부모의 행동을 지도하며 나아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안지영(2001)은 양육신념을 ‘인성 발달 대 지적 성취 강조’와 ‘성숙주의 대 환경주의’ 신념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기본적 신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김정혜(1993)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념을 자녀의 지적 특성에 대한 신념과 양육에 대한 신념,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나누고 있다. 지적특성에 대한 신념은 지적 능력이 있는 아이를 특징짓는데 부모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제를 다루고 있고, 양육에 대한 신념은 ‘독립심 강조 대 순응 강조’의 측면, 즉 자녀의 독립심이 발달하도록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순응하도록 키우기를 원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녀의 여러 기술이 발달하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즉, 학문적 목적을 가지는지 사회적 목적을 가지는지라는 차원의 또 다른 신념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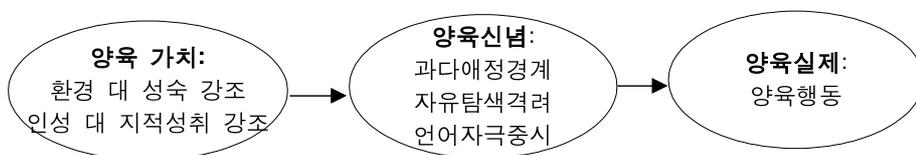
한편 김미정(2000)은 양육신념을 ‘부모의 양육가치를 자녀가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자녀양육 실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모의 신념’으로 정

의함으로써 양육신념을 부모의 양육가치와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 양육가치가 양육신념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양육신념이 양육 실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김미정(2000)이 제시하는 양육신념은 앞서 안지영(2001)이나 김경혜(1993)의 관점처럼 양육행동과 실제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인지적 우산(umbrella)으로서의 양육신념이 아니라 가치관이라는 우산하에서 양육실제와 관련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태에 대한 신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Luster(1985)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양육신념은 ‘과다 애정경계’(자녀에게 반응적, 애정적으로 대하면 자녀의 버릇이 나빠진다는 믿음), ‘자유탐색격려’(자녀에게 가정환경을 탐색하는 자유를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언어자극중시’(자녀에게 말하기와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훈육 및 통제 중시’(자녀행동의 통제와 훈육이 중요한 양육과제라고 생각하는 정도) 등 4개의 영역에서 부모의 신념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신념은 연구자에 따라, 양육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가치관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어 양육방식과 실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보다 미시적 입장에서 양육 가치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주어진 사태에 대한 신념과 관계되어 양육실제를 구성하게 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 II-1-3]와 [그림 II-1-4]은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의 양육신념 개념이 위치하고 있는 양태를 보여준다.



[그림 II-1-3] Siegel, 안지영, 김경혜 등에 따른 광의의 양육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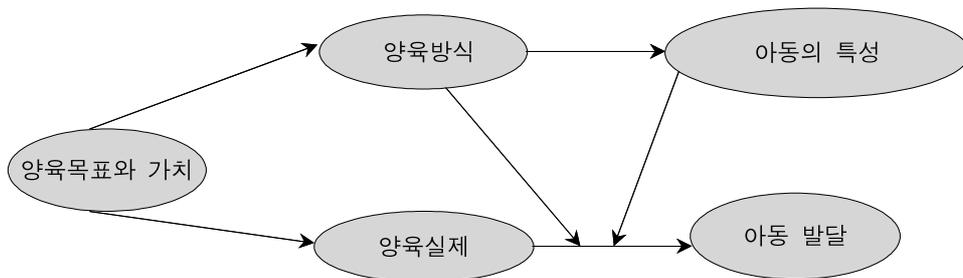


[그림 II-1-4] Luster, 김미정, 이은주 등에 따른 협의의 양육신념

본 연구에서는 양육신념은 위에서 설명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의 양육신념 개념을 모두 포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총괄적인 가치관이라는 큰 영역과 Luster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 사태적 위치에 있는 양육신념의 개념을 모두 다 가져와 양육신념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념영역에서 이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양육신념은 부모가 기저에 가지고 있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이러한 광범위한 신념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실적 사안에 대한 판단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가진 양육과 관련한 모든 태도, 의식, 가치관, 방법론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결국 양육관을 구성하는 가장 큰 부분이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라. 그 외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가치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부모가 가진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서 양육방식(parenting style)과 양육실제(parenting practices; 양육행동)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방식과 양육실제에 개인적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양육목표 또는 가치(parenting goals)라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양육목표 또는 양육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할 때 지향하는 가치와 신념으로 양육실제와 양육방식 등 행동적 차원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정현숙 외, 2002). 다시 말해 자녀 양육은 부모가 가진 양육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관들을 살펴보는 일은 양육방식에 대한 전반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의 [그림 II-1-6]은 양육목표 및 가치와 양육의 다른 측면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Darling과 Steinberg의 모형이다.



[그림 II-1-5] 양육에 관한 통합적 모형

출처: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혜정, 박주희(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부모라는 개인이 가진 모든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크게 부모가 가진 양육가치, 아동을 보는 아동관, 교육에 대한 교육관 등을 중심으로 양육관련 가치관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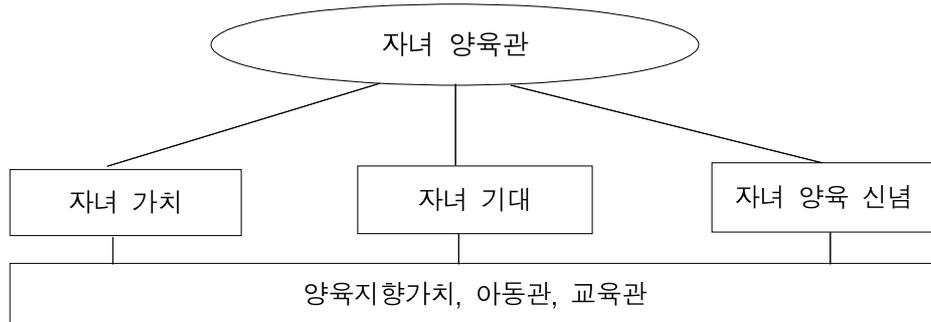
이은주 등(2006)과 김미정(2000)은 양육가치를 ‘양육의 인지적 특성이며 영속적 신념’,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서 지향하는 이념’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주요 양육 가치로 ‘집합주의적 양육가치 대 개인주의적 양육가치’와 ‘순응적 양육가치 대 자기지도적 양육가치’ 등 두 범주의 양육가치를 연구하였다. 집합주의적 양육가치는 가족, 사회, 국가 등 집단의 안위와 유지를 개인의 안위와 만족보다 우선시하고 다수의 선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며,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아동 양육에서 형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이념이다. 이에 비해 개인주의는 개인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가치롭게 생각하여 사회나 집단의 명분이나 이익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개인의 발전과 만족감, 행복, 자유와 권리의 추구를 삶의 양식의 준거로 삼는 이념이다(이순형, 1996). 한편 순응적(conformity) 양육가치는 독립성을 강조하기보다 외부 권위에 대한 순응성을 가치롭게 여기며 복종, 예의바름 등을 강조하는 양육가치이고 자기지도적(self-direction) 양육가치는 자기통제, 책임감 등을 가치롭게 여기는 양육가치이다(김미정, 2000).

아동관은 일반적으로 아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하는 것으로 부모가 가진 철학에 따라 달라질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관은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다’라고 보는 전통적인 아동관과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 발달하는 하나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존재이다’라고 보는 현대의 심리학적 아동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계정희 외, 1978). 전통적인 아동관의 입장에서는 아동은 미숙한 성인으로, 성인에 종속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성인에 대한 순종과 예의범절을 강조하게 되며 규율이 엄격하고 지배적이며 성인의 권위가 강조된다(김재은, 1974). 그러나 심리학적 아동관은 아동을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독립된 개체로 보고 있으며 성인의 특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별개의 특성을 가진 존재로 다루어져야 하며 아동은 변화하는 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이정덕, 1976). 그러므로 이렇게 매우 대조적인 두 범주의 아동관은 부모의 잠재적인 의식이 어떤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양육실체에 두드러진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교육관이 양육실체에서의 차이를 가져 오는 가치관 중 중요한

하나로 보인다. 교육관은 자녀에 대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태도까지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들이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교육시키고자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련의 가치관’(이원영, 1983)으로, 자녀를 어떤 형의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며 견해이다. 부모가 지닌 교육관에 따라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달라지고 부모의 기대감이 다름에 따라 자녀의 자아발달이 또한 달라지게 된다. 유아 부모에 대한 교육관 연구로서 가장 대표적인 이원영(1983)의 연구는 교육관을 ‘아동중심교육관’과 ‘성인중심교육관’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앞서의 아동관의 구분과도 동일한 맥락에 이해될 수 있다. 이원영(1983)에 의하면, 아동중심교육관은 인간을 성장에 의해 발달하고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태중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아동의 자율성과 흥미, 숙련성에 의존하여 교육자는 후원자이자 계발자로서의 역할하도록 하는 관점이다. 반면 성인중심교육관을 가지게 되면 성장보다는 학습에 의한 발달을 강조하여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을 보고 있으며 전통유산을 전수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성인의 안내에 따른 통제하에서 체계화된 내용을 학습하며 교육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숙희(2002)는 이원영의 아동중심/성인중심 개념분류를 이어받아 자녀교육관의 하위 영역을 환경강조/성숙강조, 학문적성취강조/흥미강조, 목표중심/과정중심, 성인주도활동/유아주도활동, 긍정적/부정적평가 등 5개로 구분하고 개인의 자녀교육관을 분석하는 틀로 삼았다. 각 하위영역은 아동중심교육관-성인중심교육관 간의 스펙트럼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양육가치, 아동관, 교육관의 일부 개념을 가져와 부모가 가진 양육에 연관되어 있는 가치관으로 개념화하고 조사 내용에 포함하였다.

지금까지의 자녀 양육관을 조사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하위 개념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서 제시된 다섯 가지의 양육관의 하위 요소들의 개념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II-1-6]과 같다.



[그림 11-1-6] 자녀 양육관 개념도

2. 한국인에게 있어 자녀의 의미

가. 전통적 자녀 의식

우리 민족은 자기의 발전과 가문의 발전을 동일시하여 개인의 안락과 평안한 생활보다는 가족들의 안위를 더 먼저 생각하는 가족중심의 가치가 우세하였다. 가족 집단의 발전과 안위를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가족주의’는 가족에 속한 개인의 사고 틀로 작용하여, 일상뿐 아니라 결혼,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치와 양육태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자녀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부계를 영속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능하여 남아의 출산을 여아의 출산보다 더 선호하는 결과를 낳았다(이순형, 1996). 뿐만 아니라 남아선호는, 노년기를 아들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과도 연결되어 있었다(설영숙, 1977).

위와 같은 전통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관계가 기본 단위이며,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결국 자기 발달의 기초를 작용하였다. 한국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의무로 여겼다(Kim & Choi, 1994). 즉 부모들에게 있어 자식에 대한 의생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속의 자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부

모, 특히 어머니들의 삶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자녀들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보겠다(박영신, 김의철, 2004a).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의 미래하고 생각하고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며, 자녀들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대신해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영신, 김의철, 2004b;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Kim & Park, 2003).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목표를 대리 성취해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맹목적으로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삶에 있어서 자녀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며 핵심적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Kim & Park, 2003, 2006).

성공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분석한 연구(김의철, 박영신, 1998;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에서는 한국의 성인들은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공 경험으로 자녀의 교육 및 자녀의 발전과 관련된 경험을 주로 지적하였다. 즉 자신의 직접적인 성공보다는 자녀의 성공 혹은 대리성취가 부모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곧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5). 서은국(2007)의 행복 관련 생활 경험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도 30대와 40대에서는 자녀의 출산 및 성장을 가장 행복한 경험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이 현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이다.

나. 자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회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농경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친척 및 자녀의 숫자가 더 이상 성공적 인생의 지표가 아니게 된 것이다.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다. 현대의 삶이 개인에게 더 많은 자원과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 주게 된 결과로 전통적 가족주의 의식이 보다 약화되게 되었고 자기계발과 발전을 중시하는 풍조가 나타났다(장진경, 2004).

한국 부모들의 가족가치관은 전통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가는 과정으로 개인의 독립정신, 강한 신념을 더욱 중시, 평등주의적 부부관계로 바뀌고 있으며(설영숙, 1977), 한국 가정에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이나 가족 집단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으로부터 탈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전통적 결혼가치관으로부터의 탈피정도가 크게 나타났다(장진경, 2004). 자녀관은 일부 계층에서는 아직도 남아선호의식이 남아 있다고 밝힌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정영숙, 이선자, 1980; 서병숙, 김윤, 1983), 남아선호사상이나 자녀양육태도에 있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정자, 1983; 김경신, 1998).

자녀에 대한 인식에서도, 자녀를 노후의 보장을 위한 경제적, 도구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기보다는 심리적 행복과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가치를 훨씬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자녀를 가지는 것에 따르는 제약도 사회적이고 외부적인 제약에서 개인적인 제약, 즉 개인의 사회, 경제적 활동과 능력에 따라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권용은(200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972년에는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2002년에는 아들 딸 상관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아들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 자녀가 노후생활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되면서 무자녀 가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자녀는 투자라기보다는 소비라는 개념이 강해졌으며, 따라서 자녀보다는 내 자신이 우선이고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투자를 증대시켜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장진경, 2004).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현상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전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 및 자녀출산과 더불어 자녀양육은 여성에게 있어 자신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출산을 무기한 연기하는 현상을 나타냄으로써 저출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장진경, 2004). 결과적으로 자녀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에 대한 결정을, 여성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그러나 자녀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자녀가 소수인 만큼 양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볼 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키워야한다는 의식을 부모들이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고, 비록 자녀에 의한 노후보장 등의 도구적 가치 의식은 적어졌으나 자신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관계성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다. 양육에 대한 관심은 자녀양육의 형태에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의 자녀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자녀양육부담이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 시간적 측면에서 지대해졌기 때문일 것이다(김승권, 전광희, 김민자, 이연주, 김유경, 서문희, 조애저, 2005).

한국사회의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는 자녀라는 존재가 가진 의미와 가치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 전통적인 자녀의식과 가족가치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병존해 있다. 이를 볼 때, 우리사회의 자녀에 대한 의식은 변화적 측면과 전통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신, 1998; 김규원, 1995;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그러므로 한국인이 가진 이러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가치관 등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 사회의 많은 교육,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통과 현재가 의식 속에 같이 녹아 있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내적 역동성을 생각하면 이러한 작업은 결코 단순하지도, 용이하지도 않은 일이다.

3. 선행 연구 검토

가. 국내 연구

자녀 양육관에 관한 국내 기존연구들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출산력조사나 사회통계조사 등의 연구에서 하위 항목으로 결혼이나 자녀 가치관에 대해 대략적으로 조사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이상적인 자녀수 등이 주된 연구내용이다. 독일(Familienbericht)이나 일본(NFS: National Family Study), 미국(NSFH: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등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가족조사의 하위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태도나 기대, 지원 정도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녀 발달이나 양육과 관련한 특정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는 연구로, 아동의 발달,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신념 및 자녀가치 등이 주된 연구내용이 된다. 전자의 경우가 주로 전국 수준의 조사와 데이터 수집을 위한 것인데 반해 후자는 주로 학술적 목적에서 작은 규모의 연구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양육관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에는 전자의 연구 방식이 기여할 수 있는 바와 후자에 속하는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각각 다르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둘을 함께 고려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1) 결혼에 관한 의식 연구

전국가족조사의 하위내용으로 부부를 함께 조사한 장혜경 등의 연구(2003)에서는 부부 가운데 54.5%의 부부는 모두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 부부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김두석(2007)은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결혼가치관, 자녀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는데,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고,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에 수반되는 부담과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보았다.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가치관은 30대 중후반의 연령에서 급격하게 낮아졌다.

2) 자녀출산에 대한 의식 연구

가) 출산에 대한 의식 조사

김승권 등(2005)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가치관의 관점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계열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 부부가 결혼하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1991년 90.3%, 1997년 73.7%, 2003년에는 54.5%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23.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1997년 9.4%에 머물던 것이 2005년 조사에서는 35.0%로 급격

히 증가하였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체로 찬성한다’는 중도적인 태도는 1997년 16.6%에서 41.5%로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2005년도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한 이삼식 등(2005)의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녀관을 대표하는 가치변수로 자녀필요성을 연구하였다. 미혼남녀의 자녀필요성에 대한 태도는 미혼여성(53.8%)에 비하여 미혼남성(61.1%)에게서 상대적으로 자녀 필요성 태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과거에 반드시 가져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의 위치에서 점차 약화되어 선택적인 가치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혼여성은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증가한 반면,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자녀관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자녀관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자녀출산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옥선화, 2003; 장진경, 2004; 천혜정, 2004). 장진경(2004)의 연구결과 출산 및 자녀관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자녀출산의 책임감을 대체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압도적인 비율의 응답자들이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20, 3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옥선화(2003)의 연구결과 및 한 명의 자녀를 가진 25세 이상 45세 이하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천혜정(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에 따르면, 결혼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의 대부분은 출산 의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순덕, 2007;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한편, 여전히 양육에의 부담은 큰 것으로 보인다. 장진경(2004)의 연구 결과 자녀가 필요한 이유로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무자녀를 선택한 대상자들의 경우 무자녀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 시간활동제약, 육체적·정신적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자녀를 가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단산의 이유를 조사한 연구결과(천혜정, 2004)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미혼과 기혼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조차를 출산하지 않고 또는 둘째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 양육에 대해 일반인들이 얼마나 막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고 할 수 있다(장진경, 2004).

나) 추가자녀의 출산 조사

김정석(2007)은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둘째 자녀 출산계획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가족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가의 존재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두석(2007)은 첫째 자녀 연령이 7세 미만이고 자녀를 한명 둔 기혼여성들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그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7세 미만의 자녀를 한명 둔 기혼여성 544명 중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9%이었다. 반면에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 가운데 32.5%는 자녀 성을 구분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첫째 자녀 이후 둘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제1순위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이유'를 지적하였다.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자녀양육의 비용에 대한 지각에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였고,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낮게 지각하였다. 자녀돌봄의 분담형태를 보게 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형태가 더 많았다.

김두석(2007)의 연구결과,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드러났다. 이미 첫째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에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인식이 적을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도 높다. 김두석(2007)은 최근의 자녀양육에 대한 담론들이 지나치게 자녀양육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제로 부모역할의 보람과 기쁨에 대해서는 외면한 측면이 있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 자녀가치에 관한 연구

자녀의 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가짐으로써 기대하는 심리, 경제, 사회적 만족과 부담을 의미한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족과 부담의 균형수준이 자녀를 더 가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출산동기로써 작용할 수 있다. 기대하는 부담감에

비해 기대하는 만족감이 크면 자녀를 더 갖기를 원할 것이고, 부담감이 만족감보다 크면 자녀를 덜 원하게 될 것이다(설영숙, 1977).

자녀에 대한 가치관 연구는 출산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리고 생태학적 체제이론의 접근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양명숙, 1996; 윤미라, 1996; Kiefl & Schmind, 1985).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자녀가치의 개념은 1960년대에 인구심리학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자녀가치와 출산율의 관계를 밝히는 Value of Children(VOC) 연구가 8개국에서 수행되었다. Arnold와 Fawcett(1975)는 1972년에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가치에 대해서 국제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가 참여하였으며,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을 조사한 최초의 자녀가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였다.

1972년에서 1973년에 걸쳐 VOC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성진과 김정우 등의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연구진들이 참여하였다. 연구가 이루어질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4.28명이어서 오히려 출산억제 정책이 필요했던 시절이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1970년대 초엽 한국에서 자녀를 낳는 중요한 동기는 행복, 즐거움, 애정의 공유와 같은 정서적 심리적 가치였으며, 자녀를 낳지 않는 중요한 동기는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은 심리적인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가족의 행복과 가문의 이름을 계승한다는 관계적 가치가 그 다음이었다. 반면에 경제적/도구적 자녀가치는 중요하지 않았다.

김의철 등(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은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가족관련 가치의식을 비교하여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부모부양 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자녀가 가져다주는 행복, 자녀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가치, 심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연구(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결과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는 반응율에 차이는 있지만 두 집단 모두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 인구증가, 사회에 공헌, 노후대책 등을 핵심으로 지적하였다. 김미숙 등(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으로서, 개인적인 면은 가정의 행복, 관계적인 면은 가족의 화목, 가정적인 면은 가족의 화목, 사회적인 면은 사회에 공헌, 경제적인 면은 일할 의욕 향상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인 면, 관계적인 면, 가정적인 면으로 ‘가

정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많은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Kim, Park, Lee, & Yu, 2000; 문순덕, 2007; 한덕웅, 2006)로,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나 공동사회의 가치로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가치와 유사하게 자녀의 효용가치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삼식 등(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김희경, 정윤선, 최은영, 황나미, 서문희, 박세경, 전광희, 김정석, 박수미, 윤홍식, 이성용, 이인재, 2005)의 미혼여성과 유배우부인을 비교한 연구 결과, 자녀 효용에 대해 미혼남녀는 가계계승이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기보다 정서적 가치에 대해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효용에 대한 유배우여성의 가치관을 살펴보면, 유배우부인의 자녀효용과 관련하여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아졌다. 이는 과거 자녀 가치를 가문승계 및 노후의 경제적 지원에 두었던 남아중심의 자녀관이 정서적 가치의 부상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자녀에 대한 가치는 자녀 연령이나 부모의 연령에 따라 가치관이나 의식은 달라진다.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비교한 김의철 등(2005)의 연구결과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나이가 어머니들일수록 더욱 관계지향적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나이가 젊은 어머니일수록 개인지향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다. 자녀를 원하는 이유로, 청소년 어머니 집단은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는다'와 같은 관계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유아 어머니 집단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즐겁다'와 같은 심리적 가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유아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미숙 등(김미숙, 김의철, 박영신, 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가지면 좋은 점에서 경제적인 면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할 의욕 향상'이라고 인식한 반면, 고등학생 집단을 연구한 오정숙, 박영신, 김의철(2005)의 '노후대책'이라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이며 고등학생 부모들은 전통적인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를 가지면 어려운 점은 오정숙 등(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의 연구 결과, 생활비 부담, 양육 및 교육의 부담,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자녀의 사회적응 문제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개인적인 면, 관계적인 면, 가정적인 면, 사회적인 면, 경제적인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김미숙 등(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를 가짐으로써 어렵고 힘든 점으로, 개인적인 면은 개인생활 제약, 관계적인 면은 자녀와의 갈등, 가정적인 면은 양육 및 교육의 부담, 사회적인 면은 직장생활 제약, 경제적인 면은 생활비 부담이 핵심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별로 분석한 김의철 등(2005)의 연구에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나, 유아 어머니 집단은 ‘자유롭지 못하다’와 같은 개인적 제약을 훨씬 강하게 지각하였다. 이는 나이든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보수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선행연구(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김의철 등의 연구 분석대상인 유아 어머니들은 청소년 어머니에 비하여 평균 10세 정도 젊을 뿐이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이나 출산율 등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와 환경에 따라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이유로는 남학생은 대를 잇기 위해서, 여학생은 삶의 행복과 보람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남학생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여학생은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오정숙, 박영신, 김의철, 2007).

4) 부모역할 및 자녀기대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 김두석(2007) 등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에서는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에 90% 이상이 찬성하여,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실제 행위는 다르게 나타날 지라도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은 약하지만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의철(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등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지원에 대한 각오를 분석하였을 때, 한국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매우 강한 사회적 지원의 각오를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젊은 어머니와 나이 든 어머니 집단 모두, 현재의 자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조차도 자기의 자녀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각오가 매우 강하였다. 이러한 한국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강한 사회적 지원의 경향은 그동안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김의철 등의 연구결과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동기에서 세대차이가 밝혀

졌다. 즉, 청소년 어머니 집단이 유아 어머니 집단보다 규범적 동기와 상호적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나이 든 어머니들일수록 부모로서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자녀에 대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자녀가 갚을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어머니들의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는 자녀들의 학업성취(권낙원, 1972; 이재현, 1994; Dandy & Nettelbeck, 2002), 문제해결능력(Hess & Holloway, 1984)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연구 중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를 연구한 결과(이승미, 2004),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하층 어머니들은 상층 어머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났다.

5)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⁷⁾

아동에게 있어 최초의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 특히 어머니는 아동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대상이다. 아동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태도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또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Hart, Dewolf, Wozniak & Burfs, 1992). 자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화 기초가 이루어지고 성격의 근본이 형성된다.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의와 형태를 보는 관점이 학자마다 다양하다.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ishbein과 Ajze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안진(1982)은 양육태도란 태 중에서나 또는 갓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를 먹이고 보호하고

7) 양육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는 양육방식, 양육스타일, 양육행동 등 여러 방식으로 접근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수 있으나 본 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양육 태도에 대한 연구의 동향만을 정리하였다

일러주고, 함께 놀아주며, 자녀의 요구에 응하고 거부하는 행동은 물론 자녀의 잘잘 못에 대해 칭찬하고 벌 주는 등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라고 하였다. 김석현(1983)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유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일관된 정서적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는 내적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최경순(1992)이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보편적인 행동이라고 하였고, 권준희(1998)는 부모가 나타내는 반응양식을 개인 또는 그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정한 문화양식의 범주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 또는 행동의 경향성과 반응양식을 양육태도라고 하였다. 남재희(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성된 양육자로서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이라고 정의내렸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양육태도를 수용적-거부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해 분류하였다(이정란, 1998 재인용). Symonds(1949)의 이론에 따르면 극단적인 지배와 복종이 아닌 보호의 거분의 중간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라 말하고 있다. 많이 쓰이는 또 다른 분류인 Baumrind(1966)는 부모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통제, 성숙, 요구, 의사소통, 그리고 양육정도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민주적 태도, 권위주의적 태도, 허용적 태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Baumrind와 함께 대표적인 학자로 Schaefer를 들 수 있다. Schaefer(1959)는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소년기까지의 발달과 부모 양육태도를 30년 동안의 장기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적-거부적, 자율적-통제적의 두 축으로 분류하였다. Schaefer의 어머니 행동연구도구(MBRI)는 Becker(1964), Mussen, Conger와 Kagan(1969)의 연구에 의해 타당성이 입증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원영(1983)에 의해 타당도가 증명된 바 있다. Berker(1964)는 적대심-온정, 제한-허용, 과보호-방인의 3요인을 추출하였고, 여기에서 다시 민주적, 관용적, 신경 과민적, 무관심, 권위주의, 엄격한 통제, 과보호, 조직적 효율성의 8가지 양육태도 유형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중혜(1980)는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원영(1983)은 Schaefer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척도(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MBRI)를 번역·수정하면서 요인분석을 통해 애정, 적대,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 통제, 긍정

적 평가, 독립심 등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정운식(1989)은 양육태도 유형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보호-방임, 성취-안일, 개방-폐쇄로 구분하였고, 박성연·이숙(1990)은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통제의 7가지 요인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나. 국제간 비교 연구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과 신념 등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연구들이 다양한 주제에서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은 국내 학자에 의한 국제적 비교연구와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1) 자녀가치 관련 연구

출산률의 국가간 차이와 원인을 가치관의 차이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Tromsdorff와 Nauck(2005)는 자녀에 대한 가치(Value of Children: VOC)의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자녀에 대한 가치가 사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출산과 부모-자녀 관계에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실제적 조사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독일의 경우 3세대간 자녀가치의 비교에서 '자녀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행복하다'라는 '정서적 가치(emotional value)'에서 구세대(할머니세대)가 다른 세대들(어머니세대, 손자녀세대)보다 높은 점수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이가 든 부모세대일수록 자녀가 가진 경제적인 가치("노후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복종(obedience)'이라는 양육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정서적인 가치를 높이 들수록 독립심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취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가치를 노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두고 있었다.

체코의 경우,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꾸준한 출산률 회복 인구정책으로 인해 1990년 대 중반 이후 어느 정도 안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체코의 연구는 많은 부부가 이른 나이에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출산은 미루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력에 따라 여성들이 자녀의 가치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력이 낮은 여성일수록 아이를 가족과 강하여 연

결시켜 아이를 통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의식이 강한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물려주는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모든 세대에 걸쳐 부모가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인 이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터키는 출산률이 높고 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며, 자녀 양육은 20-29세 연령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1975년)의 조사 결과에 비해 최근(2003년)의 결과는 자녀를 가지는 데 대한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는 비율이 줄어들고 대신 심리적, 정서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성별선호에서도 도시지역이고 SES가 높을수록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별선호를 보이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양육목표는 더 이상 "착한 사람"되기가 아니라 개인적 가치 추구에 높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무슬림이라는 두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자녀에 대한 가치를 살펴봄에서 둘 간 차이를 보인다. 무슬림에 비해 유대인의 평균 자녀수가 1명 정도 적으나 노인이 자녀 가까이 살며 자녀의 삶에 관여한다는 점은 두 민족간 공통적인 점이다. 자녀 가치에서 애정적 가치(affection)는 두 민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슬림이 유대인보다는 자식을 통한 편안함(comfort)이나 존중받음(esteem)에 유의미하게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고 시골지역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무슬림과 비슷한 자녀가치 의식이 있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2001년 현재 인도의 인구는 세계 인구 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족은 특히 시골의 농업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가장 큰 지지 체계이므로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성장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인도는 사회 문화적 발달과 변화의 결과로 아동의 가치에 관한 인식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전통적인 아동의 가치(경제적 가치)와 함께 정서적 가치를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녀수에 있어서도 세대가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문화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화된 국가로 250개의 언어와 300개의 인종집단이 존재한다. 여성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평균 21.6세, 남성은 25.2세에 결혼을 한다. 출산율은 약 2.5명이고 시골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의 가치는 '노후의 안정'이었고 연령이 낮고 도시 지역일수록 '정서적 가치(자녀를 통해 정서적 기쁨과 행복을 누림)'를 중요하게 생각하였

다. 즉, 인도네시아 사회는 자녀의 가치가 노후의 안정 가치에서 정서적인 가치로 전환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노후의 편안함, 보상을 중요시 할수록 복종을 양육목표로 두는 경향이 강하고 정서적인 가치를 중요시 할수록 학업성취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경우는 1972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초기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이 자녀의 가치를 경제적, 실리적인 데 두고 있지 않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가치를 중시하여 자녀를 통한 행복감과 사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응답자일수록 전통적 가치인 혈통 또는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나 자녀를 통한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음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도 증명되었다. 최근의 연구는 세대 간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가족지향적이고 집합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고 젊은 어머니일수록 개인주의적인 입장에 자녀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구세대가 자녀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녀 기대 관련 연구

2007년 일본의 국립 여성 교육 센터(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NWECE)가 실시한 가정교육(home education)에 대한 국가간 비교 연구 결과의 일부에서 아시아(한국, 일본, 태국) 및 서구 몇몇 국가(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국민들은 자녀에 대하여 어떻게 차이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자녀가 15세가 되었을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본의 부모들은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것'에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학교 성적이나 경쟁에서의 성공에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은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갖는 것'에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가 되는 것'에 높은 기대감을 두고 있었다, 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경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은 낮은 기대 점수를 보였다. 태국의 경우는 앞서의 두 나라와는 달리 '남성스러움(남성) 또는 여성스러움(여성)'에 가장 높은 기대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53%)'에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에

서는 정반대로 나타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기대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프랑스도 미국과 비슷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갖는 것’, ‘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부모가 가장 기대하는 항목이었다. 스웨덴의 경우도 비슷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것’, ‘다음 사람과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삶에서 자신의 목표를 갖는 것’의 순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미래에 자녀의 삶이 어떠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기대의 조사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행복한 가정(a happy home)’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자녀가 ‘타인에 대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세 번째 순위로 ‘일보다 취미나 여가를 중요시하기’를 기대했으나 미국과 태국, 프랑스는 자녀가 ‘높은 소득’을 갖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희망하였다.

교육적 성취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한국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자녀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가기를 기대하였고 반면 일본은 45%정도의 비율에 그치고 있었다. 태국은 52%의 부모가 자녀의 대학졸업을 희망하였고 미국은 80% 이상이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70% 이상, 스웨덴은 55% 정도가 대학교육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자녀를 키우는 의미, 즉 자녀의 가치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켜준다’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재미있다’가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국에서 특이점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았다는 점이다. 반면 태국은 ‘자녀는 부모가 노인이 되었을 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에서 독보적인 높은 반응을 보였다. 이 응답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장 낮은 응답비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노인이 되었을 때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에서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전통과 현실과 경제 사정 등 여러 측면의 차이로 인해 자녀 기대와 가치에서 상이하고 다양한 양육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에 대한 의식 연구

결혼에 대한 의식의 연구는 양육관과 관련한 연구 주제와는 어느 정도 거리는

있으나 양육관 조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살펴볼만한 가치는 있다. 따라서 결혼과 관련된 가치관의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 관련된 기저의 의식을 분석해봄으로써 양육관조사가 가져오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의 한 분야로서 본 장에 포함하였다.

은기수(2006)는 2002년 국제사회조사의 가족모듈과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가족가치가 국제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결혼, 동거,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필리핀,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 34개국의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대해 한국과 필리핀, 불가리아, 러시아, 헝가리 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프랑스 유럽의 국가들이 비교적 덜 전통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아시아 국가인 일본이나 대만도 한국보다는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동의 정도가 적음을 보였다.

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와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문항에서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의 국가에서 가장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덴마크가 독보적으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도 높은 동의를 나타내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국가도 비교적 높은 점수의 비전통적 가치관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산이 결혼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라는 문항에서 출산은 결혼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통적 태도가 가장 강한 국가는 슬로바키아였고 한국은 그 다음 순위였다. 아시아권의 필리핀, 대만, 일본, 등이 비교적 높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프러스, 이스라엘, 폴란드, 불가리아, 호주, 미국, 브라질 등이 모두 전통적 태도가 높은 군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북유럽에 속한 국가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이 출산을 원하면 결혼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해 가장 비전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고 스페인도 비교적 이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등의 국가는 결혼과 출산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어야한다는 전통적 태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력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동거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출산을 원하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전통적 의식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거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함께 사는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출산도 꼭 결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출산력이 높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음을 연구자는 지적하였다. 더불어 한국, 대만, 필리핀, 일본 등은 대부분의 태도에서 매우 전통적,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한국이 결혼과 행복을 연관시키는 점에서 가장 전통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4) 양육 신념 연구

부모가 자녀 양육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국가간에 비교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신념을 비교한 김희진(1995)의 연구와 한국, 몽골, 베트남 부모의 특성을 비교한 나정, 장명림, 박은실(1999)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간 비교연구는 아니나 참고적으로 최근 발표된 영국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 조사 결과⁸⁾도 함께 정리하였다.

김희진(199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유아 어머니들이 미국 어머니들보다 자녀들에게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높았고 동시에 자녀는 독립성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다. 또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도 한국 어머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어머니들은 한국 어머니들보다 자녀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감정을 많이 표현하기를 원했다. 성별비교의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남아의 어머니들이 여아의 어머니들보다 생각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강조했고 자녀들이 독립적하기를 원했다. 반면 여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어머니들은 오히려 여아의 경우 좀 더 독립적하기를 바랐고 남아들은 더 순종적하기를 원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비교를 보면, 한국의 어머니들이 장자보다는 장자가 아닌 자녀에게 더 순종적하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외에는 한국

8) 2008년 5월 영국 정부의 「아동·학교·가족부」가 발표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 실태 조사 2007’의 결과는 영국의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교육에 대한 신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과 미국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신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정 등(1999)의 연구는 아시아권의 세 국가, 즉 한국, 몽골, 베트남의 가정을 각각 사례조사하고 유아기 자녀교육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맥락에서 각 국가의 자녀양육 신념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소수의 사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체 국가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세 국가간 차이를 피상적으로나마 살펴본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몽골의 부모들은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우에 따라 부모의 의견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자녀가 갖기를 원하는 직업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 기대를 갖고 있었으며 ‘사업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교육의 중요성에서 ‘취업이나 미래를 위하여’,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라고 답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지위 확보를 자녀양육의 성공과 연결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에 있어 특히 음식과 건강 관리가 어머니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베트남의 부모들은 자녀가 장래 음악가, 교사, 운전기사 등의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였고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며 가문의 직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응답도 있었다. 미래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건강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 뿐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높은 교육적 열의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직업이나 인간상으로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 신념으로 지니고 있었고 경쟁사회를 깊이 의식하여 교육적 성취와 인성교육을 모두 강조하였다.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면서도 ‘최대한의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여 한국 부모의 특성을 일부 보여 주었다.

영국의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 참여 조사는 2007년 5-16세 자녀 부모 5,03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Peters, Seeds, Goldstein, & Coleman, 2007). 결과를 보면, 부모의 51%가 자녀의 교육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이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 비율이었다. 또 자녀교육은 학교와 부모가 동등한 정도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45%) 특히 백인이 아닌 타 인종 부모들이 학교보다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3%의 응답자가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을 ‘매우 중요’로 인식하였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모일수록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응답 가정의 1/5정도가 보습학원 등 학습적 도움을 받고 있었다.

Ⅲ. 결혼·출산 및 자녀가치 의식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20~55세 성인 중 미혼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과 모든 해당 연령 기혼·미혼 성인이 가진 자녀 출산과 자녀가치에 대한 사고의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본 장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과 양육관 중 자녀가치에 대한 의식의 실태 제시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1.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가. 미혼 성인의 결혼·출산에 대한 의식

1) 결혼에 대한 의식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미혼자의 92.5%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7.5%만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미혼자의 대부분이 결혼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년 내에 할 계획이다'라는 응답보다는 '언젠가는 할 생각이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2년 내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3.6%, 여성의 10.3%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향후 결혼 의향(미혼 대상)

단위: %(명)

구 분	1~2년 내에 할 계획임	언젠가는 할 생각임	하지 않을 것임	계	$\chi^2(df)$
전체	19.9	72.6	7.5	100.0(598)	
성별					
남성	21.5	74.9	3.6	100.0(247)	9.3(2)*
여성	18.8	70.9	10.3	100.0(351)	
연령별					
20대	15.4	79.8	4.8	100.0(441)	64.8(6)***
30대	34.4	53.4	12.2	100.0(131)	
40대	24.0	48.0	28.0	100.0(25)	
50대	0.0	0.0	100.0	100.0(1)	
지역규모별					
대도시	19.4	74.0	6.6	100.0(304)	1.0(4)
중소도시	20.3	71.3	8.4	100.0(261)	
군지역	21.2	69.7	9.1	100.0(3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5.2	77.5	7.3	100.0(453)	35.6(8)***
200~299만원	35.9	53.4	10.7	100.0(103)	
300~399만원	42.9	57.1	0.0	100.0(21)	
400~499만원	18.2	81.8	0.0	100.0(11)	
500만원 이상	25.0	62.5	12.5	100.0(8)	

* $p < .05$ *** $p < .001$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미혼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내 개인의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33.3%,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28.9%,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미혼자들은 타인과의 공동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고 혼자만의 개인적인 삶을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보이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의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지역 규모, 월 소득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1-2〉 미혼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결혼에 무관심	(배우자) 동거의 어려움	육아 및 시(/처)가 관계	개인적 삶의 향유	건강상 문제	계	$\chi^2(df)$
전체	28.9	22.2	13.3	33.3	2.2	100.0(45)	
성별							
남성	44.4	22.2	0.0	33.3	0.0	100.0(9)	2.7(4)
여성	25.0	22.2	16.7	33.3	2.8	100.0(36)	
연령별							
20대	19.0	19.0	14.3	47.6	0.0	100.0(21)	-
30대	37.5	12.5	18.8	31.3	0.0	100.0(16)	
40대	42.9	57.1	0.0	0.0	0.0	100.0(7)	
50대	0.0	0.0	0.0	0.0	100.0	100.0(1)	
지역규모별							
대도시	35.0	20.0	15.0	25.0	5.0	100.0(20)	-
중소도시	27.3	22.7	13.6	36.4	0.0	100.0(22)	
군지역	0.0	33.3	0.0	66.7	0.0	100.0(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7.3	24.2	9.1	36.4	3.0	100.0(33)	-
200~299만원	36.4	18.2	18.2	27.3	0.0	100.0(11)	
500만원 이상	0.0	0.0	100.0	0.0	0.0	100.0(1)	

-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하지 않음.

2)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질 것인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녀를 가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89.1%로 ‘갖지 않을 것이다’ 10.9%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20대는 93.2%, 30대 86.3%, 40대 36.0%가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미혼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를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하집단이 중이상의 집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수준이 자녀 출산 의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II-1-3〉 미혼자의 결혼 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명)

구 분	출산 선호	무자녀 선호	계	$\chi^2(df)$
전체	89.1	10.9	100.0(598)	
성별				
남성	92.3	7.7	100.0(247)	4.4(1)*
여성	86.9	13.1	100.0(351)	
연령별				
20대	93.2	6.8	100.0(441)	89.7(3)***
30대	86.3	13.7	100.0(131)	
40대	36.0	64.0	100.0(25)	
50대	0.0	100.0	100.0(1)	
경제수준별				
중상이상	86.8	13.2	100.0(38)	11.4(3)*
중	91.2	8.8	100.0(285)	
중하	90.0	10.0	100.0(220)	
하	75.9	24.1	100.0(54)	
학력별				
고졸 이하	78.3	21.7	100.0(115)	18.0(3)***
전문대학 졸	92.5	7.5	100.0(159)	
대학교 졸	91.6	8.4	100.0(309)	
대학원 졸	91.7	8.3	100.0(595)	

* $p < .05$ *** $p < .001$

향후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려고 할 경우,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는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가지고 싶어서’ 38.6%,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 29.8%,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의무/역할이기 때문에’ 20.3%, ‘나의 핏줄을 이어가고 싶어서’ 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는 결혼으로 인해 구성하게 되는 가족에서의 의미와 역할이 큰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응답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남성이 비해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가지고 싶어서’,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 등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높은 반응을 보였으나,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의무/역할이기 때문에’, ‘나의 핏줄을 이어가고 싶어서’ 등 보다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에 있어서는 연령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1-4〉 미혼자의 자녀 출산 희망 이유

단위: %(명)

구 분	당연한 의무/ 역할임	나의 핏줄을 이어감	내 가족을 가지고 싶음	가족이 화목해짐	계	$\chi^2(df)$
전체	20.3	11.3	38.6	29.8	100.0(531)	
성별						
남성	25.1	15.4	36.1	23.3	100.0(227)	16.5(3)**
여성	16.8	8.2	40.5	34.6	100.0(304)	
연령별						
20대	18.8	11.2	41.3	28.6	100.0(409)	7.7(6)
30대	25.7	10.6	29.2	34.5	100.0(113)	
40대	22.2	22.2	33.3	22.2	100.0(9)	
월 소득별						
200만원미만	18.6	9.2	42.7	29.5	100.0(403)	27.6(12)**
200~299만원	27.2	18.5	29.3	25.0	100.0(92)	
300~399만원	22.2	5.6	27.8	44.4	100.0(18)	
400~499만원	25.0	25.0	12.5	37.5	100.0(8)	
500만원 이상	12.5	37.5	0.0	50.0	100.0(8)	

** $p < .01$

향후 결혼하여 자녀수를 계획하고자 할 때, ‘2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이 전체의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2명을 계획하고 있다’에 61.3%, ‘3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에 13.4%를 보인 반면에 40대는 ‘1명을 계획하고 있다’가 77.8%, ‘3명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에는 한 명도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즉, 연령이 높은 미혼자일수록 자녀수를 적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수 계획에서의 차이는 경제수준별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바, 중상이상 집단은 자녀수 2명에 응답이 몰려 있고(75.8%) 3명 이상은 3%의 응답률에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수준이 하층에 가까울수록 1명을 원하는 비율과 3명을 원하는 비율이 2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즉 2명을 원하는 비율은 중상류층 이상에서 가장 높고 하층에서 가장 낮았다. 또한 1명을 원하는 비율에서는 하층이 가장 높았고 중상층이 가장 낮았다. 경제수준별로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I-1-5〉 미혼자의 향후 자녀수 계획

단위: %(명)

구 분	1명	2명	3명 이상	계	$\chi^2(df)$
전체	27.6	59.5	12.9	100.0(533)	
성별					
남성	25.4	58.3	16.2	100.0(228)	4.1(2)
여성	29.2	60.3	10.5	100.0(305)	
연령별					
20대	25.3	61.3	13.4	100.0(411)	13.6(4)**
30대	31.9	55.8	12.4	100.0(113)	
40대	77.8	22.2	0.0	100.0(9)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21.2	75.8	3.0	100.0(33)	13.8(6)†
중	26.5	63.1	10.4	100.0(260)	
중하	29.3	55.1	15.7	100.0(198)	
하	29.3	46.3	24.4	100.0(41)	
학력별					
고졸 이하	27.8	58.9	13.3	100.0(90)	4.6(6)
전문대학 졸	27.2	63.3	9.5	100.0(147)	
대학교 졸	28.6	56.9	14.5	100.0(283)	
대학원 졸	9.1	72.7	18.2	100.0(11)	

** $p < .01$ *** $p < .001$

결혼 후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미혼자의 경우, ‘자녀에게 형제관계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의 이유가 35.7%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외동이면 외로울까봐’가 26.2%로 높았다.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도 19.2%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경제수준별로 보면 중상이상에서는 ‘자녀가 외동이면 사회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의 이유가 가장 높은 특징을 나타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

〈표 III-1-6〉 미혼자가 향후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형제 경험의 중요성	외동은 외로움	외동은 사회성 부족	다자녀 가족이 화목함	아들+딸 모두 희망	계	$\chi^2(df)$
전체	35.7	26.2	14.4	19.2	4.5	100.0(381)	
성별							4.3(4)
남성	35.5	24.9	12.4	20.7	6.5	100.0(169)	
여성	35.8	27.4	16.0	17.9	2.8	100.0(212)	
연령별							
20대	36.0	24.8	14.9	19.8	4.6	100.0(303)	2.9(8)
30대	34.2	31.6	13.2	17.1	3.9	100.0(76)	
40대	50.0	50.0	0.0	0.0	0.0	100.0(2)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26.9	23.1	34.6	11.5	3.8	100.0(26)	12.3(12)
중	35.6	27.7	12.8	19.7	4.3	100.0(188)	
중하	36.7	27.3	12.9	18.7	4.3	100.0(139)	
하	39.3	14.3	14.3	25.0	7.1	100.0(28)	

미혼자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에서 69.2%가 ‘선호하는 성별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남아를 선호한다고 한 응답자는 11.6%, 여아를 선호한 응답자는 19.1%로 여아를 선호하는 미혼성인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더라도 남성, 여성할 것 없이 남아보다는 여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여아를 선호하는 여성이 22.3%, 여아를 선호하는 남성은 14.9%로 여성이 남성보다 여아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성별이 없다고 말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월 소득별로 비교해 보면, 응답 집단의 개체 수가 차이가 많아 통계적 유의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성별에 대한 어느 한 쪽의 선호가 없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1-7〉 미혼자가 선호하는 자녀 성별

단위: %(명)

구 분	남아	여아	없다	계	$\chi^2(df)$
전체	11.6	19.1	69.2	100.0(533)	
성별					
남성	13.6	14.9	71.5	100.0(228)	5.3(2)
여성	10.2	22.3	67.5	100.0(305)	
연령별					
20대	13.1	18.2	68.6	100.0(411)	4.5(4)
30대	6.2	22.1	71.7	100.0(113)	
40대	11.1	22.2	66.7	100.0(9)	
지역규모별					
대도시	11.8	19.5	68.8	100.0(272)	2.0(4)
중소도시	12.4	18.5	69.1	100.0(233)	
군지역	3.6	21.4	75.0	100.0(28)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2.3	20.2	67.4	100.0(405)	7.9(8)
200~299만원	10.9	18.5	70.7	100.0(92)	
300~399만원	11.1	16.7	72.2	100.0(18)	
400~499만원	0.0	0.0	100.0	100.0(8)	
500만원 이상	0.0	0.0	100.0	100.0(8)	

향후 결혼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이유는 ‘자녀보다는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개인의 생활을 즐기고 싶은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되기에 연령이 너무 많아서’ 21.5%,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0.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미혼자의 대부분이 연령이 많은 것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로 응답하였으며, 연령이 낮을 수록 ‘자녀보다는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녀보다 본인의 생활을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는 같으나 여성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부모가 되기에 연령이 많아서’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가 21.1%를 차지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남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미혼자가 향후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내 삶을 즐기기 위해	부모 될 자신이 없음	연령이 많음	계	$\chi^2(df)$
전체	20.0	6.2	41.5	9.2	21.5	100.0(65)	
성별							
남성	15.8	21.1	36.8	15.8	5.3	100.0(19)	17.0(5)*
여성	21.7	0.0	43.5	6.5	28.3	100.0(46)	
연령별							
20대	23.3	0.0	66.7	10.0	0.0	100.0(30)	-
30대	22.2	16.7	27.8	11.1	16.7	100.0(18)	
40대	6.3	6.3	12.5	6.3	68.8	100.0(16)	
50대	100.0	0.0	0.0	0.0	0.0	1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5.0	8.3	41.7	8.3	16.7	100.0(48)	-
200~299만원	9.1	0.0	45.5	9.1	36.4	100.0(11)	
300~399만원	0.0	0.0	0.0	33.3	33.3	100.0(3)	
400만원 이상	0.0	0.0	66.7	0.0	33.3	100.0(3)	

* $p < .05$

-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하지 않음.

미혼자가 결혼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의 행동을 예상했을 때, 전체의 47.1%가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임'으로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50.5%가 '시험관 시술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임'이 가장 높았던 반면, 30대의 47.4%와 40대의 77.8%는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겠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볼 때, 군지역은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입양하겠다'가 39.3%로 가장 높은 점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표 III-1-9〉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행동(미혼 대상)

단위: %(명)

구 분	인공수정 시술	출산포기	입양	계	$\chi^2(df)$
전체	47.4	35.3	17.4	100.0(524)	
성별					
남성	48.0	38.1	13.9	100.0(223)	3.6(2)
여성	46.8	33.2	19.9	100.0(301)	

구 분	인공수정 시술	출산포기	입양	계	$\chi^2(df)$
연령별					
20대	50.5	30.9	18.6	100.0(404)	18.2(4)**
30대	38.7	47.7	13.5	100.0(111)	
40대	11.1	77.8	11.1	100.0(9)	
지역규모별					
대도시	47.7	33.1	19.2	100.0(266)	14.3(4)**
중소도시	48.3	39.1	12.6	100.0(230)	
군지역	35.7	25.0	39.3	100.0(28)	

** $p < .01$

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앞으로 가질 계획임(또는 임신 중)’의 이유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96.3%, 30대의 77.0%가 앞으로 가질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반면 40대 36.4%와 50대의 75.0%는 ‘낳고 싶으나 임신이 되지 않음’이 큰 이유로 나타났다. 경제수준별에서는 중상위층의 66.7%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중, 중하, 하의 집단에서는 ‘앞으로 가질 계획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과 소득이 일정부분 비례관계에 있다고도 추정 가능하므로 두 변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표 III-1-10〉 자녀가 없는 이유(기혼 대상)

단위: %(명)

구 분	임신이 되지 않음	출산생각 없음	앞으로 가질 계획임	이혼함	계	$\chi^2(df)$
전체	14.6	4.9	72.8	7.8	100.0(103)	
성별						
남성	10.4	4.2	79.2	6.3	100.0(48)	1.9(3)
여성	18.2	5.5	67.3	9.1	100.0(55)	
연령별						
20대	3.7	0.0	96.3	0.0	100.0(27)	54.5(9)***
30대	11.5	6.6	77.0	4.9	100.0(61)	
40대	36.4	0.0	18.2	45.5	100.0(11)	
50대	75.0	25.0	0.0	0.0	100.0(4)	

구 분	임신이 되지 않음	출산생각 없음	앞으로 가질 계획임	이혼함	계	$\chi^2(df)$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3.3	66.7	0.0	0.0	100.0(3)	34.1(9)***
중	17.9	3.6	75.0	3.6	100.0(56)	
중하	7.5	2.5	77.5	12.5	100.0(40)	
하	25.0	0.0	50.0	25.0	100.0(4)	

*** $p < .001$

자녀가 없는 기혼자가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는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가지고 있어서’의 이유가 42.6%로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17.8%가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의무/역할이기 때문에’를 이유로 꼽았고 여성은 30.6%가 여기에 답하여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에서 남성과 여성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표 III-1-11〉 향후 자녀를 가지려는 이유(무자녀 기혼자)

단위: %(명)

구 분	당연한 의무/역할임	나의 핏줄을 이어감	가족을 갖고 싶음	가족이 화목해짐	계	$\chi^2(df)$
전체	24.5	10.6	42.6	22.3	100.0(94)	
성별						
남성	17.8	8.9	48.9	24.4	100.0(45)	2.8(3)
여성	30.6	12.2	36.7	20.4	100.0(49)	
연령별						
20대	37.0	7.4	48.1	7.4	100.0(27)	-
30대	21.1	14.0	45.6	19.3	100.0(57)	
40대	12.5	0.0	12.5	75.0	100.0(8)	
50대	0.0	0.0	0.0	100.0	100.0(2)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7.7	30.8	30.8	30.8	100.0(13)	-
200~299만원	27.6	10.3	31.0	31.0	100.0(29)	
300~399만원	32.3	9.7	45.2	12.9	100.0(31)	
400~499만원	18.2	0.0	54.5	27.3	100.0(11)	
500만원 이상	20.0	0.0	70.0	10.0	100.0(10)	

-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지 않음.

연령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각각 48.1%, 45.6%가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가지고 싶어서'가 가장 높은 이유였던 반면, 40대와 50대는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가 75.0%, 10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대 별로 비교했을 때 20, 30대는 결혼을 하고 당연하게 자녀를 가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40대 이상은 이미 출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한 경우이므로 심리적으로 자녀없음에 대한 갈등이 많아 자녀가 있으면 가정이 더욱 화목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녀수 계획에서는 54.3%가 '2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20대의 70.4%, 30대의 52.6%, 40대의 25.0%가 '2명'의 자녀를 원하고 나머지는 1명의 자녀를 원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이 낮은 집단이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소득별로 특징을 찾아보면 월수입 200만원 미만의 집단은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가 '1명'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0만원 이상은 2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0만원 이상의 집단은 1명, 2명, 3명 이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수준이 자녀수를 계획할 때,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1-12〉 무자녀 기혼자의 향후 자녀수 계획

단위: %(명)

구 분	1명	2명	3명 이상	계	$\chi^2(df)$
전체	41.5	54.3	4.3	100.0(94)	
성별					
남성	33.3	60.0	6.7	100.0(45)	3.1(2)
여성	49.0	49.0	2.0	100.0(49)	
연령별					
20대	29.6	70.4	0.0	100.0(27)	-
30대	40.4	52.6	7.0	100.0(57)	
40대	75.0	25.0	0.0	100.0(8)	
50대	100.0	0.0	0.0	100.0(2)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3.8	38.5	7.7	100.0(13)	-
200~299만원	48.3	51.7	0.0	100.0(29)	
300~399만원	38.7	61.3	0.0	100.0(31)	
400~499만원	27.3	72.7	0.0	100.0(11)	
500만원 이상	30.0	40.0	30.0	100.0(10)	

-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지 않음.

무자녀 기혼자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은 특별히 '없다'가 66.0%로 미혼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규모별과 소득수준별 모두 과반수 이상이 자녀의 성별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3〉 선호하는 자녀 성별(무자녀 기혼자)

단위: %(명)

구 분	남아	여아	없다	계	$\chi^2(df)$
전체	16.0	18.1	66.0	100.0(94)	
성별					
남성	15.6	20.0	64.4	100.0(45)	0.2(2)
여성	16.3	16.3	67.3	100.0(49)	
연령별					
20대	22.2	11.1	66.7	100.0(27)	-
30대	15.8	22.8	61.4	100.0(57)	
40대	0.0	12.5	87.5	100.0(8)	
50대	0.0	0.0	100.0	100.0(2)	
지역규모별					
대도시	11.8	13.7	74.5	100.0(51)	4.8(4)
중소도시	22.5	22.5	55.0	100.0(40)	
군지역	0.0	33.3	66.7	100.0(3)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0.0	0.0	100.0	100.0(1)	-
중	19.2	15.4	65.4	100.0(52)	
중하	13.2	21.1	65.8	100.0(38)	
하	0.0	33.3	66.7	100.0(3)	

-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지 않음.

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

현재 자녀수 조사에서 1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7%, 2명은 67.3%, 3명은 11.1%로 조사되었고 최대 자녀수는 5명이었다. 평균 가구당 자녀수는 1.92명(표준편차 0.59)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들의 현재 자녀수를 조사했을 때, 20대 기혼자들은 76.9%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나머지 30대, 40대, 50대 기혼자들은 각각 62.8%, 69.7%, 72.9%가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규모, 월소득, 학력 같이 각각의 분류된 집단에서도 자녀가 2명인 경우가 모두

50%를 넘어서, 2명의 자녀를 둔 결혼한 부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4〉 가구당 현재 자녀수

단위: %(명), 명

구 분	1명	2명	3명	4명이상	계	$\chi^2(df)$	평균(표준편차)
전체	20.7	67.6	11.0	0.6	100.0(1,481)		1.92(.59)
가구주 연령							
20대	76.9	23.1	0.0	0.0	100.0(13)	80.1(9)***	1.23(.44)
30대	30.3	62.8	6.7	0.2	100.0(479)		1.77(.57)
40대	15.5	69.7	13.8	1.0	100.0(760)		2.00(.59)
50대	14.8	72.9	11.4	0.6	100.0(229)		1.98(.55)
지역규모							
대도시	19.2	69.5	10.6	0.6	100.0(735)	13.9(6)	1.93(.57)
중소도시	21.6	67.3	10.6	0.5	100.0(639)		1.90(.58)
군지역	26.2	56.1	15.9	1.8	100.0(107)		1.94(.74)
가구주 월소득							
200만원 미만	28.0	61.6	10.4	0.0	100.0(164)	20.5(9)*	1.82(.60)
200~299만원	23.9	66.2	8.7	1.1	100.0(447)		1.87(.61)
300~399만원	17.8	68.1	13.3	0.7	100.0(427)		1.97(.59)
400만원 이상	17.7	70.5	11.3	0.5	100.0(443)		1.95(.55)
가구주 학력							
고졸 이하	20.0	66.5	12.7	0.8	100.0(504)	9.0(6)	1.94(.61)
전문대학 졸	20.3	65.7	13.7	0.0	100.0(300)		1.94(.60)
대학교졸 이상	21.4	69.4	8.6	0.7	100.0(677)		1.89(.57)

* $p < .05$ *** $p < .001$

향후 자녀를 더 가지려는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93.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52.7%, 30대가 86.6%, 40대가 98.4%, 50대가 99.7%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비교에서는 군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자녀를 더 가지려는 의향이 높았다. 월 소득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10.1%가 향후 자녀를 더 가지려한다고 한 반면, 200~299만원에서는 9.3%, 300~399만원에서는 5.7%, 400~499만원에서는 5.4%, 500만원 이상에서는 3.9%로 소득이 높은 집일수록 향후 자녀를 추가로 가지려하지 않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월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를 더 가지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득과 연령과 지역은 상호 공변량이 큰 변인들로 짐작할 수 있어 드러난 그대로 해석

하기 에는 무리가 있고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III-1-15〉 향후 자녀 추가 계획

단위: %(명)

구 분	더 낳을 생각이다	더 이상 낳지 않겠다	계	$\chi^2(df)$
전체	7.0	93.0	100.0(3,046)	
성별				
남성	8.4	91.6	100.0(1,402)	8.5(1)**
여성	5.7	94.3	100.0(1,644)	
연령별				
20대	47.3	52.7	100.0(74)	350.3(3)***
30대	13.4	86.6	100.0(1,141)	
40대	1.6	98.4	100.0(1,456)	
50대	0.3	99.7	100.0(375)	
지역규모별				
대도시	6.7	93.3	100.0(1,493)	21.9(2)***
중소도시	6.0	94.0	100.0(1,334)	
군지역	14.6	85.4	100.0(219)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0.1	89.9	100.0(326)	22.8(4)***
200~299만원	9.3	90.7	100.0(911)	
300~399만원	5.7	94.3	100.0(884)	
400~499만원	5.4	94.6	100.0(514)	
500만원 이상	3.9	96.1	100.0(406)	

** $p < .01$ *** $p < .001$

자녀를 더 가지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58.2%가 '현재 자녀수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 20대에서 자녀를 더 가지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힘들'이 46.2%로 가장 높게 차지했다. 30대의 32.1%, 40대의 17.0%, 50대의 11.7%가 자녀를 더 가지지 않으려는 이유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이유는 줄어들고, 그 외의 이유로 자녀를 더 갖지 않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월소득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수에 만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하여 소득수준별로 이유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연령별 응답 분포와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1-16〉 자녀를 더 갖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현재 수에 만족	개인 시간 부족	육체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 원치 않음	모 연령 많음	기타	계	$\chi^2(df)$
전체	58.2	1.6	3.6	22.0	2.9	10.4	1.2	100.0(2,777)	
성별									
남성	58.1	0.9	2.4	23.8	4.9	8.6	1.3	100.0(1,260)	62.9(6)***
여성	58.3	2.2	4.7	20.5	1.2	12.0	1.1	100.0(1,517)	
연령별									
20대	35.9	5.1	12.8	46.2	0.0	0.0	0.0	100.0(39)	
30대	52.9	2.5	4.5	32.1	3.3	2.9	1.9	100.0(976)	308.8(18)***
40대	63.7	1.2	2.9	17.0	2.9	11.4	0.9	100.0(1,395)	
50대	54.0	0.5	3.3	11.7	1.9	28.1	0.5	100.0(36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6.3	2.1	3.8	31.4	3.1	13.2	0.0	100.0(287)	
200~299만원	54.3	2.1	3.3	27.6	2.1	8.2	2.5	100.0(809)	
300~399만원	62.3	1.2	3.4	20.7	3.3	8.3	0.7	100.0(818)	102.8(24)***
400~499만원	61.3	1.7	3.6	17.2	3.4	12.0	0.8	100.0(476)	
500만원 이상	62.8	1.0	4.7	12.3	2.9	15.4	0.8	100.0(382)	

*** $p < .001$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88.1%가 '없다'고 답변했다. 남성은 7.8%가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여성은 15.5%가 후회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해 자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어려움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92.9%, 30대의 84.5%, 40대의 89.2%, 50대의 92.7%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 30, 40대 즉, 자녀가 제도 교육의 체제 속에 포함되는 연령을 가진 부모일 경우 후회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자녀가 아주 어린 20대 부모나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가 많은 50대 이상의 부모들은 자녀를 둘 이상 가진 것에 후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

소득별로 보면 비교적 소득이 낮은 부모들이 둘 이상 자녀에 대해 후회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500만원 이상 집단에서 후회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모와 비취업모 집단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소득과 자녀(또는 부모)의 연령대가 부모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에 차이를 가져

온다고 말할 수 있겠다.

〈표 III-1-17〉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 경험

단위: %(명)

구 분	후회경험 있음	후회경험 없음	계	$\chi^2(df)$
전체	11.9	88.1	100.0(2,414)	
성별				
남성	7.8	92.2	100.0(1,114)	33.4(1)***
여성	15.5	84.5	100.0(1,300)	
연령별				
20대	7.1	92.9	100.0(28)	18.4(3)***
30대	15.5	84.5	100.0(834)	
40대	10.8	89.2	100.0(1,236)	
50대	7.3	92.7	100.0(31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2.2	87.8	100.0(230)	11.3(4)*
200~299만원	14.9	85.1	100.0(699)	
300~399만원	11.2	88.8	100.0(722)	
400~499만원	11.5	88.5	100.0(408)	
500만원 이상	8.0	92.0	100.0(350)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16.1	83.9	100.0(559)	0.3(1)
전업주부	15.0	85.0	100.0(741)	

* $p < .05$ *** $p < .001$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한 이유를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59.0%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남성의 74.7%가, 여성은 52.5%가 ‘경제적으로 키우기 힘들어서’의 이유 때문에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후회한 적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컸으며, 중소도시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64.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 60.7%, 200~299만원 68.9%, 300~399만원 59.3%, 400~499만원 48.9%, 500만원 이상의 39.3%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의 이유였는데 역시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이유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母)가 취업주부인 경우 60.0%, 전업주부인 경우 46.4%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았다. 취업주부의 6.7%와 전업주부의 24.5%가 ‘키우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의 이유를 꼽아,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직접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18〉 2명 이상 자녀를 가진 것에 대한 후회 이유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양육의 육체적 어려움	자녀마다 충분한 관심줄수 없음	직장, 사회활동 제약	자녀의 특성	계	$\chi^2(df)$
전체	59.0	11.8	12.2	8.7	8.0	100.0(288)	
성별							
남성	74.7	1.1	10.3	4.6	9.2	100.0(87)	20.1(4)***
여성	52.5	16.5	13.0	10.5	7.5	100.0(200)	
연령별							
20대	50.0	50.0	0.0	0.0	0.0	100.0(2)	26.6(12)**
30대	53.5	18.6	14.7	10.1	3.1	100.0(129)	
40대	63.2	6.0	12.0	6.8	12.0	100.0(133)	
50대	69.6	4.3	0.0	13.0	13.0	100.0(23)	
지역규모별							
대도시	57.0	10.9	14.8	6.3	10.9	100.0(128)	18.8(8)*
중소도시	64.2	11.9	11.2	7.5	5.2	100.0(134)	
군지역	44.0	16.0	4.0	28.0	8.0	100.0(2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0.7	14.3	14.3	3.6	7.1	100.0(28)	31.3(16)*
200~299만원	68.9	6.8	14.6	5.8	3.9	100.0(103)	
300~399만원	59.3	17.3	4.9	9.9	8.6	100.0(81)	
400~499만원	48.9	14.9	19.1	8.5	8.5	100.0(47)	
500만원 이상	39.3	7.1	10.7	21.4	21.4	100.0(28)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60.0	6.7	12.2	14.4	6.7	100.0(90)	14.0(4)**
전업주부	46.4	24.5	13.6	7.3	8.2	100.0(110)	

* $p < .05$ ** $p < .01$ *** $p < .001$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로는 57.2%가 ‘2명’이라고 답하였고 26.5%가 ‘3명’으로 답하였다. 그 다음이 4명(8.6%), 1명(6.4%) 순으로 나타나 2명 또는 3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자녀수였다. 남성과 여

성은 58.2%, 56.3%가 '2명'이라고 답하였고, 경제수준별로는 자신을 경제적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자녀는 1명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2명이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0~2명을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3명 이상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9〉 이상적인 자녀수

단위: %(명)

구 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계	$\chi^2(df)$
전체	0.3	6.4	57.2	26.5	8.6	1.0	100.0(3,747)	
성별								
남성	0.4	6.1	58.2	27.0	6.8	1.4	100.0(1,697)	19.4(5)**
여성	0.3	6.6	56.3	26.0	10.1	0.6	100.0(2,050)	
연령별								
20대	0.7	11.6	62.2	20.3	4.6	0.6	100.0(542)	61.1(15)***
30대	0.2	5.7	56.9	27.8	8.3	1.0	100.0(1,333)	
40대	0.3	5.7	55.1	27.9	10.0	1.1	100.0(1,492)	
50대	0.5	4.2	59.2	25.0	10.0	1.1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0.2	7.3	57.6	26.4	7.5	1.0	100.0(1,855)	27.1(10)**
중소도시	0.4	6.0	57.3	25.7	9.9	0.7	100.0(1,637)	
군지역	1.2	2.7	53.7	31.8	8.6	2.0	100.0(255)	
결혼/자녀유무별								
미혼	1.0	12.2	63.5	19.2	3.3	0.7	100.0(598)	130.0(10)***
기혼 무자녀	1.0	17.5	62.1	18.4	1.0	0.0	100.0(103)	
기혼 유자녀	0.2	4.9	55.8	28.2	9.9	1.1	100.0(3,046)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0.8	4.2	58.3	29.2	7.6	0.0	100.0(264)	38.4(15)**
중	0.2	5.0	58.5	27.4	7.9	0.9	100.0(1,918)	
중하	0.4	8.3	56.0	24.7	9.4	1.3	100.0(1,342)	
하	0.9	9.6	52.5	26.0	11.0	0.0	100.0(219)	
학력별								
고졸 이하	0.5	5.3	57.6	25.4	10.2	1.0	100.0(1,427)	
전문대학 졸	0.1	6.8	57.8	26.9	7.8	0.6	100.0(837)	
대학교 졸	0.2	7.6	57.6	26.0	7.4	1.2	100.0(1,328)	
대학원 졸	0.7	4.3	45.0	41.4	8.6	0.0	100.0(140)	37.3(15)**

** $p < .01$ *** $p < .001$

2. 자녀가 갖는 가치에 대한 의식

가. 자녀의 필요성 인식

자녀 출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5.1%가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1.5%가 ‘자녀는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여 96.6%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자녀의 출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응답경향은 집단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데, 모든 집단에서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에 95%이상이 응답하였다.

〈표 III-2-1〉 자녀 출산의 필요성 의식

단위: %(명)

구 분	자녀를 낳는 것은 꼭 필요	가능하면 낳는 것이 좋음	가능하면 낳지 않는 것이 좋음	자녀를 낳을 필요 없음	계	$\chi^2(df)$
전체	55.1	41.5	1.6	1.8	100.0(3,747)	
성별						
남성	57.8	39.5	1.3	1.4	100.0(1,697)	12.0(3)**
여성	52.8	43.1	1.9	2.1	100.0(2,050)	
연령별						
20대	40.2	55.0	1.5	3.3	100.0(542)	81.5(9)***
30대	53.4	42.8	1.7	2.1	100.0(1,333)	
40대	60.5	36.9	1.4	1.3	100.0(1,492)	
50대	61.1	35.8	2.4	0.8	100.0(380)	
결혼여부						
미혼	34.3	58.4	2.0	5.4	100.0(598)	187.4(6)***
기혼 무자녀	33.0	60.2	4.9	1.9	100.0(103)	
기혼 유자녀	59.9	37.5	1.4	1.1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미만	46.7	47.9	2.0	3.4	100.0(793)	62.5(12)***
200~299만원	53.3	43.2	1.9	1.5	100.0(1,048)	
300~399만원	56.9	40.6	1.3	1.2	100.0(936)	
400~499만원	59.7	36.9	1.1	2.2	100.0(536)	
500만원 이상	65.3	32.6	1.6	0.5	100.0(427)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54.2	41.9	2.1	1.8	100.0(771)	8.0(3)*
전업주부	59.9	37.7	1.5	0.9	100.0(928)	

* $p < .05$ ** $p < .01$ *** $p < .001$

그러나 긍정적 응답을 강한 긍정과 약한 긍정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비교해 보면, ‘자녀 출산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았다. 즉 상대적으로 육아책임이 적은 남성이 자녀를 꼭 가지려는 욕구가 높았고 세대가 젊어질수록 꼭 필요하다는 의식은 낮았으며, 특히 미혼은 34.3%만이 자녀를 꼭 낳아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세대차이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소득별 비교 또한 차이를 보였다.

나. 자녀의 가치

자녀의 가치란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이유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의식을 의미한다. 자녀의 가치에는 크게 자녀를 낳는 이유를 의미하는 ‘긍정적 가치’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한 ‘부정적 가치’가 있다. 긍정적 가치는 다시 도구적 자녀가치와 정서·관계적 자녀가치, 사회적 자녀가치 등 3 가지로 구분될 수 있고, 부정적 자녀가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관련한 의식, 부모 개인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의식 등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II장 1절 참조).

1) 긍정적 자녀 가치 의식

다음 <표 III-2-2>는 자녀가 필요한 각각의 이유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가치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지지한 것은 바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양육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항목이었다(86.9%). 다음으로는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86.2%), 자녀를 낳아 기르는 데에서 책임감이 커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83.8%), 늙었을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76.4%), 집안 내에서 내 위치가 확고해지기 때문(5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 연령대별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는데, 20, 30대에 비해 50대에서 ‘대를 잇기 위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집안내 위치가 확고해진다는 점이나 노후 경제적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이 점에서 대도시에 비해 군지역의 응답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 자녀의 긍정적 가치

단위: %(명)

구 분	도구적 자녀 가치				정서·관계적 자녀가치			사회적 자녀가치		사례수
	대를 잇기 위해	노후 경제적 의지	노후 신체적 의지	가내 위치 확고	노후 정서적 의지	원만한 결혼 생활	양육의 즐거움	사회 공헌	인격적 성숙	
전체	52.4	17.5	29.1	56.1	76.4	86.6	86.9	49.5	83.8	(3,603)
성별										
남성	60.8	18.6	28.3	59.6	75.5	86.0	87.0	49.6	83.5	(1,646)
여성	45.3	16.7	29.7	53.1	77.1	87.1	86.8	49.4	84.2	(1,957)
연령별										
20대	52.0	18.5	25.8	55.1	69.7	83.1	89.1	51.2	84.5	(515)
30대	46.7	13.8	24.2	52.2	77.0	85.7	87.4	45.2	84.5	(1,272)
40대	54.3	18.3	32.1	58.3	76.9	87.0	85.6	50.7	83.2	(1,449)
50대	65.1	26.4	38.5	61.9	81.1	92.9	86.9	57.7	83.3	(367)
지역규모별										
대도시	53.2	15.9	28.1	59.1	76.1	86.4	87.5	48.5	83.4	(1,787)
중소도시	52.4	19.7	31.2	55.2	78.9	87.5	86.7	52.4	86.8	(1,571)
군지역	46.5	15.5	22.4	39.8	62.0	82.0	83.7	38.4	68.6	(245)
결혼여부										
미혼	52.6	17.6	25.3	55.1	70.2	83.4	87.7	52.3	83.9	(553)
기혼무자녀	56.3	16.7	26.0	51.0	74.0	82.3	88.5	37.5	77.1	(96)
기혼유자녀	52.2	17.6	29.9	56.4	77.6	87.3	86.7	49.4	84.0	(2954)
월 소득별										
200만원미만	52.1	19.5	29.6	56.3	73.5	84.5	86.5	50.3	83.9	(748)
200~299만원	51.7	19.8	33.3	55.7	77.7	87.4	86.5	47.3	82.1	(1,008)
300~399만원	54.6	16.8	27.8	57.9	74.7	87.7	88.5	51.4	83.6	(910)
400~499만원	50.4	16.1	26.2	54.1	79.1	86.0	86.8	50.0	86.0	(517)
500만원이상	51.8	12.0	23.7	54.9	78.4	86.8	85.4	49.0	85.5	(418)

주: 제시된 수치는 각각의 가치 항목에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따라서 교차분석에 의한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불가능함.

2) 부정적 자녀 가치 의식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했을 때(<표 III-2-3> 참조), 응답자 123명 중 82.9%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했다. 또한 양육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점

(82.1%), 양육 때문에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77.2%), 취업과 직장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74.0%) 등에 높은 비율로 호응하였다.

〈표 III-2-3〉 자녀의 부정적 가치

단위: %(명)

구분	자녀 양육 측면의 부정적 가치				부모 개인 측면의 부정적 가치				사례수
	양육의 어려움	양육비 교육비 부담	충분히 관심줄 자신이 없음	아이 미래가 걱정됨	자유롭지 못함	직장 생활 어려움	배우자와의 시간 부족	부부 사이 갈등 일으킴	
전체	82.1	82.9	66.7	74.0	77.2	74.0	49.6	41.8	(123)
성별									
남성	77.8	80.0	60.0	73.3	73.3	62.2	64.4	51.1	(45)
여성	84.6	84.6	70.5	74.4	79.5	80.8	41.0	36.4	(78)
연령별									
20대	84.0	76.0	64.0	72.0	92.0	88.0	64.0	36.0	(25)
30대	91.8	85.7	61.2	69.4	85.7	83.7	44.9	37.5	(49)
40대	69.2	84.6	76.9	84.6	61.5	61.5	46.2	41.0	(39)
50대	80.0	80.0	60.0	60.0	60.0	40.0	50.0	80.0	(10)
지역규모별									
대도시	83.3	83.3	66.7	77.8	85.2	85.2	50.0	48.1	(54)
중소도시	81.4	86.4	71.2	71.2	69.5	67.8	45.8	37.9	(59)
군지역	80.0	60.0	40.0	70.0	80.0	50.0	70.0	30.0	(10)
결혼여부									
미혼	86.0	76.7	67.4	65.1	83.7	83.7	53.5	37.2	(43)
기혼무자녀	83.3	83.3	50.0	66.7	100.0	83.3	66.7	66.7	(6)
기혼유자녀	79.7	86.5	67.6	79.7	71.6	67.6	45.9	42.5	(74)
월 소득별									
200만원미만	80.5	85.4	63.4	65.9	73.2	80.5	48.8	29.3	(41)
200~299만원	88.6	74.3	62.9	74.3	80.0	77.1	48.6	55.9	(35)
300~399만원	90.0	90.0	70.0	85.0	85.0	70.0	45.0	30.0	(20)
400~499만원	88.9	94.4	83.3	72.2	72.2	66.7	50.0	50.0	(18)
500만원이상	33.3	66.7	55.6	88.9	77.8	55.6	66.7	55.6	(9)

주) 제시된 수치는 각각의 가치 항목에 긍정적으로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따라서 교차분석에 의한 통계적 유의도 검정은 불가능함.

성별 응답을 비교해 보면, 여성이 취업 및 직장생활과의 병행이 어렵다는 점에 80.8%가 동의한데 비해 남성은 62.2%만이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으며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 부부사이 갈등을 일으킴 등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높아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들이 ‘아이 돌보는 것이 힘들’, ‘자유롭지 못함’, ‘직장생활과 병행이 어려움’ 등에 높이 호응한데 비해 50대는 부부사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서만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았다. 결혼여부와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전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소득별로는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 가정이 부부사이 갈등 유발,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의 부족, 아이 미래가 걱정됨 등에 높게 응답한 반면, 월 200만원 미만 소득층은 ‘취업 및 직장생활과의 병행이 어려움’에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하여 소득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IV.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의 의식

본 장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가 가진 의식은, 양육방식에 관한 신념, 어머니의 취업과 관련한 의견, 자녀 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분, 양육에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양육가치관(집단주의/개인주의), 아동관 및 교육관, 그리고 부모의 역할과 지원의 범위에 대한 의견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한다. 이 각각에 관한 의견 조사의 결과가 본 장에 제시되어 있다.

1. 양육방식에 대한 신념

본 연구에서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자유탐색격려’, ‘과다애정경계’, ‘훈육 및 통제 중시’ 등 세 가지의 측면에 대한 부모의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즉 자녀의 자유로운 탐색을 위해 원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가진 정도(자유탐색격려),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과다애정경계)라는 믿음을 가진 정도,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자란다(훈육 및 통제 중시)는 전통적인 신념 및 체벌에 대한 찬성(훈육 및 통제 중시)의 정도 등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 자유탐색 격려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야 기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신념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53.1%로 긍정적인 입장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대 우리나라 성인들은 아이가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과반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성별, 결혼여부, 지역별, 소득별로도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았으나 연령별로 볼 때 20대나 50대에 비해 30대 응답자들이 이러한 신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 세대가 미혼이나 노년 세대보다는 자녀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주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1〉 양육방식1: 아이를 제지하지 않아야한다(자유탐색격려)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5.1	41.7	42.1	11.0	100.0(3,747)	
성별						
남성	6.0	42.1	40.2	11.8	100.0(1,697)	9.2(3)*
여성	4.3	41.5	43.8	10.4	100.0(2,050)	
연령별						
20대	6.6	39.3	45.6	8.5	100.0(542)	21.2(9)*
30대	5.5	44.5	38.9	11.2	100.0(1,333)	
40대	4.2	41.4	42.8	11.7	100.0(1,492)	
50대	5.0	37.1	46.1	11.8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4.5	41.5	44.3	9.7	100.0(1,855)	30.2(6)***
중소도시	4.9	42.6	39.5	13.0	100.0(1,637)	
군지역	10.2	38.0	43.1	8.6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7.7	38.3	44.3	9.7	100.0(598)	19.9(6)**
기혼 무자녀	0.0	38.8	49.5	11.7	100.0(103)	
기혼 유자녀	4.7	42.5	41.5	11.3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4	38.2	43.6	11.7	100.0(793)	41.5(12)***
200~299만원	5.0	49.0	36.3	9.8	100.0(1,048)	
300~399만원	4.5	40.0	44.8	10.8	100.0(936)	
400~499만원	4.5	38.4	46.6	10.4	100.0(536)	
500만원 이상	4.9	38.9	41.9	14.3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4.6	41.6	42.3	11.4	100.0(1,427)	6.3(9)
전문대학 졸	5.1	44.4	40.3	10.2	100.0(837)	
대학교 졸	5.5	41.0	42.6	10.8	100.0(1,328)	
대학원 졸	5.7	35.7	46.4	12.1	100.0(140)	

* $p < .05$ ** $p < .01$ *** $p < .001$

나. 과다애정 경계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양육신념에 대해 ‘그렇다’라는 긍정의 응답이 53.3%로, 부정하는 응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 별로 보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30대는 51.9%

가 이러한 신념에 동의한 데 비해 50대는 가장 높은 60%가 긍정하여 50대와 30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0대 응답자의 경우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0%가 넘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세대가 가진 양육신념은 다른 세대와 대체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IV-1-2〉 양육방식2: 과다 관심은 아이 버릇을 나쁘게 한다(과다애정경계)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9.3	44.0	37.9	8.8	100.0(3,747)	
성별						
남성	9.7	45.0	37.4	7.8	100.0(1,696)	5.3(3)
여성	8.9	43.1	38.3	9.7	100.0(2,050)	
연령별						
20대	9.8	45.9	37.1	7.2	100.0(542)	
30대	9.7	42.2	38.0	10.1	100.0(1,333)	16.3(9)
40대	8.2	43.7	39.3	8.8	100.0(1,491)	
50대	11.6	48.4	33.2	6.8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7.3	46.3	38.0	8.4	100.0(1,855)	
중소도시	11.4	41.8	37.4	9.4	100.0(1,636)	21.6(6)**
군지역	10.2	41.6	40.4	7.8	100.0(255)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9.6	43.1	38.5	8.8	100.0(1,427)	5.9(9)
전문대학 졸	8.4	43.9	39.2	8.5	100.0(836)	
대학교 졸	9.5	44.7	36.5	9.3	100.0(1,328)	
대학원 졸	10.7	47.1	37.1	5.0	100.0(140)	

** $p < .01$

다. 훈육과 통제 중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신념을 알아보는 문항인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비교적 높은 65%의 응답자가 ‘그렇다’라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부모가 아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하고 기르는 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볼 때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 신념에 긍정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특히, 50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인 74.4%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 때 강한 긍정을 보인 의견 ‘매우 그렇다’가 22.6%나 되며 약한 긍정 ‘조금 그

렇다’는 51.8%였다.

〈표 IV-1-3〉 양육방식3: 어릴 때 엄격하게 해야 바르게 자란다(훈육/통제 중시)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15.1	49.9	30.7	4.3	100.0(3,747)	
성별						
남성	18.3	50.1	27.8	3.8	100.0(1,696)	31.9(3)***
여성	12.4	49.8	33.1	4.7	100.0(2,050)	
연령별						
20대	11.4	49.1	36.0	3.5	100.0(542)	
30대	13.5	48.5	31.9	6.1	100.0(1,333)	52.8(9)***
40대	16.0	51.0	29.5	3.6	100.0(1,491)	
50대	22.6	51.8	23.5	2.1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15.0	51.3	30.0	3.7	100.0(1,854)	
중소도시	15.1	48.3	31.3	5.3	100.0(1,637)	8.8(6)
군지역	15.7	50.6	31.0	2.7	100.0(255)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16.4	51.9	28.1	3.6	100.0(1,427)	
전문대학 졸	12.6	51.2	30.7	5.5	100.0(836)	
대학교 졸	15.2	47.4	33.2	4.1	100.0(1,328)	45.8(9)***
대학원 졸	16.4	47.9	30.7	5.0	100.0(140)	

*** $p < .001$

훈육에 대한 양육신념 중 체벌 의향을 묻는 문항에서, 36.9%가 ‘매우 찬성’에, 53.6%가 ‘조금 찬성’에 응답하였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9.3%에 불과하였다.

연령별 응답 비교 결과를 보면, 체벌에 대해 강한 동의를 보이는 반응이 5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50대의 42.9%가 매를 들 수 있다는데 매우 찬성한 반면 20대는 32.3%가 찬성하였고 체벌에 반대하는 비율은 20대가 14.6%이나 50대는 5.5%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30, 40대의 응답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체벌에 대해 군지역(49.6%)이 도시지역(35.0~37.1%)보다 강한 찬성의견을 보였고 미혼 응답자 보다는 기혼 응답자가 체벌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학력별로 차이를 나타냈다.

〈표 IV-1-4〉 양육방식4: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훈육/통제 중시)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36.9	53.6	7.8	1.5	100.0(3,747)	
연령별						
20대	32.3	53.1	12.0	2.6	100.0(542)	31.8(9)***
30대	37.8	52.8	7.9	1.5	100.0(1,332)	
40대	36.3	55.2	7.0	1.5	100.0(1,492)	
50대	42.9	51.6	5.0	0.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35.0	55.4	7.9	1.6	100.0(1,855)	24.3(6)***
중소도시	37.1	53.0	8.4	1.5	100.0(1,637)	
군지역	49.6	45.3	3.5	1.6	100.0(254)	
결혼/자녀여부별						
미혼	32.4	54.2	11.2	2.2	100.0(598)	17.4(6)**
기혼 무자녀	34.0	59.2	5.8	1.0	100.0(103)	
기혼 유자녀	37.9	53.4	7.3	1.4	100.0(3,045)	
경제 수준별						
중상 이상	33.3	55.7	9.5	1.5	100.0(264)	34.2(9)***
중	40.1	50.0	8.1	1.8	100.0(1,917)	
중하	32.9	59.3	6.8	1.0	100.0(1,342)	
하	39.3	48.9	9.6	2.3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38.5	54.2	5.8	1.5	100.0(1,427)	24.7(9)**
전문대학 졸	35.9	53.1	9.7	1.3	100.0(836)	
대학교 졸	34.7	54.4	9.1	1.7	100.0(1,328)	
대학원 졸	47.1	45.0	5.7	2.1	100.0(140)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의 관련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과거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던 자녀 양육이 어머니 외의 성인이나 사회의 서비스 기관에서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고는 전통사회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 것인가?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책임이 취업모의 경우 얼마나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모(母)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 태도

여성 취업과 자녀 양육의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93.3%의 응답자가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연령별 비교에서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강한 동의를 보인 비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즉, 20대는 34.9%가 찬성한데 반해 30대는 51.7%, 40대는 57.8%, 50대는 55.8%가 강하게 찬성하고 있어 젊은 세대일수록 강하게 동의하는 비율이 낮아 세대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보다는 자녀가 있는 기혼자인 경우 자녀가 어릴 때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 규모별로는 군지역일수록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2-1〉 모의 취업과 양육1: 자녀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52.1	41.2	6.1	0.5	100.0(3,747)	
성별						
남성	52.6	41.5	5.6	0.3	100.0(1,697)	4.4(3)
여성	51.8	41.0	6.6	0.7	100.0(2,050)	
연령별						
20대	34.9	54.2	10.5	0.4	100.0(542)	
30대	51.7	40.7	6.8	0.8	100.0(1,333)	
40대	57.8	37.2	4.7	0.3	100.0(1,492)	102.7(9)***
50대	55.8	40.5	3.2	0.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50.5	43.8	5.5	0.2	100.0(1,855)	
중소도시	53.3	39.3	6.7	0.8	100.0(1,637)	17.7(6)**
군지역	56.5	35.3	7.5	0.8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37.1	52.3	10.2	0.3	100.0(598)	
기혼 무자녀	35.9	59.2	4.9	0.0	100.0(103)	90.1(6)***
기혼 유자녀	55.6	38.4	5.4	0.6	100.0(3,046)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5.5	45.5	8.2	0.8	100.0(793)	47.5(12)***
200~299만원	54.9	38.2	6.6	0.4	100.0(1,048)	
300~399만원	49.0	45.0	5.2	0.7	100.0(936)	
400~499만원	56.9	36.4	6.5	0.2	100.0(536)	
500만원 이상	58.5	38.4	2.8	0.2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55.5	38.1	5.7	0.7	100.0(1427)	25.3(9)**
전문대학 졸	52.0	40.0	7.3	0.7	100.0(837)	
대학교 졸	48.4	45.3	6.1	0.2	100.0(1,328)	
대학원 졸	50.7	45.0	4.3	0.0	100.0(140)	

** $p < .01$ *** $p < .001$

여성은 직업을 갖기보다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는 문항에 대해서, 28.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우리사회에서 여전히 자녀양육은 본질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는 의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이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여성 32.7%, 남성 23.9%), 연령별로는 20대의 41.2%, 30대의 32.3%가 이에 반대하는 응답을 보였으나 40대와 50대는 각각 22.4%, 22.9%로 비교적 반대 비율이 낮았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직업을 갖기보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여성 본연의 모습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혼 여부에서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 매우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미혼 57.9%, 기혼 유자녀 74.0%) 실제로 자녀를 키우거나 키워본 경우에 자녀양육이라는 면에서는 여성 취업에 대해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층에서 이 의견에 반대하는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200만원 미만 34.4%, 소득 400만원 이상 25.6%).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매우 반대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73.6%, 취업주부의 66.5%가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에 찬성하여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응답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2-2〉 모의 취업과 양육2: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다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24.5	46.8	24.7	4.1	100.0(3,747)	
성별						
남성	28.4	47.7	21.1	2.8	100.0(1,697)	48.0(3)***
여성	21.2	46.0	27.6	5.1	100.0(2,050)	
연령별						
20대	15.5	43.4	34.9	6.3	100.0(542)	103.6(9)***
30대	21.8	45.7	28.0	4.5	100.0(1,333)	
40대	28.4	49.3	19.1	3.3	100.0(1,492)	
50대	31.3	45.8	20.3	2.6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23.2	48.3	23.9	4.6	100.0(1,855)	
중소도시	25.8	45.1	25.9	3.2	100.0(1,637)	14.1(6)*
군지역	25.5	46.3	22.4	5.9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15.4	42.5	34.9	7.2	100.0(598)	
기혼 무자녀	18.4	49.5	28.2	3.9	100.0(103)	78.2(6)***
기혼 유자녀	26.5	47.5	22.5	3.5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0.6	45.0	28.5	5.9	100.0(793)	
200~299만원	26.0	48.0	22.1	3.8	100.0(1,048)	
300~399만원	24.0	45.6	25.3	5.0	100.0(936)	37.4(12)***
400~499만원	26.7	46.8	24.6	1.9	100.0(536)	
500만원 이상	26.2	49.4	22.2	2.1	100.0(427)	
학력별						
고졸 이하	28.9	48.0	19.8	3.4	100.0(1,427)	50.0(9)***
전문대학 졸	21.6	48.1	26.0	4.2	100.0(837)	
대학교 졸	21.6	45.4	28.4	4.6	100.0(1,328)	
대학원 졸	22.9	40.0	30.7	6.4	100.0(140)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20.5	46.0	28.8	4.7	100.0(771)	11.1(3)*
전업주부	24.6	49.0	22.4	4.0	100.0(928)	

* $p < .05$ *** $p < .001$

나. 취업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취업 어머니와 자녀와의 친밀 정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78.8%의 응답자가 전업주부나 취업모나 자녀와의 친밀도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차이가 없음에 대해 보다 강한 긍정(매우 찬성)은 23.9%, 긍정(조금 찬성)이 54.9%였다.

〈표 IV-2-3〉 모의 취업과 양육: 자녀와의 친밀도에서 취업모/비취업모 간 차이는 없다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23.9	54.9	19.3	1.8	100.0(3,747)	
성별						
남성	21.3	55.7	20.7	2.3	100.0(1,697)	16.4(3)**
여성	26.1	54.3	18.1	1.5	100.0(2,050)	
연령별						
20대	26.0	56.8	15.9	1.3	100.0(542)	14.1(9)
30대	24.0	54.3	20.0	1.7	100.0(1,333)	
40대	23.6	55.6	19.0	1.8	100.0(1,492)	
50대	22.1	51.6	23.2	3.2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21.3	58.7	18.8	1.3	100.0(1,855)	33.0(6)***
중소도시	25.7	52.0	20.1	2.3	100.0(1,637)	
군지역	32.2	46.7	18.0	3.1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25.4	58.7	14.9	1.0	100.0(598)	15.7(6)*
기혼 무자녀	20.4	59.2	20.4	0.0	100.0(103)	
기혼 유자녀	23.8	54.0	20.1	2.1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4.6	56.6	17.5	1.3	100.0(793)	33.5(12)**
200~299만원	23.4	52.7	21.9	2.1	100.0(1,048)	
300~399만원	25.4	57.4	15.1	2.1	100.0(936)	
400~499만원	19.4	57.1	22.0	1.5	100.0(536)	
500만원 이상	26.7	48.7	22.5	2.1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24.3	54.3	19.3	2.0	100.0(1,427)	6.5(9)
전문대학 졸	24.0	53.2	21.1	1.7	100.0(837)	
대학교 졸	22.8	57.3	18.1	1.7	100.0(1,328)	
대학원 졸	27.1	52.9	17.9	2.1	100.0(140)	

* $p < .05$ ** $p < .01$ *** $p < .001$

연령이나 결혼여부, 학력별 비교에서는 응답에 있어 집단 간 비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 지역규모별, 월소득별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에 21.3%가 어머니의 취업과 자녀와의 친밀도는 관련이 없다는 것에 매우 찬성한 반면 군지역은 32.2%가 매우 찬성하여 군지역이 보다 전통적인 생각을 많이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남녀의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

여성이 취업할 경우 가사와 양육은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91.9%)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은 결혼 및 자녀 여부나 학력별 비교에서도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비교의 결과에서 보면, 여성은 94.2%(매우 그렇다 60.9%, 조금 그렇다 34.3%)가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남성은 88.0%가 동의하였다(매우 그렇다 35.3%, 조금 그렇다 52.7%). 특히 강한 동의를 표현하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의 비율은 60.9% 대 35.3%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 아직도 가사와 양육 책임에 대한 성별 차이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하는 응답 비율이 높아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IV-2-4> 취업모와 양육4: 가사와 양육의 책임은 부부가 동일하다

단위: %(명)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전체	49.3	42.6	7.3	0.7	100.0(3,747)	
성별						
남성	35.3	52.7	10.7	1.3	100.0(1,697)	259.2(3)***
여성	60.9	34.3	4.5	0.2	100.0(2,050)	
연령별						
20대	53.5	38.9	7.2	0.4	100.0(542)	30.6(9)***
30대	53.3	39.5	6.2	1.1	100.0(1,333)	
40대	44.8	46.4	8.2	0.6	100.0(1,492)	
50대	46.8	44.2	8.4	0.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46.3	45.7	7.2	0.9	100.0(1,855)	19.1(6)**
중소도시	52.0	40.3	7.2	0.5	100.0(1,637)	
군지역	54.1	35.7	9.4	0.8	100.0(255)	

구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결혼여부별						
미혼	51.8	39.6	8.0	0.5	100.0(598)	8.9(6)
기혼 무자녀	54.4	43.7	1.9	0.0	100.0(103)	
기혼 유자녀	48.6	43.2	7.4	0.8	100.0(3,046)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50.5	40.9	8.1	0.6	100.0(1,427)	7.1(9)
전문대학 졸	48.9	43.6	6.8	0.7	100.0(837)	
대학교 졸	49.0	43.1	6.9	0.9	100.0(1,328)	
대학원 졸	44.3	49.3	5.7	0.7	100.0(140)	

** $p < .01$ *** $p < .001$

라. 취업모 자녀의 주양육자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직장여성이 출산할 경우 양육은 누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의 부나 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높은 비율(49.5%)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조부나 조모(19.9%), 보육시설(18.4%), 육아도우미(10.9%)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며 우리사회가 여전히 자녀는 부모가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집단별로는 응답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라는 응답에서 약간 낮은 대신 조부모나 육아도우미를 택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 부모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았고 조부모에 의존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IV-2-5〉 모취업과 양육5: 취업모가 출산할 경우 양육 주 담당자

단위: %(명)

구분	자녀의					계	$\chi^2(df)$
	부/모 (경제활동 중단)	자녀의 조부/모	친인척	교육/ 보육시설	육아 도우미		
전체	49.5	19.9	1.3	18.4	10.9	100.0(3,747)	
성별							
남성	52.3	19.3	1.2	18.6	8.6	100.0(1,697)	20.8(4)***
여성	47.1	20.4	1.3	18.3	12.8	100.0(2,049)	

구분	자녀의 부/모 (경제활동 중단)	자녀의 조부/모	친인척	교육/ 보육시설	육아 도우미	계	$\chi^2(df)$
지역규모별							
대도시	48.5	20.2	1.2	19.3	10.8	100.0(1,855)	21.1(8)**
중소도시	51.8	18.3	1.5	17.6	10.9	100.0(1,636)	
군지역	41.6	29.0	0.8	16.9	11.8	100.0(255)	
경제 수준별							
중상 이상	56.8	20.1	0.8	11.0	11.4	100.0(264)	42.0(12)***
중	46.9	22.3	1.7	17.8	11.2	100.0(1,917)	
중하	51.3	17.1	0.6	20.1	10.9	100.0(1,342)	
하	52.1	16.4	2.3	21.0	8.2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53.4	17.8	1.2	16.4	11.2	100.0(1,426)	32.9(12)*
전문대학 졸	50.8	19.5	1.3	17.9	10.5	100.0(837)	
대학교 졸	44.8	23.0	1.4	20.2	10.7	100.0(1,328)	
대학원 졸	42.9	16.4	1.4	25.7	13.6	100.0(140)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4.7	23.5	1.2	18.7	11.9	100.0(770)	13.2(4)*
전업주부	50.9	17.7	1.7	16.4	13.4	100.0(928)	

* $p < .05$ ** $p < .01$ *** $p < .001$

3. 발달시기별 우선 지원 항목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대해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구별하여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가. 영유아 자녀의 경우

영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34.3%)을 얻었고 다음으로는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이 꼽혔다(28.0%).

영유아 자녀의 경우 ‘자유롭게 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27.2%, 30대는 32.2%, 40대는 36.8%, 50대는 41.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선택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을 늘려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것'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20~40대가 27.7~31.1% 정도인데 반해 50대는 18.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세대가 낮은 세대에 비해 영유아의 놀이를 중요시하는 비율은 높으나 부모와 함께하는 정서적 활동을 중시하는 인식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IV-3-1〉 영유아 자녀의 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놀이 환경 조성	다양한 세상 경험	건강한 신체 기르기	재능 발견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업 능력 향상	계	$\chi^2(df)$
전체	34.3	12.0	13.1	4.7	28.0	7.4	0.7	100.0(3,740)	
성별									
남성	35.8	12.5	14.4	5.2	24.6	7.0	0.5	100.0(1,693)	24.2(6)***
여성	33.0	11.5	12.0	4.2	30.7	7.7	0.9	100.0(2,047)	
연령별									
20대	27.2	17.2	14.4	5.0	27.7	7.9	0.6	100.0(541)	62.6(18)***
30대	32.2	10.7	13.1	4.7	31.1	7.3	0.9	100.0(1,329)	
40대	36.8	10.5	12.1	4.3	27.7	8.0	0.6	100.0(1,490)	
50대	41.6	14.5	14.7	5.3	18.7	4.7	0.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36.0	12.2	12.6	4.8	26.0	7.8	0.6	100.0(1,848)	20.8(12)
중소도시	32.9	11.1	13.3	4.5	30.8	6.7	0.7	100.0(1,637)	
군지역	30.2	15.7	15.3	4.7	24.3	8.6	1.2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28.3	17.3	14.1	5.7	26.1	7.9	0.7	100.0(597)	32.3(12)**
기혼무자녀	28.2	13.6	14.6	6.8	31.1	4.9	1.0	100.0(103)	
기혼유자녀	35.6	10.9	12.8	4.4	28.2	7.4	0.7	100.0(3,040)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7.5	12.9	12.5	4.9	22.7	9.1	0.4	100.0(264)	36.7(18)**
중	32.3	11.8	13.9	4.5	29.9	7.0	0.5	100.0(1915)	
중하	36.2	11.6	12.0	4.4	27.2	8.0	0.7	100.0(1338)	
하	35.6	13.2	13.2	7.3	22.4	5.5	2.7	100.0(219)	

** $p < .01$ *** $p < .001$

나. 초등생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는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38.4%), '세상의 많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29.3%), '신체활동, 섭식 등을 통해 건강한

신체를 길러주는 것'(11.8%) 순이었다.

20대의 젊은 세대는 '또래의 친구를 만들어주어 자녀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12.8%) 50대는 5.8%만이 이를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선택함으로써 연령대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책을 많이 읽고 논리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비율은 50대가 43.2%인데 비해 20대는 30.9%로 12%포인트 가량의 차이를 보여 독서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3-2〉 초등생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다양한 세상 경험	독서· 논리 사고	건강한 신체	재능 발견	교과 학습 지도	사회성 리더쉽	외국어 교육	계	$\chi^2(df)$
전체	29.3	38.4	11.9	8.1	2.4	9.1	0.7	100.0(3,736)	
성별									
남성	28.4	36.6	14.2	8.6	2.5	9.0	0.7	100.0(1,693)	18.3(6)***
여성	30.1	39.8	9.9	7.8	2.3	9.2	0.8	100.0(2,043)	
연령별									
20대	30.3	30.9	12.4	9.8	2.4	12.8	1.5	100.0(541)	53.0(18)***
30대	30.4	37.5	9.7	9.1	2.4	10.2	0.7	100.0(1,323)	
40대	28.6	40.7	13.2	6.8	2.5	7.6	0.7	100.0(1,492)	
50대	27.1	43.2	13.4	7.9	2.4	5.8	0.3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31.4	39.5	11.3	5.8	2.2	9.0	0.9	100.0(1,846)	39.1(12)***
중소도시	27.2	37.7	12.1	10.7	2.8	8.9	0.6	100.0(1,635)	
군지역	28.2	34.5	14.1	9.0	2.0	11.0	1.2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28.6	32.8	11.1	10.2	2.8	13.4	1.0	100.0(597)	30.0(12)**
기혼무자녀	31.1	37.9	14.6	7.8	1.9	4.9	1.9	100.0(103)	
기혼유자녀	29.4	39.5	11.9	7.8	2.4	8.4	0.7	100.0(3,036)	
경제 수준별									
중상이상	24.6	40.5	12.5	11.4	1.9	8.7	0.4	264	27.9(18)
중	31.6	35.6	12.3	8.5	2.6	8.6	0.8	1907	
중하	27.3	42.0	11.3	7.0	2.1	9.6	0.7	1342	
하	27.4	38.4	11.0	8.7	3.7	10.0	0.9	219	

** $p < .01$ *** $p < .001$

다. 중고생 자녀의 경우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기’(24.3%), ‘진학정보 알아보기’(18.1%), ‘인성지도·예절교육’(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보면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부모는 자녀의 정서안정과 인성교육, 신체적 건강 등의 측면에 신경을 씀으로써 인지적이고 학업적인 면보다는 자녀의 정의적 성장과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논리적 사고나 진학정보에 신경을 쓰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학습과 관련된 항목보다는 전인적인 발달 관련 항목에 관심을 두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3〉 중고생 자녀발달을 위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하는 일
단위: %(명)

구 분	진학 정보	학원· 과외 정보	신체 건강	여가 즐거기	학습 지도	인성 지도	학교 생활 지도	대화· 이해	사회성	계	$\chi^2(df)$
전체	18.1	6.8	14.8	4.0	2.1	17.7	6.6	24.3	5.5	100.0(3,725)	
성별											
남성	18.0	5.7	17.1	4.9	2.4	19.5	6.8	19.4	6.2	100.0(1,686)	61.4(8)***
여성	18.2	7.7	13.0	3.2	1.9	16.3	6.3	28.3	5.0	100.0(2,039)	
연령별											
20대	16.5	7.4	11.5	6.7	2.4	17.0	5.2	27.0	6.5	100.0(541)	84.6(24)***
30대	16.4	5.7	12.7	4.2	2.1	17.8	6.8	29.1	5.3	100.0(1,318)	
40대	19.7	7.2	16.6	2.8	2.0	18.0	6.6	21.0	6.1	100.0(1,486)	
50대	20.8	7.9	20.5	3.7	2.4	17.6	7.6	16.8	2.6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19.6	7.4	14.0	3.6	2.2	16.7	6.2	24.2	6.0	100.0(1,836)	39.0(16)***
중소도시	16.8	6.4	14.1	4.4	2.1	19.0	6.9	24.7	5.4	100.0(1,634)	
군지역	16.1	4.3	25.5	3.5	2.0	16.9	7.1	22.0	2.7	100.0(255)	
결혼여부별											
미혼	15.6	7.5	13.1	5.4	1.8	16.8	4.9	27.6	7.4	100.0(597)	35.0(16)**
기혼무자녀	18.4	2.9	10.7	4.9	1.0	30.1	3.9	24.3	3.9	100.0(103)	
기혼유자녀	18.6	6.7	15.3	3.7	2.2	17.5	7.0	23.6	5.2	100.0(3,025)	
경제 수준별											
중상 이상	25.9	8.0	12.9	2.7	2.3	18.3	7.2	19.8	3.0	100.0(263)	
중	17.8	6.7	13.7	4.2	1.5	18.2	5.9	26.3	5.6	100.0(1,903)	42.7(24)*
중하	17.6	6.8	16.3	4.0	3.0	17.4	7.0	22.4	5.5	100.0(1,336)	
하	15.1	5.9	17.8	3.2	2.3	15.5	8.7	23.7	7.8	100.0(219)	

* $p < .05$ ** $p < .01$ *** $p < .001$

중고생 자녀의 발달을 위해 가장 많이 신경써야 할 일 항목에서는 별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화를 통해 자녀를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보면 여성이 28.3%인데 남성은 19.4%로 상당한 성별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군지역의 경우 25.5%가 신체건강이라고 응답하여 14% 정도를 응답한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아 차이를 나타냈다.

같은 항목에서 연령대별로도 2,30대는 27.0%~29.1%로 응답비율을 보이는데 비해 50대는 16.8%만이 대화를 통한 자녀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고생 자녀를 위한 항목들 중 대화를 통한 이해가 가장 높은 비율로 지지된 것을 감안한다면 50대 성인들은 진학정보과 신체건강을 강조하고 있어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4. 양육지향가치관, 아동관, 교육관

가. 양육지향가치관

자녀양육에 목표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집단중심 가치관’을 자녀가 갖기를 선호하는지 혹은 ‘개인중심 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칠 것인지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중심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가 집단중심 가치관을 가진 응답자보다 근소하게(약 5%포인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중심가치관 47.8%, 개인중심가치관 52.1%). 여기서 집단중심 가치관이란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이고, 그와 대가 되는 개인중심 가치관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기 일에 대한 성취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비교결과를 보면, 성별로 볼 때 남성이 여성보다 집단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개인보다는 집단중심의 가치관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세대가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자녀에게 보다 강조하여 가르치고 싶은 가치

단위: %(명)

구 분	집단중심 가치 ¹⁾	개인중심 가치 ²⁾	계	$\chi^2(df)$
전체	47.8	52.1	100.0(3,747)	
성별				
남성	52.2	47.8	100.0(1,696)	23.7(1)***
여성	44.2	55.8	100.0(2,048)	
연령별				
20대	41.0	59.0	100.0(541)	25.2(3)***
30대	45.2	54.8	100.0(1,332)	
40대	51.2	48.8	100.0(1,491)	
50대	53.4	46.6	100.0(380)	
경제 수준별				
중상 이상	43.6	56.4	100.0(264)	14.3(3)**
중	48.5	51.5	100.0(1,917)	
중하	45.8	54.2	100.0(1,342)	
하	58.4	41.6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54.1	45.9	100.0(1,425)	55.9(3)***
전문대학 졸	49.7	50.3	100.0(837)	
대학교 졸	40.5	59.5	100.0(1,327)	
대학원 졸	40.0	60.0	100.0(140)	

1) 부모와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가족을 위한 개인의 희생,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강조 등이 포함됨.

2) 개인적으로 행복한 생활,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자기 일에 대한 성취 강조 등이 포함됨.

** $p < .01$ *** $p < .001$

나. 아동관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기본적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아동을 보는 관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연구와 전통적 논의기반에 의해 유전적인 측면과 자연적 성숙이 아동 발달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보는 '성숙주의'와, 부모, 교육적 기회 등 아동이 자라나는 환경이 발달과 성공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라는 '환경주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II장 이론적 배경 참고).

부모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아동의 발달적 성취는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이 결정된다'가 20.0%를 차지한 것에 비해,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 많이 결정된다'가

80.0%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소득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고 월 소득이 낮을수록 아동의 발달적 성취는 환경에 의해 많이 결정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4-2〉 아동관: 성숙 중심 대 환경 중심

단위: %(명)

구 분	발달은 유전이 결정적(성숙주의)	발달은 환경이 결정적(환경주의)	계	$\chi^2(df)$
전체	20.0	80.0	100.0(3,747)	
성별				
남성	20.4	79.6	100.0(1,697)	0.2(1)
여성	19.8	80.2	100.0(2,050)	
연령별				
20대	17.5	82.5	100.0(542)	21.6(3)***
30대	16.8	83.2	100.0(1,333)	
40대	23.1	76.9	100.0(1,492)	
50대	22.9	77.1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20.4	79.6	100.0(1,855)	6.8(2)*
중소도시	20.6	79.4	100.0(1,637)	
군지역	13.7	86.3	100.0(25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6.0	84.0	100.0(793)	24.3(4)***
200~299만원	19.7	80.3	100.0(1,048)	
300~399만원	18.7	81.3	100.0(936)	
400~499만원	23.9	76.1	100.0(536)	
500만원 이상	26.2	73.8	100.0(427)	
학력별				
고졸 이하	19.3	80.7	100.0(1,427)	1.1(3)
전문대학 졸	21.0	79.0	100.0(837)	
대학교 졸	20.2	79.8	100.0(1,328)	
대학원 졸	21.4	78.6	100.0(140)	

* $p < .05$ *** $p < .001$

다. 교육관

교육관은 두 가지 차원에서 조사되었다. 하나는 부모가 교육적 과정에서 학문적,

인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성취중심지향'이나 학문적, 학업적 성취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자질을 찾아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흥미·자질 중심 지향'이나라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자녀교육에서 자녀의 시각과 흥미를 우선시하고 부모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자녀주도 교육관')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부모주도 교육관')을 구별해 보는 매우 전형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의 차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나 양육방식에도 차이를 줄 수 있을 것이므로 양육관의 한 측면으로 고려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성취강조 대 흥미강조 교육관

교육관에 있어 성취를 강조하는가 흥미를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13.2%,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86.7%로 대부분이 명문대학 진학보다 자녀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군지역에서 자녀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4-3〉 교육관: 성취 강조 대 흥미 강조

단위: %(명)

구 분	명문대 진학 강조	흥미·자질 추구	계	$\chi^2(df)$
전체	13.2	86.7	100.0(3,747)	
성별				
남성	13.3	86.7	100.0(1,695)	0.0(1)
여성	13.2	86.8	100.0(2,050)	
연령별				
20대	14.9	85.1	100.0(542)	8.3(3)*
30대	11.2	88.8	100.0(1,333)	
40대	14.0	86.0	100.0(1,490)	
50대	15.3	84.7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12.5	87.5	100.0(1,855)	10.2(2)**
중소도시	14.9	85.1	100.0(1,635)	
군지역	8.2	91.8	100.0(255)	

구 분	명문대 진학 강조	흥미·자질 추구	계	$\chi^2(df)$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7	88.3	100.0(793)	10.0(4)*
200~299만원	12.9	87.1	100.0(1,047)	
300~399만원	13.4	86.6	100.0(936)	
400~499만원	17.2	82.8	100.0(536)	
500만원 이상	11.5	88.5	100.0(426)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13.3	86.7	100.0(1,426)	7.1(3)
전문대학 졸	15.4	84.6	100.0(836)	
대학교 졸	12.3	87.7	100.0(1,328)	
대학원 졸	8.6	91.4	100.0(140)	

* $p < .05$ ** $p < .01$

2) 아동중심 대 부모중심 교육관

아동중심인지 부모중심인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70.1%,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29.9%로 ‘부모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는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응답은 대도시 28.4%, 중소도시 31.0%, 군지역 33.3%로 다른 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 특징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주도 교육관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교육관: 아동중심 대 부모중심

단위: %(명)

구 분	자녀주도 교육관 ¹⁾	부모주도 교육관 ²⁾	계	$\chi^2(df)$
전체	70.1	29.9	100.0(3,747)	
성별				
남성	70.0	30.0	100.0(1,694)	0.0(1)
여성	70.2	29.8	100.0(2,048)	
연령별				
20대	68.9	31.1	100.0(541)	3.4(3)
30대	71.8	28.2	100.0(1,332)	

구 분	자녀주도 교육관 ¹⁾	부모주도 교육관 ²⁾	계	$\chi^2(df)$
40대	68.8	31.2	100.0(1,489)	
50대	70.5	29.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71.6	28.4	100.0(1,853)	4.4(2)
중소도시	69.0	31.0	100.0(1,635)	
군지역	66.5	33.5	100.0(25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69.0	31.0	100.0(793)	1.0(4)
200~299만원	70.1	29.9	100.0(1,048)	
300~399만원	70.1	29.9	100.0(935)	
400~499만원	70.8	29.2	100.0(535)	
500만원 이상	71.6	28.4	100.0(426)	
학력별				
고졸 이하	67.6	32.4	100.0(1,424)	16.6(3)**
전문대학 졸	69.2	30.8	100.0(837)	
대학교 졸	72.5	27.5	100.0(1,326)	
대학원 졸	81.4	18.6	100.0(140)	

1)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 $p < .01$

5. 부모의 역할 및 지원에 대한 신념

가.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신념

1) 부모의 희생

부모의 희생에 대한 신념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가 46.7%, ‘부모도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가 53.2%로 부모의 희생에 대해서는 비슷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37.6%, 30대의 42.0%, 40대의 53.1%, 50대의 51.6%가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 의무이다’라고 답함으로써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희생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인 경우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된다’는 비율이 64.7%, 기혼 무자녀의 경우 69.9%로 기혼 유자녀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희생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1〉 부모의 희생에 대한 신념

단위: %(명)

구 분	자녀를 위한 희생은 부모의 의무	자녀 때문에 희생할 필요는 없음	계	$\chi^2(df)$
전체	46.7	53.2	100.0(3,747)	
성별				
남성	48.9	51.1	100.0(1,697)	5.5(1)*
여성	45.0	55.0	100.0(2,048)	
연령별				
20대	37.6	62.4	100.0(542)	57.7(3)***
30대	42.0	58.0	100.0(1,333)	
40대	53.1	46.9	100.0(1,490)	
50대	51.6	48.4	100.0(380)	
결혼/자녀유무별				
미혼	35.3	64.7	100.0(598)	52.8(2)***
기혼 무자녀	30.1	69.9	100.0(103)	
기혼 유자녀	49.6	50.4	100.0(3,04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4.5	55.5	100.0(793)	3.7(4)
200~299만원	47.4	52.6	100.0(1,047)	
300~399만원	48.8	51.2	100.0(935)	
400~499만원	46.1	53.9	100.0(536)	
500만원 이상	45.4	54.6	100.0(427)	
학력별				
고졸 이하	52.0	48.0	100.0(1,426)	30.3(3)***
전문대학 졸	46.2	53.8	100.0(837)	
대학교 졸	42.8	57.2	100.0(1,327)	
대학원 졸	36.4	63.6	100.0(140)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4.9	55.1	100.0(769)	6.1(1)*
전업주부	50.9	49.1	100.0(928)	

* $p < .05$ *** $p < .001$

2) 부모의 영향력

자녀의 성장에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95% 이상이 자녀의 성장과 성공에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성장과 성공은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있다’와 ‘부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44.7%, 51.1%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어떻게 지원해주느냐에 달려있다’는 응답은 미혼 37.6%, 기혼 유자녀 46.2%로 자녀가 있는 부모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5-2〉 자녀의 성공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단위: %(명)

구 분	매우 결정적임	어느 정도 영향미침	미미하게 영향을 줌	영향을 주지 않음	계	$\chi^2(df)$
전체	44.7	51.1	3.8	0.3	100.0(3,747)	
성별						
남성	43.7	51.2	4.8	0.4	100.0(1,697)	8.3(3)*
여성	45.6	51.1	3.0	0.3	100.0(2,049)	
연령별						
20대	40.8	54.1	4.4	0.7	100.0(542)	17.0(9)*
30대	47.4	48.4	3.9	0.3	100.0(1,333)	
40대	44.3	51.6	4.0	0.1	100.0(1,491)	
50대	42.6	54.7	2.1	0.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42.0	53.1	4.3	0.6	100.0(1,855)	20.0(6)**
중소도시	47.4	49.3	3.2	0.1	100.0(1,636)	
군지역	47.1	49.0	3.9	0.0	100.0(255)	
결혼/자녀유무별						
미혼	37.6	56.9	5.0	0.5	100.0(598)	19.9(6)**
기혼 무자녀	40.8	52.4	6.8	0.0	100.0(103)	
기혼 유자녀	46.2	50.0	3.5	0.3	100.0(3,04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3.9	51.6	3.9	0.6	100.0(793)	12.3(12)
200~299만원	44.9	50.5	4.4	0.2	100.0(1,048)	
300~399만원	46.0	49.3	4.3	0.4	100.0(935)	
400~499만원	43.8	53.7	2.2	0.2	100.0(536)	
500만원 이상	44.3	52.5	3.3	0.0	100.0(427)	
학력별						
고졸 이하	44.5	51.1	3.8	0.6	100.0(1,426)	21.9(9)**

구 분	매우 결정적임	어느 정도 영향미침	미미하게 영향을 줌	영향을 주지 않음	계	$\chi^2(df)$
전문대학 졸	48.6	46.7	4.5	0.1	100.0(837)	
대학교 졸	42.2	54.2	3.5	0.2	100.0(1,328)	
대학원 졸	49.3	49.3	1.4	0.0	100.0(140)	
자녀연령						
0~5세 자녀	46.0	49.2	3.7	0.1	100.0(912)	
6~11세 자녀	50.0	46.1	3.4	0.5	100.0(1,187)	-
12~17세 자녀	44.9	51.2	3.6	0.2	100.0(1,242)	
18세 이상 자녀	42.0	54.6	3.0	0.3	100.0(866)	

-: 자녀들의 연령 구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5$ ** $p < .01$

나. 부모의 지원에 대한 신념

1)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답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녀는 보답해야한다’가 30.3%, ‘키워주는 것은 부모 의무이므로 자녀가 보답할 필요는 없다’가 69.6%로 응답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38.9%가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녀는 보답해야 한다’고 답해 30, 40, 5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가 미혼이 많아 부모로서의 자신보다는 자녀로서의 자신을 기준으로 답한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월 소득별 차이로는 200만원 미만의 집단이 36.9%, 200~299만원의 집단이 30.3%로 답해,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 비해 보답에 대한 신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3〉 자녀의 보답에 대한 신념

구 분	부모에 대한 보답은 당연함	보답의 의무는 없음	계	$\chi^2(df)$
전체	30.3	69.6	100.0(3,747)	
연령별				
20대	38.9	61.1	100.0(542)	31.6(3)***

단위: %(명)

구 분	부모에 대한 보답은 당연함	보답의 의무는 없음	계	$\chi^2(df)$
30대	26.8	73.2	100.0(1,333)	
40대	29.3	70.7	100.0(1,489)	
50대	35.0	65.0	100.0(380)	
결혼/자녀유무별				
미혼	40.8	59.2	100.0(598)	36.8(2)***
기혼 무자녀	30.1	69.9	100.0(103)	
기혼 유자녀	28.3	71.7	100.0(3,04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6.9	63.1	100.0(792)	23.0(4)***
200~299만원	30.3	69.7	100.0(1,047)	
300~399만원	27.5	72.5	100.0(935)	
400~499만원	27.6	72.4	100.0(536)	
500만원 이상	27.6	72.4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29.8	70.2	100.0(1,424)	8.5(3)*
전문대학 졸	33.9	66.1	100.0(837)	
대학교 졸	29.7	70.3	100.0(1,328)	
대학원 졸	23.6	76.4	100.0(3,729)	

* $p < .05$ *** $p < .001$

2)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졸업까지’가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혼할 때까지’라고 답한 경우,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20대의 6.6%, 30대의 9.9%, 40대의 10.5%, 50대의 15.0%가, 월 소득별로 살펴보면 200만원 미원의 8.1%, 200~299만원의 8.8%, 300~399만원의 11.8%, 400~499만원의 11.9%, 500만원 이상의 11.7%로 답하였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표 IV-5-4〉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시기

단위: %(명)

구 분	대학 입학 까지	대학 졸업 까지	취업 전까지	결혼시 까지	결혼 10년 까지	평생 동안	계	$\chi^2(df)$
전체	11.2	62.6	14.7	10.2	0.6	0.6	100.0(3,747)	
연령별								
20대	18.8	61.1	12.9	6.6	0.2	0.4	100.0(542)	118.0(15)***
30대	14.6	60.2	13.7	9.9	0.8	0.8	100.0(1,333)	
40대	7.0	66.6	14.7	10.5	0.7	0.6	100.0(1,490)	
50대	5.5	57.6	21.3	15.0	0.5	0.0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11.5	64.0	12.0	11.3	0.7	0.5	100.0(1,854)	29.8(10)**
중소도시	11.0	60.6	17.9	9.2	0.6	0.7	100.0(1,636)	
군지역	11.0	65.1	14.5	8.6	0.8	0.0	100.0(255)	
결혼/자녀유무별								
미혼	19.2	59.7	14.4	6.0	0.2	0.5	100.0(598)	58.5(10)***
기혼 무자녀	12.6	62.1	14.6	10.7	0.0	0.0	100.0(103)	
기혼 유자녀	9.6	63.2	14.8	11.0	0.8	0.6	100.0(3,04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7.4	58.9	14.4	8.1	0.5	0.8	100.0(793)	74.7(20)***
200~299만원	12.6	62.1	15.3	8.8	0.6	0.7	100.0(1,048)	
300~399만원	7.0	67.1	13.0	11.8	0.7	0.4	100.0(936)	
400~499만원	10.6	61.4	15.1	11.9	0.4	0.6	100.0(536)	
500만원 이상	6.8	62.8	17.1	11.7	1.2	0.5	100.0(427)	

** $p < .01$ *** $p < .001$

V. 자녀 기대 및 양육 현실

본 장에서는 양육관의 일부로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가지는 기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자녀기대는 크게 자녀의 능력 즉, 자녀가 자라는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부모가 기대하는 측면이 있고, 장래 자녀의 모습에 대한 기대의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능력과 소양에 거는 기대와 양육의 시기가 어느 정도 종결된 후 자녀가 서 있게 되는 위치와 삶에 대해 거는 기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더불어, 조기교육이나 조기유학 등 자녀교육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현대 우리나라 부모 또는 예비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교육열’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았고 자녀양육과 관련한 또 다른 현상인 입양,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등도 함께 조사하였다. 양육현실을 특히 잘 파악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1. 자녀에 대한 기대

가. 신체적·인지적·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

1) 능력에 대한 기대

자녀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신체적(예능적 포함)인 측면, 인지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 3 가지로 부류할 수 있는 바, 신체적·예능적 측면은 뛰어난 용모와 신체, 예체능적 능력을 의미하고, 인지적인 측면은 학교성적 등 학업 능력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측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내적인 면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책임감, 성실성 등이 뛰어나 누구한테서나 훌륭한 내적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대인관계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측면으로 이 능력이 뛰어나면 사회성이 있어 타인과 잘 지내고 리더쉽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역량이다⁹⁾.

조사결과를 보면,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묻는 문항

에서 아들은 성격/태도, 대인관계, 학업능력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딸은 성격/태도, 신체, 대인관계 순으로 나타나 아들과 딸에게 기대하는 것에 차이가 있었다. 용모와 키, 몸매 등의 신체에 대해 바라는 것은 아들 10.5%, 딸 22.9%로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적인 자질도 아들에 비해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게 나타났다.

아들을 가진 부모가 아들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성격/태도와 대인관계가 60%이상으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의 응답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에 상관없이 사회성은 2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신체와 예체능적인 자질은 높게 응답하고 성격/태도는 낮게 응답하였다. 군지역 부모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신체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별로 살펴보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은 300만원 미만보다 신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딸을 가진 부모가 딸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신체, 학업능력, 성격/태도, 대인관계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지역의 부모는 다른 지역의 부모보다 딸의 신체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높고 학업능력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낮게 나타났다. 군지역의 이러한 응답 비율은 아들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능력에 대한 기대

단위: %(명)

구 분	신체 (용모, 키, 몸매 등)		학업 능력 (학교성적 등)		예체능적 자질 (음악, 미술, 운동 등)		성격, 태도 (책임감, 성 실성 등)		대인능력 (사회성, 리 더십 등)		사례수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전체	10.5	22.9	21.8	19.3	1.8	7.5	33.5	28.4	32.4	21.8	(2,357)	(2,093)
성별												
남성	11.0	23.6	21.2	17.7	1.6	8.3	33.7	28.9	32.6	21.6	(1,078)	(968)
여성	10.1	22.4	22.4	20.6	2.0	6.9	33.4	28.0	32.2	22.0	(1,273)	(1,125)
연령별												
20대	17.8	25.0	20.0	10.4	4.4	16.7	22.2	25.0	35.6	22.9	(45)	(48)
30대	10.6	21.6	20.5	18.5	1.6	9.2	33.0	27.0	34.4	23.7	(834)	(747)
40대	9.1	23.5	23.8	20.3	1.9	6.5	35.1	29.0	30.1	20.8	(1,156)	(1,035)
50대	14.6	24.3	18.4	19.0	1.6	5.3	30.7	30.8	34.8	20.5	(316)	(263)

9) 이러한 분류는 다중지능이론(Gardner, 1993)에 일부 근거한다.

구 분	신체 (용모, 키, 몸매 등)		학업 능력 (학교성적 등)		예체능적 자질 (음악, 미술, 운동 등)		성격, 태도 (책임감, 성 실성 등)		대인능력 (사회성, 리 더십 등)		사례수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지역규모별												
대도시	10.0	22.5	22.9	20.7	1.6	7.1	33.4	28.7	32.2	21.1	(1,153)	(1,063)
중소도시	9.8	21.7	22.3	18.8	2.1	8.6	33.2	28.0	32.6	22.9	(1,028)	(895)
군지역	18.2	34.8	11.8	11.1	1.2	4.4	36.5	28.9	32.4	20.7	(170)	(13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4.9	26.4	17.9	14.6	2.6	7.1	34.0	29.2	30.6	22.6	(235)	(212)
200~299만원	13.4	25.0	20.0	15.8	2.0	8.1	33.4	30.4	31.3	20.7	(704)	(608)
300~399만원	9.9	24.3	24.7	22.9	1.0	6.8	33.1	25.9	31.2	20.1	(667)	(633)
400~499만원	6.8	20.1	22.2	16.3	2.7	8.1	32.0	29.7	36.3	25.9	(410)	(344)
500만원 이상	7.0	16.6	21.8	25.3	1.2	7.8	36.4	27.7	33.6	22.6	(330)	(296)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12.3	26.5	21.7	18.4	2.0	7.6	32.4	27.9	31.6	19.5	(1,025)	(891)
전문대학 졸	11.3	22.7	23.3	18.7	2.6	9.0	33.0	26.5	29.8	23.1	(503)	(445)
대학교 졸	7.5	20.4	21.8	20.7	0.8	6.5	34.1	28.9	35.8	23.4	(724)	(661)
대학원 졸	10.1	9.0	18.0	20.2	2.2	7.9	44.9	39.3	24.7	23.6	(89)	(89)

2) 자녀의 소양에 대한 기대

자신감, 예절, 책임감, 근면/성실성, 독립심, 인내심, 정직성, 협동성, 창의성, 진취성, 경제관념, 겸손, 배려심, 리더십, 순종, 사회성의 16가지 중 자녀가 갖추기를 바라는 것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높게 응답한 7가지를 아들과 딸 각각 아래 <표 V-1-2>과 <표 V-1-3>에 제시하였다. 아들은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 근면/성실성, 사회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딸은 자신감, 예절, 근면/성실성, 책임감, 창의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감을 갖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아들 39.9%, 딸 38.6%로 아들과 딸 모두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 자녀의 성별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장 갖추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들은 딸에 비해 책임감, 리더십, 독립심이 높게 나타났으며, 딸은 아들에 비해 예절, 창의성, 배려심이 높게 나타났다.

아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2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예절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에서 자신감을 응답한 비율이 4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리더십을 응답한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

이 높을수록 리더십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1-2〉 아들이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적 측면

단위: %(명)

구 분	자신감	책임감	리더십	근면성실성	사회성	독립심	예절	...	사례수
전체	39.9	13.7	10.6	9.2	5.2	3.8	3.5	...	
성별									
남성	39.0	14.3	10.8	9.0	5.3	4.0	3.9	...	(1,077)
여성	40.8	13.2	10.5	9.3	5.1	3.6	3.2	...	(1,272)
연령별									
20대	33.3	11.1	11.1	11.1	2.2	4.4	8.9	...	(45)
30대	42.2	11.5	10.9	8.3	5.0	3.7	4.2	...	(834)
40대	37.4	15.2	11.1	9.4	5.7	3.9	3.3	...	(1,156)
50대	44.3	14.2	8.2	10.4	4.1	3.5	1.9	...	(314)
지역규모별									
대도시	42.8	13.9	10.2	8.8	4.6	4.2	3.2	...	(1,151)
중소도시	37.9	13.1	11.7	9.4	5.3	3.4	3.0	...	(1,028)
군지역	32.9	15.9	7.1	10.0	8.8	3.5	8.8	...	(17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4.0	14.0	8.9	6.0	6.0	5.5	7.7	...	(235)
200~299만원	41.3	13.9	10.4	9.8	4.1	3.3	3.6	...	(704)
300~399만원	44.1	12.7	10.0	7.2	4.9	3.1	2.8	...	(667)
400~499만원	37.3	14.7	10.5	10.3	6.4	5.4	2.9	...	(408)
500만원 이상	35.5	13.9	13.9	13.0	6.1	3.0	2.7	...	(330)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39.8	14.1	11.1	8.8	4.8	3.6	3.3	...	(1,024)
전문대학 졸	41.6	12.5	8.9	9.9	5.8	4.2	3.4	...	(453)
대학교 졸	41.1	14.4	11.5	8.2	4.7	3.6	3.3	...	(723)
대학원 졸	24.7	12.4	9.0	18.0	9.0	5.6	6.7	...	(89)

주: 아들 1순위 응답 중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7가지만 제시함.

딸이 갖추기를 바라는 내적 소양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근면/성실성을 응답한 비율이 낮고 리더십, 창의성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신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27.1%로 가장 낮게 나타나 특이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400만원 이상 부모는 다른 소득 부모보다 근면/성실성, 책임감, 창의성, 사회성 등을 높게 응답하였다.

〈표 V-1-3〉 딸이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적 측면

단위: %(명)

구 분	자신감	예절	근면/성실성	책임감	창의성	사회성	리더십	...	사례수
전체	38.6	11.7	8.5	8.4	5.0	4.9	4.5	...	
성별									
남성	36.1	12.9	8.5	8.0	6.1	5.0	4.6	...	(967)
여성	40.7	10.7	8.5	8.8	4.0	4.9	4.4	...	(1,124)
연령별									
20대	27.1	18.8	6.3	10.4	6.3	2.1	8.3	...	(48)
30대	42.8	9.8	6.7	6.6	5.2	5.6	4.7	...	(747)
40대	37.2	12.1	9.7	9.4	5.0	4.8	4.6	...	(1,035)
50대	33.8	14.4	9.5	9.5	3.8	3.8	2.7	...	(261)
지역규모별									
대도시	38.9	11.3	9.5	10.1	4.8	5.0	4.2	...	(1,061)
중소도시	38.0	12.3	6.7	6.0	5.5	4.9	5.3	...	(895)
군지역	40.0	11.1	12.6	11.1	3.0	4.4	1.5	...	(13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1.6	14.6	7.5	6.6	3.8	3.8	5.7	...	(212)
200~299만원	38.8	10.9	8.7	8.2	4.9	5.3	4.1	...	(608)
300~399만원	44.2	10.9	7.9	8.4	4.6	3.2	3.6	...	(633)
400~499만원	37.4	11.4	9.1	9.4	4.4	7.3	6.1	...	(342)
500만원 이상	32.4	13.5	9.5	9.1	7.4	6.1	4.4	...	(296)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38.9	13.3	8.8	9.1	3.6	3.9	4.2	...	(890)
전문대학 졸	38.4	10.8	8.1	7.6	4.3	7.2	4.3	...	(445)
대학교 졸	40.0	10.8	7.6	8.5	6.8	4.5	4.8	...	(660)
대학원 졸	29.2	7.9	14.6	5.6	9.0	5.6	5.6	...	(89)

주: 딸 1순위 응답 중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된 7가지만 제시함.

나. 자녀의 장래 인생에 대한 기대

1) 기대 교육 수준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수준은 아들과 딸 상관없이 4년제 대학교 이상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학원(박사)까지 교육시키고 싶다는 응답은 딸에 비해 아들이 높게 나타났고, 아들과 딸 모두 20대와 5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에서 대학원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4년제 대학교 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에서 아들과 딸 모두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기대 비율을 보였고 반면 대학원 졸업(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에 대한 기대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학력에 따른 교육수준 기대 비교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는데 부모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아들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기 바라는 비율은 15.7%이고 박사 학위를 따기를 바란 비율은 56.2%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력이 거의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 수준 비교에서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군지역에서는 65.9%가 자녀의 4년제 대학졸업을 기대했고 대학원(박사) 졸업은 아들의 경우 20.6%로 조사되었으나 중소도시에서 4년제 대학졸업을, 33.9%가 대학원 졸업을 기대해 지역별로도 부모의 기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V-1-4〉 자녀 교육시키고 싶은 수준

단위: %(명)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직업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사례수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전체	0.5	0.3	1.9	2.9	50.3	58.8	16.7	16.7	30.7	23.7	(2,351)	(2,093)
성별												
남성	0.5	0.2	1.9	3.0	51.7	60.6	16.7	16.7	29.2	22.6	(1,078)	(968)
여성	0.5	0.4	1.8	2.8	49.1	57.2	16.7	16.7	32.0	24.6	(1,273)	(1,125)
연령별												
20대	0.0	0.0	4.4	2.1	55.6	70.8	17.8	17.8	22.2	12.5	(45)	(48)
30대	0.2	0.4	1.9	3.3	50.7	56.9	14.6	14.6	32.5	26.2	(834)	(747)
40대	0.5	0.2	1.6	2.5	49.7	59.5	17.0	17.0	31.2	24.2	(1,156)	(1,035)
50대	0.9	0.4	2.5	3.4	50.3	58.9	20.9	20.9	25.3	16.7	(316)	(263)
지역규모별												
대도시	0.5	0.4	2.2	2.6	52.2	60.4	15.7	15.7	29.4	24.3	(1,153)	(1,063)
중소도시	0.4	0.2	1.7	3.1	45.5	55.8	18.6	18.6	33.9	24.1	(1,028)	(895)
군지역	0.6	0.0	1.2	3.7	65.9	65.9	11.8	11.8	20.6	16.3	(170)	(13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1	1.9	5.1	10.4	59.6	63.2	7.2	7.2	26.0	15.6	(235)	(212)
200~299만원	0.6	0.2	3.0	3.3	58.5	66.4	12.6	12.6	25.3	19.7	(704)	(608)
300~399만원	0.1	0.2	0.7	1.3	47.4	57.7	19.2	19.2	32.5	25.6	(667)	(633)
400~499만원	0.2	0.0	1.0	2.6	47.3	53.8	16.3	17.2	35.1	26.5	(410)	(344)
500만원 이상	0.0	0.0	0.6	0.7	34.8	48.0	27.6	20.9	37.0	30.4	(330)	(296)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직업학교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사례수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0.7	0.6	3.5	5.1	58.7	63.2	12.9	11.6	24.2	19.6	(1,025)	(891)
전문대학 졸	0.6	0.0	1.4	2.7	51.3	62.2	17.5	11.9	29.2	23.1	(503)	(445)
대학교 졸	0.1	0.2	0.1	0.5	41.3	54.6	20.3	18.0	38.1	26.8	(724)	(661)
대학원 졸	0.0	0.0	0.0	1.1	15.7	27.0	28.1	27.0	56.2	44.9	(89)	(89)

2) 자녀의 장래 직업에 대한 기대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은 아들과 딸 모두 전문직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들은 전문직 다음으로 경영관리직 20.6%, 사무기술직 16.0%로 높게 나타났다으나, 딸은 전문직 다음으로 사무기술직 29.4%, 경영관리직 7.5%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나타냈다. 딸보다는 아들이 경영관리직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5〉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단위: %(명)

구 분	농어업	자영업	판매 서비스 스직	기능 숙련공	사무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전업 주부	종교인	예체능 인	계
아들	0.2	1.5	0.2	1.3	16.0	20.6	56.4	0.1	0.9	2.8	100.0(2,351)
딸	0.0	0.8	0.5	0.4	29.4	7.5	54.2	1.0	0.4	5.7	100.0(2,093)

아들과 딸 모두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는 부모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 연령이 낮을수록 전문직과 예술가/체육인/연예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또한 월 소득이 낮을수록 사무기술직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전문직과 경영관리직의 직업을 자녀가 갖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6〉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아들

단위: %(명)

구 분	농어업	자영업	판매 서비스 스직	기능 숙련공	사무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전업 주부	종교인	예천 능	계
전체	0.2	1.5	0.2	1.3	16.0	20.6	56.4	0.1	0.9	2.8	100.0(2,351)
성별											
남성	0.3	1.7	0.3	1.1	15.5	20.4	56.8	0.2	0.6	3.2	100.0(1,078)
여성	0.1	1.3	0.1	1.5	16.3	20.7	56.0	0.1	1.3	2.6	100.0(1,273)
연령별											
20대	2.2	0.0	0.0	2.2	6.7	11.1	62.2	0.0	0.0	15.6	100.0(45)
30대	0.1	1.3	0.0	1.2	12.5	17.3	63.7	0.0	0.2	3.6	100.0(834)
40대	0.2	1.6	0.2	1.2	18.7	20.7	53.7	0.2	1.3	2.2	100.0(1,156)
50대	0.0	1.6	0.6	1.9	16.5	30.4	45.9	0.3	1.6	1.3	100.0(316)
지역규모별											
대도시	0.3	2.1	0.3	1.4	17.3	19.2	55.8	0.3	1.1	2.2	100.0(1,153)
중소도시	0.1	1.0	0.0	1.3	13.9	22.5	57.0	0.0	0.8	3.5	100.0(1,028)
군지역	0.0	0.6	0.0	1.2	18.8	18.8	56.5	0.0	0.6	3.5	100.0(17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2.6	0.9	2.1	24.3	19.1	44.3	0.0	2.1	4.7	100.0(235)
200~299만원	0.1	1.7	0.1	2.4	17.0	17.5	56.4	0.1	0.7	3.8	100.0(704)
300~399만원	0.1	1.2	0.1	1.2	17.1	23.6	54.7	0.2	0.5	1.4	100.0(666)
400~499만원	0.2	1.7	0.0	0.2	14.4	20.0	59.0	0.2	1.0	3.2	100.0(410)
500만원 이상	0.3	0.6	0.0	0.0	7.6	23.0	64.8	0.0	1.5	2.1	100.0(330)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0.2	1.9	0.3	2.1	21.7	20.7	49.8	0.1	1.2	2.1	100.0(1,025)
전문대학 졸	0.0	1.6	0.2	0.8	13.9	20.9	58.4	0.0	1.0	3.2	100.0(503)
대학교 졸	0.3	1.1	0.0	0.6	10.5	20.3	62.9	0.3	0.3	3.7	100.0(723)
대학원 졸	0.0	0.0	0.0	0.0	7.9	18.0	68.5	0.0	3.4	2.2	100.0(89)

주: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하지 않음.

〈표 V-1-7〉 자녀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 딸

단위: %(명)

구 분	농림 어업, 축산, 원예업	자영업	판매 서비스 직	기능 숙련공	사무 기술직	경영 관리직	전문직	전업 주부	종교인	예술가 체육인 연예인	계
전체	0.0	0.8	0.5	0.4	29.4	7.5	54.2	1.0	0.4	5.7	100.0(2,093)
성별											
남성	0.1	0.9	0.6	0.5	28.2	8.4	53.7	1.3	0.4	5.7	100.0(968)
여성	0.0	0.7	0.4	0.3	30.4	6.8	54.6	0.7	0.4	5.7	100.0(1,125)
연령별											
20대	0.0	0.0	0.0	0.0	25.0	2.1	60.4	2.1	0.0	10.4	100.0(48)
30대	0.0	0.9	0.4	0.4	22.1	5.6	62.4	0.5	0.1	7.4	100.0(747)
40대	0.1	0.8	0.7	0.4	32.9	7.8	51.4	0.8	0.7	4.4	100.0(1,035)
50대	0.0	0.8	0.4	0.4	36.9	12.5	40.7	3.0	0.4	4.9	100.0(263)
지역규모별											
대도시	0.0	1.1	0.8	0.4	26.9	7.7	56.3	1.0	0.2	5.4	100.0(1,063)
중소도시	0.0	0.6	0.2	0.4	32.2	7.2	52.0	0.8	0.8	5.9	100.0(893)
군지역	0.7	0.0	0.0	0.0	30.4	8.1	51.9	2.2	0.0	6.7	100.0(13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1.4	1.4	0.5	34.4	8.5	45.3	0.9	0.0	7.5	100.0(212)
200~299만원	0.0	1.2	0.7	0.3	31.6	7.1	52.5	0.8	1.0	4.9	100.0(608)
300~399만원	0.2	0.5	0.2	0.5	29.4	7.4	56.6	0.5	0.2	4.6	100.0(632)
400~499만원	0.0	0.9	0.3	0.6	23.8	7.0	58.4	1.5	0.3	7.3	100.0(344)
500만원 이상	0.0	0.3	0.7	0.0	27.7	8.4	54.1	2.0	0.3	6.4	100.0(296)
최종 학력별											
고졸 이하	0.1	1.2	0.4	0.7	37.0	8.8	46.0	1.1	0.4	4.2	100.0(891)
전문대학 졸	0.0	0.7	0.9	0.2	27.4	7.0	55.3	0.7	0.4	7.4	100.0(445)
대학교 졸	0.0	0.5	0.3	0.2	22.3	6.7	62.1	1.2	0.5	6.4	100.0(660)
대학원 졸	0.0	0.0	1.1	0.0	14.6	4.5	71.9	0.0	0.0	7.9	100.0(89)

주: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합하지 않음.

3) 자녀의 삶의 유형에 대한 기대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인생은 아들과 딸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리더로서 존경받으며 사는 삶'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67.2%, 딸은 44.1%로 딸에 비하여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딸의 경우 40,

50대 부모들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 부모의 딸들은 대부분 이미 결혼을 했거나 결혼에 가까운 나이일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에 비해 20, 30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딸이 앞으로 자기분야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비교해보면,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가 리더가 되길 기대하였고 소득이 낮은 부모가 ‘평범한 소시민’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인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어, 연령이 낮을수록 유명인으로 사는 삶과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기는 삶을 높게 응답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하는 삶을 높게 응답하였다. 지역규모별로는 군지역에서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하는 삶을 가장 높게 나타냈다. 월 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아들이 유명인으로 살거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리더로서 존경받고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딸이 살기는 바라는 인생은 남성과 여성의 응답에서 차이를 나타내어,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에서 성공하여 리더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50대의 경우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과 차이를 나타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낮을수록 딸이 유명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리더로서 존경받고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1-8〉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삶의 유형

단위: %(명)

구 분	유명인 ¹⁾		자기분야의 리더 ²⁾		평범한 소시민 ³⁾		결혼과 무관한 자유인 ⁴⁾		봉사하는 삶 ⁵⁾		계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전체	6.2	3.2	67.2	44.1	21.0	33.7	4.1	17.2	1.5	1.8	100.0	(2,347)	(2,089)
성별													
남성	6.7	3.9	65.6	43.3	22.0	35.8	3.9	14.9	1.9	2.1	100.0	(1,077)	(967)
여성	5.7	2.5	68.6	44.7	20.1	32.0	4.3	19.2	1.3	1.6	100.0	(1,270)	(1,122)

구 분	유명인 ¹⁾		자기분야의 리더 ²⁾		평범한 소시민 ³⁾		결혼과 무관한 자유인 ⁴⁾		봉사하는 삶 ⁵⁾		계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연령별													
20대	17.8	0.0	60.0	56.3	13.3	29.2	8.9	14.6	0.0	0.0	100.0	(45)	(48)
30대	5.3	4.3	70.2	49.9	20.0	26.3	3.5	18.1	1.1	1.3	100.0	(832)	(745)
40대	6.8	2.8	65.1	42.0	21.9	36.4	4.3	16.6	1.8	2.2	100.0	(1,154)	(1,033)
50대	4.4	1.9	68.0	33.5	21.2	45.2	4.4	17.5	1.9	1.9	100.0	(316)	(263)
지역규모별													
대도시	6.1	2.8	67.0	43.4	20.7	34.4	4.5	17.4	1.7	2.0	100.0	(1,150)	(1,060)
중소도시	6.6	3.6	68.6	45.0	19.6	32.5	3.7	17.0	1.6	1.9	100.0	(1,028)	(895)
군지역	4.1	3.0	59.8	43.3	31.4	36.6	4.1	17.2	0.6	0.0	100.0	(169)	(13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8.5	5.2	59.1	37.7	25.1	37.3	4.7	17.5	2.6	2.4	100.0	(235)	(212)
200~299만원	6.0	2.1	66.5	44.1	22.5	34.5	3.8	18.2	1.1	1.2	100.0	(702)	(606)
300~399만원	6.8	3.6	68.3	44.5	19.4	31.6	4.1	18.7	1.5	1.6	100.0	(666)	(632)
400~499만원	4.9	3.5	67.7	48.1	20.3	30.9	5.6	15.7	1.5	1.7	100.0	(409)	(343)
500만원 이상	5.5	2.4	71.2	43.2	18.8	37.5	2.7	13.5	1.8	3.4	100.0	(330)	(296)
학력별													
고졸 이하	6.3	2.7	66.2	38.7	22.3	36.2	4.2	21.1	1.1	1.2	100.0	(1,023)	(889)
전문대학 졸	6.2	3.8	68.7	46.5	19.3	33.0	4.4	15.1	1.4	1.6	100.0	(502)	(445)
대학교 졸	6.2	2.9	67.8	48.7	20.2	31.3	4.3	14.7	1.5	2.4	100.0	(723)	(659)
대학원 졸	4.5	6.7	67.4	51.7	21.3	31.5	1.1	6.7	5.6	3.4	100.0	(89)	(89)

- 1)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일을 하여 유명인으로 사는 삶
- 2)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리더로서 존경받으며 사는 삶
- 3) 자기의 평범한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하는 삶
- 4) 평범한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하는 삶
- 5)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며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삶

2. 양육의 현실적 측면

부모가 자신의 양육관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적·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 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가. 교육열 관련 현실 이슈에 대한 의견

1)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소위 해외원정출산이란 출생지에서 국적을 부여하는 외국에 의도적으로 찾아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그 자녀가 우리나라와 외국(예를 들면 미국)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의 교육이나 병역 등에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국인정출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14.8%가 ‘할 수만 있다면 원정출산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23.6%, 30대 15.9%, 40대 11.6%, 50대 10.8%가 ‘할 수만 있다면 원정출산을 하고 싶다’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원정출산에 대해 긍정의 의견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높은 부모일수록 원정출산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표 V-2-1〉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가능하다면 하겠다	할 생각이 없다	계	$\chi^2(df)$
전체	14.8	85.2	100.0(3,747)	
성별				
남성	12.6	87.4	100.0(1,697)	11.6(1)**
여성	16.6	83.4	100.0(2,050)	
연령별				
20대	23.6	76.4	100.0(542)	51.7(3)***
30대	15.9	84.1	100.0(1,333)	
40대	11.6	88.4	100.0(1,492)	
50대	10.8	89.2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14.2	85.8	100.0(1,855)	18.4(2)***
중소도시	16.7	83.3	100.0(1,637)	
군지역	6.7	93.3	100.0(25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7.9	82.1	100.0(793)	17.3(4)**
200~299만원	12.1	87.9	100.0(1,048)	
300~399만원	13.1	86.9	100.0(936)	
400~499만원	16.0	84.0	100.0(536)	
500만원 이상	17.6	82.4	100.0(427)	

구 분	가능하다면 하겠다	할 생각이 없다	계	$\chi^2(df)$
학력별				
고졸 이하	11.1	88.9	100.0(1,427)	27.2(3)***
전문대학 졸	16.1	83.9	100.0(837)	
대학교 졸	16.9	83.1	100.0(1,328)	
대학원 졸	22.1	77.9	100.0(140)	

** $p < .01$ *** $p < .001$

2) 조기교육에 대한 의견

영유아에 있어서 한글의 적정 교육시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32.4%가 만 5세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만 4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은 30.3%였고 다음은 만 3세로 22.9%였다. 즉 대다수가 만 3-5세 사이에 한글을 익히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매우 소수였다.

영어 등 외국어의 조기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가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만 5세이전에 외국어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 47.2%가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가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산수 등 수리 교육은 만 5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2.1%) 예능교육은 49%가 만 4세 또는 5세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수리나 예능교육의 경우 약 70%이상이 초등학교 입학이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부모들은 대부분 영역의 교육들이 초등이전에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었다.

〈표 V-2-2〉 적정 교육시기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초등학교 이후	계
한글	3.9	7.7	22.9	30.3	32.4	2.9	100.0(3,745)
외국어	0.4	1.9	6.7	16.2	31.0	43.9	100.0(3,742)
수리	0.4	1.6	6.6	20.7	42.1	28.5	100.0(3,745)
예능	1.2	2.3	8.4	18.7	40.3	29.0	100.0(3,746)

외국으로 어린 자녀의 조기 유학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75.9%가 ‘조기 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24.1%는 ‘반드시’ 또는 ‘가능하면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20대 이상 55세 미만의 부모의 넷 중 1명 정도가 자녀를 조기 유학보낼 의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20대의 2.6%가 ‘반드시 내 자녀는 조기유학을 보낼 것이다’라고 답해, 높은 연령층보다 조기 유학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향후 자신의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3〉 자녀 조기 유학 의향

단위: %(명)

구 분	반드시 보내겠다	가능하면 보내겠다	보내지 않겠다	계	$\chi^2(df)$
전체	1.3	22.8	75.9	100.0(3,747)	
성별					
남성	1.4	19.9	78.7	100.0(1,697)	15.2(2)**
여성	1.3	25.2	73.5	100.0(2,050)	
연령별					
20대	2.6	28.8	68.6	100.0(542)	31.2(6)***
30대	1.1	24.5	74.4	100.0(1,333)	
40대	1.1	19.8	79.1	100.0(1,492)	
50대	1.1	20.3	78.7	100.0(38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4	24.1	74.5	100.0(793)	14.5(8)
200~299만원	1.0	19.9	79.0	100.0(1,048)	
300~399만원	1.4	22.8	75.9	100.0(936)	
400~499만원	0.7	23.9	75.4	100.0(536)	
500만원 이상	2.3	26.0	71.7	100.0(427)	
학력별					
고졸 이하	0.4	17.7	81.9	100.0(1,427)	69.7(6)***
전문대학 졸	1.8	25.4	72.8	100.0(837)	
대학교 졸	1.6	25.9	72.5	100.0(1,328)	
대학원 졸	5.7	29.3	65.0	100.0(140)	

** $p < .01$ *** $p < .001$

조기 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에서 44.7%가 ‘외국 경험이 자녀의 진학,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28.3%는 단순히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유학을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나 이러한 의도도 결국은 좋은 대

학으로의 진학이나 후일의 취업을 고려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40대 49.0%, 50대 51.9%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비율로 유학의 경험이 진학,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4〉 조기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영어 (외국어) 실력	외국 대학 진학	외국 거주 목적	선진 교육 수혜	국내 진학· 취업	기타	계	$\chi^2(df)$
전체	28.3	2.7	2.2	18.6	44.7	3.4	100.0(903)	
연령별								
20대	24.9	4.1	4.1	20.1	42.6	4.2	100.0(169)	27.0(15)*
30대	27.9	2.6	2.3	22.3	40.2	4.6	100.0(341)	
40대	31.7	1.6	1.6	14.7	49.0	1.3	100.0(312)	
50대	24.7	3.7	0.0	14.8	51.9	4.9	100.0(81)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9.7	4.2	0.0	25.4	47.9	2.8	100.0(71)	16.3(15)
중	31.1	2.4	2.2	19.7	40.7	3.9	100.0(457)	
중하	26.7	2.5	2.5	15.4	50.3	2.5	100.0(318)	
하	26.8	3.6	3.6	19.6	41.1	5.2	100.0(56)	
학력별								
고졸 이하	30.5	1.5	2.3	15.1	47.1	3.4	100.0(259)	19.0(15)
전문대학 졸	29.5	3.1	3.1	17.6	43.6	3.1	100.0(227)	
대학교 졸	27.4	3.3	1.6	18.9	45.5	3.3	100.0(365)	
대학원 졸	18.4	2.0	2.0	36.7	34.7	4.0	100.0(49)	

* $p < .05$

3) 자녀교육을 위한 거주지의 이주 의향

교육적 환경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에서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물었을 때 61.0%가 ‘없다’, 39.0%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5.8%, 30대 44.2%, 40대 33.8%, 50대 32.1%가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연령별 집단구별과도 연결되어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자녀가 어릴수록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의 36.3%가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도시나 군지역은 이보다 높은 비율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적 환경에 대해 대도시 지역보다 중소도시나 군지역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V-2-5〉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의향

단위: %(명)

구 분	이주계획 있음	이주계획 없음	계	$\chi^2(df)$
전체	39.0	61.0	100.0(3,747)	
성별				
남성	36.1	63.9	100.0(1,697)	11.1(1)**
여성	41.5	58.5	100.0(2,050)	
연령별				
20대	45.8	54.2	100.0(542)	50.1(3)***
30대	44.2	55.8	100.0(1,333)	
40대	33.8	66.2	100.0(1,492)	
50대	32.1	67.9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36.3	63.7	100.0(1,855)	11.4(2)**
중소도시	41.8	58.2	100.0(1,637)	
군지역	41.2	58.8	100.0(25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2.1	57.9	100.0(793)	13.8(4)**
200~299만원	35.6	64.4	100.0(1,048)	
300~399만원	38.8	61.2	100.0(936)	
400~499만원	37.5	62.5	100.0(536)	
500만원 이상	44.3	55.7	100.0(427)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45.4	54.6	100.0(912)	
6~11세 자녀	41.7	58.3	100.0(1,187)	-
12~17세 자녀	33.2	66.8	100.0(1,243)	
18세 이상 자녀	31.1	68.9	100.0(866)	

-: 자녀들의 연령 구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1$ *** $p < .001$

소득별로는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42.1%가 옮기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부모

의 의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한편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주계획을 더 높은 비율로 보여주고 있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과 환경에 다소 더 민감하다고도 볼 수 있다(〈표 V-2-5〉 참조).

향후 자녀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떠한 조건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지 질문했을 때 초중등학교가 훌륭한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의 비율이 46.7%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는 교통과 치안이 우수한 곳으로 가겠다는 응답이 28.6%로 다음 순위인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겠다는 응답의 비율보다 10%포인트 정도 높게 조사되었다(〈표 V-2-6〉 참조).

〈표 V-2-6〉 거주지 이주시 가장 우수하기를 원하는 조건

단위: %(명)

구 분	교육·보육 서비스	초중등학교	사교육	교통치안	자연환경	계	$\chi^2(df)$
전체	2.0	46.7	4.3	28.6	18.4	100.0(1449)	
성별							
남성	2.1	43.0	3.5	30.1	21.3	100.0(607)	10.4(4)*
여성	1.9	49.4	4.9	27.6	16.3	100.0(842)	
연령별							
20대	4.4	29.0	4.0	40.3	22.2	100.0(248)	62.3(12)***
30대	2.8	52.2	3.3	23.4	18.3	100.0(580)	
40대	0.2	48.6	5.6	28.6	17.0	100.0(500)	
50대	0.8	48.8	4.1	29.8	16.5	100.0(121)	
지역규모별							
대도시	2.1	45.4	3.9	30.4	18.1	100.0(667)	7.6(8)
중소도시	1.9	49.3	4.6	25.9	18.3	100.0(679)	
군지역	1.9	37.9	4.9	35.0	20.4	100.0(10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2	33.8	3.9	36.8	21.3	100.0(334)	50.4(16)***
200~299만원	1.6	46.6	4.3	27.6	19.8	100.0(369)	
300~399만원	1.4	53.3	3.1	25.8	16.4	100.0(360)	
400~499만원	1.0	53.1	4.1	27.0	14.8	100.0(196)	
500만원 이상	1.1	51.3	7.5	21.9	18.2	100.0(187)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9	53.1	2.5	23.6	17.0	100.0(407)	
6~11세 자녀	0.4	58.6	5.3	21.4	14.2	100.0(486)	-
12~17세 자녀	0.0	47.8	5.6	27.8	18.8	100.0(410)	
18세 이상 자녀	0.7	44.6	2.6	31.1	21.0	100.0(267)	

-: 자녀들의 연령 구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5$ *** $p < .001$

〈표 V-2-6〉에서 보면, 부모연령집단과 자녀연령집단의 응답을 함께 고려해

서 보면, 자녀가 초등학교 정도에 다니는 6~11세이고 부모가 30대인 경우 학교가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는 응답 비율이 50%가 넘고 18세 이상자녀의 부모나 50대 부모는 교통치안이 우수한 곳이나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경우에 학교 때문에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부모의 3.9%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 현재의 서비스에 불만족하거나 불편해 하고 있는 경우의 수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족이 거주지의 이주로 직접 연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응답이 불만족한 정도 전체를 보여준다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 입양 및 다문화·이혼에 대한 인식

앞서 Ⅲ장에서 미혼인 성인의 경우 앞으로 자녀 출산이 어렵다면 입양을 하겠다는 응답이 17.9%로 나왔었다.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점차 그 비율이 높아가고 있는 국내 입양의 문제를 상기하면서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입양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도 살펴보았다.

1) 입양에 대한 의견

입양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62.3%가 ‘입양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 18.3%, 여성 24.5%가 ‘나는 입양을 할 수도 있다’고 답해 남성과 여성에 있어 입양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고 여성이 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37.0%의 가장 높은 비율로 ‘나는 입양을 할 수도 있다’고 답했고 30대 20.6%, 40대 18.4%, 50대 16.8%로 응답함으로써,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입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혼의 38.9%, 기혼 무자녀의 22.3%, 기혼 유자녀의 18.3%가 입양을 할 수도 있다고 답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월 소득별에서는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34.4%의 가장 높은 비율로 입양을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고 학력이 높을수록 입양에 긍정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7〉 자녀 입양의 가능성

단위: %(명)

구 분	입양가능	입양불가	생각해 본 적 없음	계	$\chi^2(df)$
전체	21.7	16.0	62.3	100.0(3,744)	
성별					
남성	18.3	15.9	65.7	100.0(1,696)	22.2(2)***
여성	24.5	16.0	59.4	100.0(2,048)	
연령별					
20대	37.0	10.4	52.7	100.0(541)	96.8(6)***
30대	20.6	18.1	61.3	100.0(1,333)	
40대	18.4	16.0	65.6	100.0(1,490)	
50대	16.8	16.6	66.6	100.0(380)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38.9	9.7	51.4	100.0(598)	128.4(4)***
기혼 무자녀	22.3	18.4	59.2	100.0(103)	
기혼 유자녀	18.3	17.1	64.5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4.4	12.0	53.6	100.0(791)	108.8(8)***
200~299만원	19.6	18.4	62.0	100.0(1,048)	
300~399만원	16.0	16.3	67.6	100.0(936)	
400~499만원	16.6	16.4	66.9	100.0(535)	
500만원 이상	22.7	15.2	62.1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18.1	17.7	64.2	100.0(1,426)	24.8(6)***
전문대학 졸	22.1	16.2	61.6	100.0(837)	
대학교 졸	24.4	13.9	61.6	100.0(1,327)	
대학원 졸	28.1	18.0	54.0	100.0(139)	

*** $p < .001$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53.4%는 ‘더 이상의 자녀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에 가장 높은 비율로 답하였고, 29.9%는 ‘핏줄이 다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더 이상의 자녀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가 22.2%를 차지한 반면, 다른 연령층과 달리 ‘핏줄이 다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의 이유가 64.8%를 나타내 결혼여부나 자녀유무 등이 이에 많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2-8〉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현재 자녀수에 만족	가족내 갈등의 소지	가족이 입양의사 없음	다른 핏줄을 키울 자신없음	부정적인 사회 인식	기타	계	$\chi^2(df)$
전체	53.4	3.0	7.9	29.9	2.5	3.2	100.0(592)	
성별								
남성	49.6	3.4	8.2	34.0	3.0	1.9	100.0(268)	7.3(5)
여성	56.5	2.8	7.7	26.5	2.2	4.3	100.0(324)	
연령별								
20대	22.2	7.4	1.9	64.8	1.9	1.9	100.0(54)	57.8(15)***
30대	54.2	2.9	6.7	32.1	1.7	2.5	100.0(240)	
40대	60.8	2.1	8.9	20.7	3.0	4.2	100.0(237)	
50대	49.2	3.3	14.6	26.2	4.9	1.6	100.0(61)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15.8	7.0	3.5	66.7	5.3	1.8	100.0(57)	70.3(10)***
기혼 무자녀	11.1	5.6	16.7	61.1	0.0	5.6	100.0(18)	
기혼 유자녀	59.0	2.5	8.1	24.8	2.3	3.3	100.0(517)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8.0	7.5	9.7	46.2	3.2	5.4	100.0(93)	45.7(20)**
200~299만원	55.0	2.1	7.3	28.3	2.6	4.7	100.0(191)	
300~399만원	61.6	1.3	6.0	27.2	2.6	1.3	100.0(151)	
400~499만원	63.6	4.5	5.7	23.9	2.3	0.0	100.0(88)	
500만원 이상	54.7	1.6	12.5	26.6	1.6	3.1	100.0(64)	

** $p < .01$ *** $p < .001$

2) 다문화 및 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

자녀가 다문화 가정 출신의 상대와 결혼한다고 할 경우 자신의 반응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57.1%가 '내키지 않지만 자녀가 원하므로 허락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별 반대없이 허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11.4%에 불과하였고 '교제를 그만두게 하겠다'라는 강한 반대의 응답이 31.4%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아직은 다문화 가정과 자신의 자녀와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다분히 많다고 보겠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로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50대에서 41.0%가 교제를 반대하겠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21.9%가 그러하겠다고 응답해 20%포인트가 넘

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대의사에 대해서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학력수준은 낮을수록 교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자녀 연령이 높은 부모일수록 교제를 못하게 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2-9〉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고 할 경우 행동

단위: %(명)

구 분	반대없이 허락함	내키지 않으나 허락함	교제를 중단시킴	계	$\chi^2(df)$
전체	11.4	57.1	31.4	100.0(3,651)	
연령별					
20대	22.2	55.9	21.9	100.0(508)	126.2(6)***
30대	13.3	58.9	27.8	100.0(1,301)	
40대	7.3	57.2	35.5	100.0(1,466)	
50대	6.6	52.4	41.0	100.0(376)	
지역규모별					
대도시	10.5	55.8	33.7	100.0(1,806)	13.9(4)**
중소도시	12.7	57.6	29.7	100.0(1,595)	
군지역	10.4	64.0	25.6	100.0(25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9.8	53.8	26.4	100.0(757)	86.3(8)***
200~299만원	10.8	58.8	30.4	100.0(1,018)	
300~399만원	7.2	56.2	36.7	100.0(922)	
400~499만원	7.6	60.2	32.2	100.0(528)	
500만원 이상	12.4	57.2	30.4	100.0(421)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8.6	57.3	34.1	100.0(1,402)	24.0(6)**
전문대학 졸	12.3	58.5	29.2	100.0(815)	
대학교 졸	13.6	56.2	30.2	100.0(1,286)	
대학원 졸	15.8	54.9	29.3	100.0(122)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13.7	59.8	26.5	100.0(888)	-
6~11세 자녀	9.2	58.0	32.8	100.0(1,163)	
12~17세 자녀	7.4	55.4	37.1	100.0(1,223)	
18세 이상 자녀	4.9	54.4	40.7	100.0(853)	
자녀 성별					
아들	9.3	58.4	32.2	100.0(2,037)	-
딸	7.6	56.4	36.0	100.0(2,054)	

-: 자녀들의 연령 구간 및 자녀성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5$ *** $p < .001$

3) 이혼/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

자녀가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고자 할 경우의 행동을 질문한 결과에는, 51.0%가 '내키지 않지만 자녀가 원하므로 허락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연령별 차이는 뚜렷해서 20대 18.9%, 30대 11.5%, 40대 6.1%, 50대 5.3%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답해, 연령이 낮을수록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 개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 특징에서도 소득이 낮은 집단이 '반대없이 허락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0〉 자녀가 이혼/재혼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고자 할 경우 행동

단위: %(명)

구 분	반대없이 허락함	내키지 않으나 허락함	교제를 중단시킴	계	$\chi^2(df)$
전체	9.8	51.0	39.2	100.0(3,703)	
성별					
남성	9.9	51.0	39.1	100.0(1,672)	0.0(2)
여성	9.7	51.0	39.3	100.0(2,031)	
연령별					
20대	18.9	44.7	36.4	100.0(530)	102.0(6)***
30대	11.5	52.8	35.7	100.0(1,319)	
40대	6.1	53.2	40.7	100.0(1,478)	
50대	5.3	45.2	49.5	100.0(37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5.8	47.1	37.1	100.0(777)	59.1(8)***
200~299만원	9.8	53.6	36.5	100.0(1,037)	
300~399만원	7.6	48.0	44.3	100.0(929)	
400~499만원	6.1	55.5	38.4	100.0(528)	
500만원 이상	8.0	52.8	39.2	100.0(426)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8.0	51.0	41.0	100.0(1,411)	10.4(6)
전문대학 졸	11.7	50.8	37.5	100.0(821)	
대학교 졸	10.5	50.9	38.6	100.0(1,317)	
대학원 졸	9.4	53.2	37.4	100.0(139)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11.6	52.2	36.2	100.0(905)	-
6~11세 자녀	7.0	54.0	38.9	100.0(1,179)	
12~17세 자녀	5.8	52.2	42.1	100.0(1,234)	
18세 이상 자녀	4.4	49.2	46.3	100.0(855)	

구 분	반대없이 허락함	내키지 않으나 허락함	교제를 중단시킴	계	$\chi^2(df)$
자녀 성별					
아들	7.3	53.5	39.2	100.0(2,329)	-
딸	7.4	50.4	42.2	100.0(2,078)	

-: 자녀들의 연령 구간 및 자녀성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01$

다. 양육의 실제적 측면

1)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묻은 문항에서, 25.5%가 ‘매우 좋다’, 70.8%가 ‘좋은 편이다’라고 답했다. 경제수준별에서 보면 중상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34.1%의 비율로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고 평가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1〉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

단위: %(명)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계	$\chi^2(df)$
전체	25.5	70.8	3.4	0.2	100.0(3,046)	
성별						
남성	23.5	71.8	4.4	0.3	100.0(1,402)	11.6(3)**
여성	27.1	70.1	2.6	0.2	100.0(1,644)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4.1	61.0	4.5	0.4	100.0(223)	40.0(9)***
중	27.9	69.0	2.9	0.2	100.0(1,577)	
중하	20.3	76.0	3.4	0.3	100.0(1,082)	
하	24.2	68.3	7.5	0.0	100.0(161)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3.2	64.4	2.1	0.3	100.0(912)	
6~11세 자녀	26.3	70.4	3.2	0.1	100.0(1,187)	-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계	$\chi^2(df)$
12~17세 자녀	19.2	76.3	4.5	0.0	100.0(1,243)	
18세 이상 자녀	18.5	76.1	5.1	0.3	100.0(866)	
자녀 성별						
아들	24.6	71.5	3.7	0.2	100.0(2,351)	-
딸	25.3	70.8	3.7	0.2	100.0(2,093)	

-: 자녀들의 연령 구간 및 자녀성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포함되어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1$ *** $p < .001$

2)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이 자녀에게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충분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인 44.6%를 차지했고 ‘충분한 편이다’가 31.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월 소득별로 보면 ‘충분한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200만원 미만 24.2%, 200~299만원 27.6%, 300~399만원 31.4%, 400~499만원 33.7%, 500만원 이상 46.3%의 비율이었다. 모(母)가 취업주부인 경우 23.0%, 전업주부인 경우 15.7%가 ‘부족한 편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2〉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성 인식

단위: %(명)

구 분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보통	부족한 편	매우 부족	계	$\chi^2(df)$
전체	3.9	31.8	44.6	18.8	1.0	100.0(3,046)	
성별							
남성	4.4	31.7	44.6	18.6	0.7	100.0(1,402)	3.5(4)
여성	3.5	31.9	44.5	18.9	1.2	100.0(1,644)	
연령별							
20대	4.1	43.2	43.2	9.5	0.0	100.0(74)	30.3(12)**
30대	5.2	34.6	42.8	16.6	0.9	100.0(1,141)	
40대	3.1	29.6	45.7	20.4	1.2	100.0(1,456)	
50대	2.9	29.6	45.9	21.1	0.5	100.0(375)	
지역규모별							
대도시	2.9	32.6	43.5	20.2	0.9	100.0(1,493)	20.0(8)*
중소도시	4.5	31.5	46.3	16.6	1.0	100.0(1,334)	
군지역	6.8	28.8	40.6	22.4	1.4	100.0(219)	

구 분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보통	부족한 편	매우 부족	계	$\chi^2(df)$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5	24.2	38.7	29.8	1.8	100.0(326)	105.4(16)***
200~299만원	3.1	27.6	47.1	21.3	1.0	100.0(911)	
300~399만원	3.3	31.4	46.0	18.0	1.2	100.0(884)	
400~499만원	3.9	33.7	47.3	14.8	0.4	100.0(514)	
500만원 이상	5.7	46.3	36.7	10.8	0.5	100.0(406)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3.0	28.6	43.4	23.0	1.9	100.0(725)	22.6(4)***
전업주부	3.8	34.5	45.4	15.7	0.7	100.0(919)	

* $p < .05$ ** $p < .01$ *** $p < .001$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불충분한 부분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6.4%가 ‘경제적 지원’이라고 밝혀 부모의 역할인식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특징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연령별 차이에서 20대의 14.3%, 30대 31.7%, 40대 50.6%, 50대 69.1%가 ‘경제적 지원’에서 불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경제적 지원에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13〉 부모 역할로서 가장 불충분한 부분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 지도	학업 지도	기타	계	$\chi^2(df)$
전체	46.4	17.1	21.0	13.6	1.9	100.0(601)	
성별							
남성	45.6	15.6	23.0	13.7	2.2	100.0(270)	2.1(4)
여성	47.1	18.4	19.3	13.6	1.5	100.0(331)	
연령별							
20대	14.3	57.1	28.6	0.0	0.0	100.0(7)	58.4(12)***
30대	31.7	27.6	23.1	14.6	3.0	100.0(199)	
40대	50.6	11.5	21.7	14.6	1.6	100.0(314)	
50대	69.1	9.9	12.3	8.6	0.0	100.0(81)	
지역규모별							
대도시	53.8	15.3	16.6	13.1	1.3	100.0(314)	23.1(8)**
중소도시	40.3	17.4	27.1	13.1	2.1	100.0(236)	
군지역	29.4	27.5	19.6	19.6	3.9	100.0(51)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지	생활태도 지도	학업 지도	기타	계	$\chi^2(df)$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7.3	16.5	11.7	12.6	1.9	100.0(103)	33.7(16)**
200~299만원	51.7	16.7	17.2	13.3	1.0	100.0(203)	
300~399만원	47.3	15.4	21.3	13.6	2.4	100.0(169)	
400~499만원	32.1	20.5	33.3	11.5	2.6	100.0(78)	
500만원 이상	21.7	21.7	37.0	17.4	2.2	100.0(46)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0.1	28.2	24.4	12.8	4.5	100.0(156)	-
6~11세 자녀	41.3	20.8	21.7	13.3	2.9	100.0(240)	
12~17세 자녀	51.0	9.7	21.0	17.9	0.4	100.0(257)	
18세 이상 자녀	67.0	9.9	12.6	10.4	0.0	100.0(182)	

-: 자녀들의 연령 구간 및 자녀성별에 따라 부모가 중복으로 포함되어 응답한 경우가 있어 교차 분석이 가능하지 않음.

** $p < .01$ *** $p < .001$

3) 자녀에 대한 애정적 태도의 표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중 ‘매우 그렇다’가 34.2%, ‘그런 편이다’가 59.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93.4%가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징을 보면 남성(28.1%)보다 여성(39.4%)이 확연히 높은 비율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 반면에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남성이 8.6%, 여성이 4.7%라고 응답함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9.2%, 30대 38.5%, 40대 31.7%, 50대 29.9%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더 높은 비율로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별로도 200만원 미만 28.5%, 200~299만원 31.0%, 300~399만원 33.4%, 400~499만원 39.9%, 500만원 이상 40.4%이 ‘매우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4〉 자녀와의 관계1: 자녀의 행동과 성취에 늘 관심을 가짐

단위: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chi^2(df)$
전체	34.2	59.2	6.5	0.1	100.0(3,045)	
성별						
남성	28.1	63.1	8.6	0.2	100.0(1,402)	54.2(3)***
여성	39.4	55.9	4.7	0.1	100.0(1,643)	
연령별						
20대	39.2	54.1	6.8	0.0	100.0(74)	
30대	38.5	57.0	4.4	0.2	100.0(1,141)	29.1(9)**
40대	31.7	60.9	7.4	0.1	100.0(1,456)	
50대	29.9	60.4	9.4	0.3	100.0(37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8.5	63.2	8.0	0.3	100.0(326)	
200~299만원	31.0	62.6	6.4	0.0	100.0(911)	28.5(12)**
300~399만원	33.4	59.5	6.9	0.2	100.0(884)	
400~499만원	39.9	53.5	6.4	0.2	100.0(514)	
500만원 이상	40.4	54.7	4.9	0.0	100.0(406)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7.8	56.5	5.7	0.0	100.0(912)	
6~11세 자녀	35.2	59.2	5.4	0.2	100.0(1,187)	-
12~17세 자녀	31.5	60.8	7.5	0.2	100.0(1,242)	
18세 이상 자녀	29.8	61.3	8.8	0.1	100.0(865)	

-: 경우의 수가 통계적 유의도 검정에 적절하지 않음.

** $p < .01$ *** $p < .001$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인가를 묻는 문항에서, 전체의 47.9%는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고 44.2%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남성 5.3%, 여성 4.5%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인 8.1%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별 특징을 보면 200만원 미만 41.1%, 200~299만원 45.5%, 300~399만원 46.2%, 400~499만원 50.6%, 500만원 이상 59.4%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소득별 집단 각각 4.9%, 2.8%, 3.1%, 2.7%, 2.5%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

여,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인가를 살펴보았을 때, 자녀 연령별로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5〉 자녀와의 관계2: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편임

단위 %(명)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chi^2(df)$
전체	4.9	47.9	44.2	3.0	100.0(3,043)	
성별						
남성	5.3	49.4	42.1	3.2	100.0(1,400)	5.0(3)
여성	4.5	46.7	46.0	2.9	100.0(1,643)	
연령별						
20대	8.1	47.3	44.6	0.0	100.0(74)	16.7(9)
30대	5.3	47.9	44.8	2.0	100.0(1,141)	
40대	4.2	47.2	44.9	3.6	100.0(1,454)	
50대	5.3	51.1	39.3	4.3	100.0(374)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6	41.1	49.4	4.9	100.0(326)	41.9(12)***
200~299만원	5.8	45.5	45.9	2.8	100.0(909)	
300~399만원	3.7	46.2	47.0	3.1	100.0(883)	
400~499만원	5.1	50.6	41.6	2.7	100.0(514)	
500만원 이상	5.2	59.4	33.0	2.5	100.0(406)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5.7	48.8	43.3	2.2	100.0(912)	-
6~11세 자녀	4.1	46.4	46.9	2.6	100.0(1,186)	
12~17세 자녀	4.6	48.1	44.3	3.1	100.0(1,240)	
18세 이상 자녀	4.3	48.2	43.7	3.8	100.0(865)	

*** $p < .001$

4)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의 47.4%가 ‘비교적 적극적 참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소극적 참여’에 30.9%, ‘거의 참여치 않음’이 14.9%, ‘매우 적극적 참여’가 5.7%를 차지했다.

연령별 특징을 살펴보면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인 16.2%로 ‘매우 적극적 참여’라고 응답했으며 51.4%가 ‘비교적 적극적 참여’로 응답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에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의 비율이 높았으며, ‘소극적’ 혹은 ‘거의 참여치 않음’의 응답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경제수준별 특징을 살펴봤을 때 중상 이상 9.5%, 중 6.2%, 중하 4.4%, 하 3.5%가 ‘매우 적극적 참여’라고 응답했으며, 각 경제수준 집단별 60.0%, 49.4%, 43.7%, 32.6%가 ‘비교적 적극적 참여’한다고 응답함으로써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특징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5.1%, 전문대학 졸 5.6%, 대학교 졸 6.3%, 대학원 졸 7.3%가 ‘매우 적극적 참여’라고 응답했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에 더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V-2-16〉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

단위: %(명)

구 분	매우 적극적 참여	비교적 적극적 참여	소극적 참여	거의 참여치 않음	전혀 참여치 않음	계	$\chi^2(df)$
전체	5.7	47.4	30.9	14.9	1.1	100.0(2,963)	
연령별							
20대	16.2	51.4	21.6	9.5	1.4	100.0(74)	41.1(12)***
30대	7.3	48.5	29.7	13.1	1.4	100.0(1,125)	
40대	4.1	46.9	32.0	16.3	0.7	100.0(1,411)	
50대	4.5	44.8	32.9	16.4	1.4	100.0(353)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9.5	60.0	26.4	3.6	0.5	100.0(220)	95.3(12)***
중	6.2	49.4	30.7	12.4	1.2	100.0(1,552)	
중하	4.4	43.7	32.4	18.6	1.0	100.0(1,044)	
하	3.5	32.6	30.6	31.9	1.4	100.0(144)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5.1	42.1	33.9	17.6	1.4	100.0(1,236)	60.0(12)***
전문대학 졸	5.6	46.1	29.2	17.6	1.5	100.0(647)	
대학교 졸	6.3	54.1	29.4	9.6	0.5	100.0(945)	
대학원 졸	7.3	55.3	25.2	12.2	0.0	100.0(123)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7.5	43.1	31.4	16.0	2.0	100.0(663)	6.1(4)
전업주부	5.6	46.2	33.0	14.0	1.1	100.0(904)	

*** $p < .001$

5)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인식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을 묻는 문항에서, 성별 특징을 보면 남성의 경우 38.5%가 경제적 어려움, 22.6%가 없음, 20.7%가 자녀와의 갈등이라고 응답했고 여성의 33.9%가 '경제적 어려움', 22.9%가 '자녀와의 갈등', 11.7%가 '없음'이라고 응답해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힘들어 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월 소득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11.8%, 200~299만원 15.0%, 300~399만원 14.5%, 400~499만원 19.3%, 500만원 이상 25.9%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음'이라고 응답했으며, 각 소득집단별 14.9%, 18.0%, 21.9%, 28.1%, 28.1%의 비율로 '자녀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모취업 여부별로 볼 때 모(母)가 취업주부인 경우 18.4%가, 전업주부인 경우 26.4%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주부의 경우 20.3%가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0~5세인 경우 12.6%가 , 6~11세인 경우 19.9%, 12~17세인 경우 25.9%, 18세 이상인 경우 28.2%가 '자녀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어렵고 힘든 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7〉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

단위: %(명)

구 분	없음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	시간 부족	배우자 무관심	교육 문제	직장 병행	계	$\chi^2(df)$
전체	16.8	36.1	21.9	7.8	1.1	8.4	8.0	100.0(3,031)	
성별									
남성	22.6	38.5	20.7	5.6	0.3	6.9	5.4	100.0(1,396)	120.3(6)***
여성	11.7	33.9	22.9	9.7	1.8	9.8	10.2	100.0(1,635)	
지역규모별									
대도시	17.3	37.8	23.7	6.7	1.1	6.9	6.7	100.0(1,487)	35.0(12)**
중소도시	15.7	34.4	20.8	8.5	1.1	10.4	9.0	100.0(1,328)	
군지역	19.4	34.3	16.2	11.6	0.9	7.4	10.2	100.0(216)	

구 분	없음	경제적 어려움	자녀와 의 갈등	시간 부족	배우자 무관심	교육 문제	직장 병행	계	$\chi^2(df)$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1.8	54.7	14.9	6.2	1.6	5.3	5.6	100.0(322)	208.3(24)***
200~299만원	15.0	42.5	18.0	7.3	1.8	8.7	6.6	100.0(905)	
300~399만원	14.5	39.5	21.9	8.3	0.9	7.8	7.0	100.0(881)	
400~499만원	19.3	22.1	28.1	7.8	0.4	11.3	10.9	100.0(512)	
500만원 이상	25.9	17.5	28.1	9.4	0.5	7.6	11.1	100.0(406)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10.4	34.9	18.4	6.6	1.8	7.6	20.3	100.0(723)	165.0(6)***
전업주부	12.8	33.2	26.4	12.2	1.8	11.5	2.1	100.0(912)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20.2	31.6	12.6	18.3	1.3	4.9	11.2	100.0(903)	
6~11세 자녀	14.3	37.9	19.9	8.3	1.2	8.8	9.7	100.0(1,183)	-
12~17세 자녀	14.7	40.0	25.9	3.0	0.7	9.6	6.0	100.0(1,241)	
18세 이상자녀	14.4	41.4	28.2	1.4	1.0	10.2	3.4	100.0(864)	

** $p < .01$ *** $p < .001$

VI. 한국인 자녀 양육관의 특징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자녀양육관이 가진 특징이 어떠한 것인지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고자 한다. 먼저 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내적 가치관들 즉, 양육에서 강조하는 가치(양육가치), 아동관, 교육관 등에 따라 자녀 가치의 인식, 양육신념, 자녀기대가 어떻게 다르고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자녀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부모집단의 특징은 어떻게 다른지, 양육관의 각 하위 개념별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떠한지를 함께 정리해 볼 것이다. 더불어 연구결과에서 추리될 수 있는 시사점을 추출하여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부모의 가치관에 따른 양육관의 특징

앞의 V장에서 분석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해 우리나라 부모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가치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우리나라 부모사이에는, 가족이나 사회, 국가 등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중심적 가치보다는 자신의 행복, 능력추구 등을 우선으로 지향하는 개인중심적 가치를 자녀에게 심어주고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개인주의지향]

둘째,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적 성장에는 자녀가 타고나 재능이나 성향보다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와 자라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환경중심주의 아동관]

셋째, 우리나라 부모들 중에는, 명문대 진학 등 학업적인 성취를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것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흥미지향 교육관]

넷째, 우리나라 부모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주도하여 이끌어주기 보다는 자녀가 주도하고 부모는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아동중심 교육관]

이 같은 부모의 특징은 그들의 자녀가치에 대한 인식, 양육신념, 자녀기대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V장의 조사자료를 이용해 다

음과 같이 다른 차원에서 재분석을 해봄으로써 가능해진다. 각각 가장 뚜렷하게 집단간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을 중심으로 특징을 제시하였다.

가. 자녀가치 인식의 특징: 성취지향 교육관과 도구적 자녀가치

자녀가 가지는 가치를 ‘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등 세 가지로 보았을 때, ‘도구적 가치’에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부모가 되어야 집안에서 위치가 분명해지고 인정받기 때문에, 늙었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혹은 신체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의 이유가 포함되고, ‘사회적 가치’는 아이가 있음으로써 책임감이 증가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노동력 제공과 저출산 위기 극복 등 사회에 공헌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정서적 가치’는 아이가 있으면 노년기에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원만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자녀가 필요하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즐겁기 때문의 이유가 포함된다.

이 중 어느 가치관을 막론하고 정서적인 자녀가치를 크게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집단중심’이나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응답자들은 자녀가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아동관이나 교육관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즉, 환경보다는 유전·성숙을 중시하는 아동관을 가진 사람들과 명문대 진학을 중시하는 성취 지향적이고 부모중심적인 교육관을 지닌 사람들이, 자녀가 가진 도구적 가치 즉, 자녀로부터의 보상에 큰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가치의 인식 비교

단위: %(명)

구 분	도구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4.4	28.5	67.1	100.0(1,461)	0.5(2)
개인주의 지향	4.4	27.4	68.2	100.0(1,582)	
아동관					
성숙주의	6.7	27.0	66.3	100.0(614)	9.5(2)**
환경주의	3.8	28.1	68.0	100.0(2,431)	
교육관 I					
성취 지향	8.7	27.6	63.7	100.0(391)	19.8(2)***
흥미 지향	3.8	28.0	68.3	100.0(2,652)	
교육관 II					
아동 중심	3.4	29.6	67.0	100.0(2,134)	21.6(2)***
부모 중심	6.5	24.1	69.4	100.0(906)	

** $p < .01$ *** $p < .001$

나. 양육 신념의 특징

1) 성취지향 교육관과 자녀의 자유탐색 격려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제재하지 않아야 자녀가 기가 죽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자유탐색 격려’에 대한 의견)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가치관은 부모가 성취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졌는지 흥미 지향을 추구하는지라는 측면이었다. 부모가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중시하는 성취지향적 교육관을 가졌고 교육과정에서 자녀주도적이기 보다는 부모주도적인 경향을 지닌 경우에, 자녀의 자유탐색을 더욱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두는 것이 자녀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히려 자녀 행동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은 자녀의 흥미를 중시하고 자녀주도적 교육을 강조하는 부모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르게 보면, 자녀의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일수록 자녀 행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학업적 성취’를 강조하는 집단의 56%가 자유탐색행동에 대해 제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데 비해, 자녀의 ‘흥미’를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과반수(54.6%)가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였다.

〈표 VI-1-2〉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1: 자유탐색격려^{주)}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5.1	40.9	42.7	11.3	100.0(1,790)	1.0(3)
개인주의 지향	5.1	42.5	41.6	10.8	100.0(1,954)	
아동관						
성숙주의	3.3	43.3	41.3	12.1	100.0(751)	7.3(3)
환경주의	5.5	41.4	42.4	10.8	100.0(2,996)	
교육관 I						
성취 지향	4.8	51.2	34.9	9.1	100.0(496)	21.5(3)***
흥미 지향	5.1	40.3	43.2	11.4	100.0(3,249)	
교육관 II						
아동 중심	4.9	40.4	42.9	11.9	100.0(2,623)	10.6(3)*
부모 중심	5.4	45.0	40.4	9.2	100.0(1,119)	

* $p < .05$ *** $p < .001$

주: ‘아이가 원하는 것은 되도록 제재하지 않아야 기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임.

2) 성취지향 교육관과 과다애정 경계

사람들 간에는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아이의 버릇이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과도한 애정표현에 대한 경계’라고 칭할 때 부모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VI-1-3>). 특히 명문대 진학을 중시여기는 성취지향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57.1%).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는, 자녀 주도보다는 부모가 이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모 중심’ 교육관을 가진 경우에 아동 중심 교육관을 가진 부모보다는 과다한 관심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 외에도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가치관을 가진 경우 과다애정 경계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성숙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경우 너무 많은 관심과 애정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VI-1-3>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2: 과다애정경계^{주)}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9.9	46.0	35.4	8.7	100.0(1,790)	10.7(3)*
개인주의 지향	8.7	42.2	40.2	9.0	100.0(1,953)	
아동관						
성숙주의	7.6	40.5	40.1	11.9	100.0(751)	16.6(3)**
환경주의	9.7	44.9	37.4	8.0	100.0(2,995)	
교육관 I						
성취 지향	7.1	35.9	46.4	10.7	100.0(496)	24.8(3)***
흥미 지향	9.6	45.3	36.6	8.5	100.0(3,248)	
교육관 II						
아동 중심	9.5	45.8	36.1	8.6	100.0(2,622)	15.6(3)**
부모 중심	8.8	39.6	42.3	9.3	100.0(1,119)	

* $p < .05$ ** $p < .01$ *** $p < .001$

주)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버릇이 나빠진다’라는 입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 한 결과임.

3) 집단주의가치 지향과 엄격한 양육

자녀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물었을 때 특히 집단중심주의 또는 개인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부모의 가치관이 응답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중심가치관을 지향하는 부모가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부모보다는 자녀에게 엄격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는 비율이 높아 개인중심주의를 지향하는 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자녀 양육에서 훈육과 통제를 강조하는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중심주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던 전통사회에서의 자녀 양육이 보다 엄격하고 훈육과 통제를 강조했다라는 사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을 강조하는 아동관을 지닌 경우가 성숙을 강조하는 아동관을 지닌 경우보다 엄격한 양육방식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유전보다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는 철학을 가진 경우 자녀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통제하여 엄격히 대하는 경우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 관련한 가치관들은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표 VI-1-4>).

<표 VI-1-4>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3: 훈육 및 통제 강조^{주)}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19.0	52.5	24.9	3.5	100.0(1,789)	80.7(3)***
개인주의 지향	11.6	47.5	35.9	5.0	100.0(1,954)	
아동관						
성숙주의	14.0	48.3	31.4	6.3	100.0(751)	9.8(3)*
환경주의	15.4	50.3	30.5	3.8	100.0(2,995)	
교육관 I						
성취 지향	14.5	50.2	30.4	4.8	100.0(496)	0.5(3)
흥미 지향	15.2	49.9	30.7	4.2	100.0(3,248)	
교육관 II						
아동 중심	14.9	50.0	31.1	4.0	100.0(2,622)	2.2(3)
부모 중심	15.6	49.8	29.7	4.9	100.0(1,119)	

* $p < .05$ *** $p < .001$

주)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라는 입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된 결과임.

4) 집단주의가치 지향과 체벌

응답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체벌에 동의하는 신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특히 집단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부모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에 체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숙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아동관을 가진 부모와 성취보다는 흥미를 중요시하는 부모의 경우에 체벌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아이를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42.0%의 가장 높은 비율로 ‘매우 찬성’에 응답했고, 유전보다는 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집단에서 38.4%, 흥미지향 교육관을 가진 집단에서는 38.6%가 자녀에 대한 체벌 허용에 강한 동의를 표하였다.

〈표 VI-1-5〉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양육방식 비교4: 체벌 허용

단위: %(명)

구 분	매우 찬성	조금 찬성	조금 반대	매우 반대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42.0	50.5	6.5	1.0	100.0(1,790)	43.7(3)***
개인주의 지향	32.4	56.5	9.1	2.0	100.0(1,953)	
아동관						
성숙주의	31.0	54.6	12.3	2.1	100.0(751)	34.3(3)***
환경주의	38.4	53.4	6.7	1.4	100.0(2,995)	
교육관 I						
성취 지향	26.1	58.0	14.1	1.8	100.0(495)	49.3(3)***
흥미 지향	38.6	53.0	6.9	1.5	100.0(3,249)	
교육관 II						
아동 중심	38.2	52.8	7.5	1.5	100.0(2,623)	7.2(3)
부모 중심	33.8	55.8	8.7	1.7	100.0(1,118)	

*** $p < .001$

다. 자녀 기대의 특징

1) 개인주의 가치지향과 높은 교육수준 기대

향후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은 수준에 대해 가치관이 차이나는 집단별로 분석하였

을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집단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부모와 개인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부모 간 대학원이상 교육수준에 대한 기대였다. 집단중심의 가치관을 지닌 부모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을 기대하는 비율이 과반수(53.9%)로, 46.7%의 개인주의 지향 부모와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대학원(석사 및 박사) 졸업을 기대하는 비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여 양육과정에서 집단보다 개인적 성취를 중요시하는 가치를 지닌 부모일수록 교육수준에 대한 열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슷한 경향이 아동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전과 성숙을 강조하는 아동관을 지닌 부모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을 기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모들은 대학원 진학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사학위보다는 박사학위를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성취지향이나 부모 또는 아동 중심 등 교육관에서의 차이는 자녀의 교육수준의 기대에서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의 교육수준 기대

단위: %(명)

구 분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0.6	2.6	53.9	15.9	27.0	100.0(1,166)	25.2(4)***
개인주의 지향	0.3	1.1	46.7	17.4	34.4	100.0(1,183)	
아동관							
성숙주의	0.6	1.8	54.5	18.0	25.1	100.0(494)	9.5(4)*
환경주의	0.4	1.9	49.2	16.3	32.2	100.0(1,857)	
교육관 I							
성취 지향	0.7	0.7	47.1	21.6	30.1	100.0(306)	8.9(4)
흥미 지향	0.4	2.1	50.7	15.9	30.8	100.0(2,044)	
교육관 II							
아동 중심	0.6	1.7	50.0	16.5	31.2	100.0(1,651)	3.1(4)
부모 중심	0.1	2.0	51.2	17.0	29.6	100.0(695)	

주: 아들에 대한 응답만을 포함한 결과임.

* $p < .05$ *** $p < .001$

2) 성취지향 교육관과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

자녀(아들)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 양육에서 중점을 두는 가치와 아동관, 교육관이 모두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7〉).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집단주의 지향보다는 개인주의 지향 부모, 그리고 흥미중심 교육관보다는 성취지향 교육관을 지닌 부모의 경우로 조사되었다. 또 성격/태도가 훌륭하기를 바라는 기대치는 집단주의 지향 부모, 흥미중심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특히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는 양육환경을 강조하는 부모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이나 신체, 용모의 측면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기대는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지향부모와 자연적 성숙과 유전을 중시하는 아동관을 가진 부모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 자녀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며 특히 강조하는 측면이 뚜렷하게 차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7〉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능력^{주)} 기대

단위: %(명)

구 분	신체·용모	학업능력	예체능	성격태도	대인관계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11.6	17.8	2.4	35.9	32.3	100.0(1,166)	28.8(4)***
개인주의 지향	9.5	25.8	1.2	31.1	32.5	100.0(1,183)	
아동관							
성숙주의	13.6	23.3	2.8	34.6	25.7	100.0(494)	18.8(4)**
환경주의	9.7	21.4	1.5	33.2	34.1	100.0(1,857)	
교육관 I							
성취 지향	12.7	37.3	2.3	24.2	23.5	100.0(306)	58.1(4)***
흥미 지향	10.2	19.5	1.7	34.9	33.7	100.0(2,044)	
교육관 II							
아동 중심	9.9	21.4	1.8	33.1	33.9	100.0(1,651)	7.3(4)
부모 중심	12.1	22.6	1.9	34.8	28.6	100.0(695)	

주: 아들에 대한 응답만을 포함한 결과임.

p<.01 *p<.001

3) 자신감과 개인주의가치 지향

자녀(아들)가 갖추기를 바라는 소양을 묻는 문항에서는 많은 수의 부모가 ‘자신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8〉). 상대적 비교에서는 개인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부모집단, 유전·성숙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아동관을 지닌 부모집단, 자녀가 가진 소질이나 흥미보다는 명문대 진학 등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집단, 아동주도 교육보다는 부모주도 교육을 수행하는 부모집단에서 자신감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자신감’ 35.1%, ‘책임감’이 14.3%를 차지했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각각 44.6%, 13.2%를 차지해,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집단에서 자녀가 자신감을 갖추기를 바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의 항목에서 유전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35.8%, 환경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41.1%의 비율로 나타났다.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자신감’ 32.2%, ‘책임감’ 16.1%, 흥미를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각각 41.1%, 13.4%를 차지함으로써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동중심 집단에서는 ‘자신감’ 41.1%, ‘책임감’ 12.3%, ‘근면 성실성’이 10.1%였으며, 성인중심 집단에서는 각각 37.1%, 17.1%, 7.2%를 차지했다. 아동중심 집단에서는 자녀가 ‘자신감’을 갖추기 바라는 비율이, 성인중심 집단에서는 자녀가 ‘책임감’을 갖추기 바라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표 VI-1-8〉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소양 기대 비교

단위: %(명)

구 분	자신감	책임감	근면, 성실성	독립심	리더십	사회성	...	사례수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35.1	14.3	10.2	4.3	9.5	5.5	...	(1,164)
개인주의 지향	44.6	13.2	8.2	3.3	11.7	4.9	...	(1,183)
아동관								
성숙주의	35.8	14.4	10.9	3.6	9.5	5.1	...	(494)
환경주의	41.1	13.5	8.7	3.8	10.9	5.2	...	(1,855)
교육관 I								
성취 지향	32.2	16.1	8.9	4.9	12.5	4.3	...	(304)
흥미 지향	41.1	13.4	9.2	3.6	10.4	5.3	...	(2,044)
교육관 II								
아동 중심	41.1	12.3	10.1	3.9	9.6	5.5	...	(1,649)
부모 중심	37.1	17.1	7.2	3.5	13.2	4.6	...	(695)

주: 아들에 대한 응답만을 포함한 결과임,

4) 개인주의가치 지향과 전문직 직업 기대

자녀(아들)가 갖기를 바라는 직업을 묻는 항목에서 모든 집단별로 분석해봤을 때,

자녀가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가장 높아 각각의 집단에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특성별로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개인주의가치 지향 부모, 환경 중요성 강조 부모, 흥미보다는 성취를 강조하는 부모 집단의 경우 전문직을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의 소질과 흥미가 중요하다고 보는 교육관과 부모가 주도하기보다는 자녀가 주도하는 교육방법을 선호하는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가 예술가가 되기를 바라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직 다음으로는 ‘경영관리직’, ‘사무기술직’, ‘예술가’, ‘자영업’ 순으로 자녀가 직업으로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강조집단에서는 ‘경영관리직’ 19.4%, ‘사무기술직’ 18.6%를 차지했고, 개인주의 강조집단에서는 각각 21.8%, 1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과 성숙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경영관리직’ 19.4%, ‘사무기술직’ 17.8%였으며 환경을 강조하는 집단에서는 각각 20.9%, 15.5%를 차지해, 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9〉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직업 기대

단위: %(명)

구 분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직	예술가	자영업	...	사례수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18.6	19.4	53.9	2.8	1.7	...	(1,166)
개인주의 지향	13.4	21.8	58.8	2.8	1.3	...	(1,182)
아동관							
성숙주의	17.8	19.4	55.1	2.2	2.2	...	(494)
환경주의	15.5	20.9	56.7	3.0	1.3	...	(1,856)
교육관 I							
성취 지향	18.0	18.3	59.8	1.6	1.0	...	(306)
흥미 지향	15.7	20.9	55.8	3.0	1.6	...	(2,043)
교육관 II							
아동 중심	15.5	20.1	56.8	3.2	1.9	...	(1,650)
부모 중심	17.1	21.9	55.5	2.0	0.4	...	(695)

주: 아들에 대한 응답만을 포함한 결과임.

라.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 환경주의 아동관의 긍정적 영향

양육가치, 아동관, 교육관 등에 따라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와의 관계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유전과 성숙에 따라 아동의

발달이 결정된다고 보는 아동관(성숙주의)과 양육환경이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보는 아동관(환경주의)의 비교에서였다. 두 아동관 모두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대부분(95%이상)이었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응답에서 성숙주의 보다는 환경주의가 5%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발달과 성취가 유전과 성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보다는 양육환경과 주변인의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견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다 좋게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집단주의/개인주의 지향으로 구분되는 양육가치관이나 성취지향/흥미지향, 아동중심/부모중심으로 구분되는 교육관에 따라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양육에서 지향하는 가치관, 교육관 등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10〉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부모-자녀의 관계 인식

단위: %(명)

구 분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별로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26.4	70.0	3.4	0.2	100.0(1,489)	1.5(3)
개인주의 지향	24.5	71.8	3.5	0.3	100.0(1,555)	
아동관						
성숙주의	21.6	73.5	4.9	0.0	100.0(635)	12.3(3)**
환경주의	26.5	70.1	3.1	0.3	100.0(2,411)	
교육관 I						
성취 지향	21.0	74.8	4.0	0.2	100.0(404)	4.9(3)
흥미 지향	26.1	70.3	3.4	0.2	100.0(2,640)	
교육관 II						
아동 중심	25.4	71.2	3.1	0.2	100.0(2,134)	2.1(3)
부모 중심	25.5	70.1	4.2	0.2	100.0(907)	

** $p < .01$

마. 양육가치, 아동관, 교육관에 따른 자녀 교육 의식

1) 개인주의가치 지향과 해외원정출산

원정출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 집단주의의 89.6%와 개인주의의 81.2%가 ‘원정출산을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개인주의가치 지향집단이 집단주의

가치 지향 부모집단보다 높은 비율로 ‘원정출산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유전을 강조하는 집단에서 12.4%가, 환경을 강조하는 집단에서 15.4%가 ‘원정출산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학문적 성취를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18.1%로 흥미를 중시하는 집단 14.3%보다 높은 비율로 원정출산에 긍정을 표했다. 아동중심과 성인중심 집단에서는 ‘원정출산을 할 생각이 없다’에 각각 85.9%, 83.7%가 응답함으로써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1〉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해외원정출산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긍정적 반응	부정적 반응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10.4	89.6	100.0(1,790)	52.8(1)***
개인주의 지향	18.8	81.2	100.0(1,954)	
아동관				
성숙주의	12.4	87.6	100.0(751)	4.3(1)*
환경주의	15.4	84.6	100.0(2,996)	
교육관 I				
성취 지향	18.1	81.9	100.0(496)	5.1(1)*
흥미 지향	14.3	85.7	100.0(3,249)	
교육관 II				
아동 중심	14.1	85.9	100.0(2,623)	2.8(1)
부모 중심	16.3	83.7	100.0(1,119)	

* $p < .05$ *** $p < .001$

2) 성취지향 교육관과 조기외국어교육

외국어(영어, 한자)의 적정(체계적) 교육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든 부모 집단의 과반수 이상이 초등학교 이전이라고 응답하였다(〈표 VI-1-12〉). 그러나 특히 개인주의가치를 지향하는 부모들이 집단주의가치 지향 부모보다, 성취지향 부모가 자녀의 소질·흥미 지향 부모보다 취학전 외국어 교육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취지향적이고 개인주의지향적인 부모집단이 자녀의 조기 외국어교육을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시기에 대한 의견을 보면, 취학전 적정시기를 주장하는 부

모 중에서도 만5세가 과반정도를 차지하기는 하나, 개인주의가치 지향부모와 성취 지향 부모의 경우 20%가까이는 만4세가 적정기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개인주의가치 지향 부모는 만3세를 선택한 비율도 7.5%로 나타나, 유아기에 외국어(주로 영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이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표 VI-1-12〉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적정 외국어교육 시기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 2세	만 3세	만4세	만5세	초등 이후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0.4	1.3	5.8	14.1	31.0	47.4	100.0(1,786)	29.5(5)***
개인주의 지향	0.4	2.4	7.5	18.1	31.0	40.6	100.0(1,953)	
아동관								
성숙주의	0.4	1.5	6.4	13.6	34.9	43.2	100.0(750)	9.6(5)
환경주의	0.4	2.0	6.8	16.8	30.0	44.0	100.0(2,992)	
교육관 I								
성취 지향	0.4	3.8	6.9	19.6	37.1	32.3	100.0(496)	40.3(5)***
흥미 지향	0.4	1.6	6.7	15.7	30.0	45.7	100.0(3,244)	
교육관 II								
아동 중심	0.4	1.8	6.9	16.0	30.5	44.4	100.0(2,619)	2.3(5)
부모 중심	0.4	2.1	6.3	16.5	32.2	42.6	100.0(1,118)	

*** $p < .001$

3) 개인주의가치 지향과 자녀 조기유학

자녀를 조기유학을 보낼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부모가 가진 가치관이 응답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주의가치 지향 부모가 집단주의가치 지향 부모보다는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성취지향적인 부모가 자녀의 흥미 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보다는 조기유학 의향이 높았다. 따라서 자녀의 조기유학에 대해서도 조기 외국어 교육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시 중점 지향 가치와 교육관이 응답경향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동관이나 자녀주도/부모주도 관련 교육관은 조기유학에 대한 의견에서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13〉 양육가치/아동관/교육관에 따른 자녀 조기유학 의향

단위: %(명)

구 분	반드시 보낼 것이다	가능하면 보낼 생각이다	보낼 생각이 없다	계	$\chi^2(df)$
양육가치					
집단주의 지향	1.2	19.2	79.6	100.0(1,790)	26.4(2)***
개인주의 지향	1.5	26.1	72.4	100.0(1,954)	
아동관					
성숙주의	1.3	21.4	77.2	100.0(751)	1.0(2)
환경주의	1.3	23.1	75.5	100.0(2,996)	
교육관 I					
성취 지향	1.6	27.2	71.2	100.0(496)	6.9(2)*
흥미 지향	1.3	22.1	76.6	100.0(3,249)	
교육관 II					
아동 중심	1.1	22.4	76.5	100.0(2,623)	4.5(2)
부모 중심	1.9	23.7	74.4	100.0(1,119)	

* $p < .05$ *** $p < .001$

2. 집단에 따른 양육관의 특징: 포커스 집단 면접을 중심으로

이 절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포커스 집단의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제1차 면담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모(母) 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2차 면담은 미혼인 성인 남녀 6명, 그리고 제3차 포커스 집단 면담은 영유아를 자녀로 둔 모(母) 6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각 집단 면담에서 논의된 자녀 양육관련 내용을 구별되는 주제별로 묶어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가. 초등학생 부모 집단

대도시의 오래된 주택지역 내 재건축된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지역내 작은 음악 동호인 집단 소속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피아노 레슨을 같이 받는 평범한 지인관계들이었다. 총 6명 중 1명은 고등학교 교사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5명은 전업주부로 모두 5~12세의 자녀를 1~2명씩 키우고 있었다. 참석자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다음 <표 VI-2-1>와 같다.

〈표 VI-2-1〉 제1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참석자	연령	성별	학력	자녀 현황
A	38	여	대졸	10세(남), 8세(남)
B	37	여	전문대졸	8세(남), 6세(여)
C	37	여	대졸	8세(남)
D	38	여	전문대졸	11세(남), 8세(남)
E	41	여	대학원졸	11세(남)
F	39	여	대학원졸	9세(여) 6세(남)

1) 자녀기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

장래에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일 먼저 나온 대답은 자녀가 장래에 ‘사(士)’자가 붙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B씨의 솔직한 응답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인 지금 자녀의 학업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의사, 판검사, 교수 등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을 하고 활동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바랐다. 특히 이는 아들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말을 덧붙였고 딸은 그저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을 한 경우는 한 사람뿐이었고 나머지 A, C, E는 무엇을 하든 즐기면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다른 차원의 응답을 하였다. 이 경우 면담자들은 특정한 직업을 거론하여 언급하기를 피했고 자녀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밀어 줄 것이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는 데 부모의 역할을 둔다고 말했다. 학원이나 학습지 등 학습면의 지도를 하는 것도 부모가 선두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끌어가는 일이라기보다는 옆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외의 유형으로 D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삶, 함께 더불어 살며 나누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응답을 하였다. 이 경우는 D씨 자신이 대부분의 생활을 봉사하며 보내고 거기에서 만족감과 생의 가치를 찾고 있었다. 자신의 이러한 삶을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 봉사하는 장소에 자녀들도 데리고 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을 자녀가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진 삶에 대한 자세와 기본적인 태도가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예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요컨대, 포커스 집단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초등학생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은 1)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삶, 2) 자녀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즐기면서 사는 삶, 3) 사회와 타인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삶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양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 사회성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여 항상 강조하고 키워주고 싶은 가치나 성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은 '사회성'이었다. 사회성 계발을 위해 6명 중 2명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놀이 집단에 주기적으로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자녀가 하나나 둘인 가정(C, D)이므로 자녀의 관계집단을 만들어 주는 부모의 노력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우에 대해 다른 참여자들은 아직 그들의 자녀가 저학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며 놀이집단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놀이집단이라는 모임은 생각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여자가 제시한 가치로는 올바른 판단력 키우기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 주관이 뚜렷한 사람 되기 등이 있었으며, 살면서 너무 위만 보며 욕심을 갖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초등학생이 되면서 첨가된 덕목으로 경제관념을 키워줘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고 사회 속에서 어울리며 살아가고 인간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은 6명 중 4명이 동의한 '사회성'이었다는 점은 현대 사회에서 소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작게는 학교에서, 크게는 전체 사회 속에서 자녀의 고립을, 그리고 부적응을 가장 염려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는 자녀가 남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열망까지도 가늠해 보게 한다. 제일 마지막에 A는 우리 연구에서 사용할 설문지 초안을 보고 부모가 자녀에게 강조하는 가치 덕목의 나열에 '리더십'이 빠졌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으므로 부모가 가진 자녀의 사회성 계발이라는 숙제에서는 리더십(지도성)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양육에 대한 기본적 신념: 자신감을 길러주는 양육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신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해 많은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동기를 진작시켜주고 꾸준히 지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인내심을 갖고 부모는 자녀가 이해할 때까지 일일이 가르쳐야 하며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부모로서의 주요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에게 있어 자녀는 결정과 판단이 필요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1순위의 중요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머니인 자신보다 배우자인 남편보다도 자녀의 요구와 성장과 성공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두 번째의 입장은 이와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위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 부모들은 개인주의를 넘어서 전체를 생각하며 그 속에서 더불어 살기를 가장 바라고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것으로 믿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녀보다는 어머니인 자기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중요한 순간 일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우세하며 더불어 배우자의 입장도 두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성을 지녔다고 했다. 자녀의 입장이나 상황도 매우 중요하지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다음에 놓이며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활동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부모의 역할을 그야말로 자녀 성장에 있어 앞서 이끌어주기 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옆에서 보조해주는 정도로 생각하였다.

나. 미혼 성인 남녀 집단

대도시 한 대학교의 캠퍼스 내에서 대학원과정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성인 남녀 6명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범 대학 대학원에 소속되어 윤리교육, 교육사회학,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대학원 입학전 일반 사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한 경력을 가졌고 2명은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교사였다. <표 VI-2-2>은 참석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표 VI-2-2> 제2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참석자	연령	성별	학력	경력·직업
G	30	여	대학원졸	리서치회사 근무
H	29	여	대졸	초등학교 교사
I	28	여	대졸	.
J	31	남	대졸	어린이집 교사
K	31	여	대학원졸	연구소 근무
L	29	남	대졸	중등학교 교사

1) 결혼 및 자녀 계획: 2명의 자녀 선호

면담 참석자 중 3명은 2~4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3명은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남성인 J는 아직 결혼을 막연히 생각하여 결혼해 살 자신이 없다고 하고 여성인 H와 I, 또 다른 남성인 L은 결혼과 자녀 양육을 연결지어 사회생활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가장 걱정스러워 했다. 반면 G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으나 상대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상황에 있었다. 또 K는 스스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조건을 갖춘 후 혼자 사는 삶을 동경했다. 그러면 서도 늙은 후 외로움을 생각해 결혼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래에 계획하는 자녀의 수에 대해서는 참석자 중 4명이 **2명**이라는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2명은 1명의 자녀만을 기르고 싶다고 했다. 2명의 자녀를 희망하는 경우는 자녀가 혼자이면 너무 외로울 수 있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으며 형제-자매라는 수평적 관계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1명을 원한다고 응답한 참석자들은 일하는 여성으로서 직업에서의 자기 성취와 양육을 모두 다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한 명만을 낳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자녀가 한 명일 때 아이가 추구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생활이 여유로울 것이라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도 언급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명을 양육하고 싶다는 참석자들은 자녀를 둘러싸고 있을 관계적 환경과 가족, 또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인성발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겠다는 입장은 자신의 성취와 양육이 맞물렸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해 가기가 어렵고 여성이 부담해야 할 양육에 따른 희생이 많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학력 여성이고 자아성취욕이 높더라도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지겠다는 생각은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의 가치: 정서적·관계적 가치 중시

왜 자녀를 낳을 것인지, 자녀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질문 자체에 놀라는 반응을 하였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해 왜 그런지 의문시 해 본적이 없다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결혼과 양육은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 고정관념이기도 하다는 생각들이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당연하다고 답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낳

아 기르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입장 이외에는 자녀가 삶의 활력소이기도 하고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으며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역할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영향을 주기보다는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제시되었다.

미혼의 성인 남녀 참석자들이 가진 기본적인 자녀 가치에 대한 생각은 자녀 자체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가치를 가지며, 부모는 자녀를 통해 행복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3) 자녀에 대한 기대: 독립심, 자율성 기대

부모가 될 자기 자신이 자라온 환경, 특히 자신의 부모님이라는 배경적 관계가 앞으로 자신이 가지게 될 자녀를 키우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모든 참석자가 동의하였다. 자신의 부모에 비추어 부모로서의 자신을 예측한 유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었다.

첫째, 자녀가 중심이고 모든 순위에서 우선시되며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환경 유형이 있었다. 여기에 속한 이들은 자아실현과 성취를 생애의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게 되고 본인이 중요하며 학교 전공 선택 등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자녀를 가지게 되더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이어 받아 자녀를 독립적,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활동이 많은 부모님 밑에서 상대적으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오히려 훈육을 강조하는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랐다는 유형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부모의 훈육과 기대에 얽매어 있어 독립적이지 못했고 양육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고 그것을 닮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경우 자녀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자녀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독립심을 키워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혼자들이었으므로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나 직업에 대한 기대 등은 언급하기가 힘들고 원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4) 자녀 양육의 힘든 점과 개선 요구

면담 참여자들이 자아 성취욕이 높은 미혼 집단이어서 육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과 이를 사회적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내었다. 따라서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사회 생활과 자녀 양육의 병행과 관련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를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육아를 지원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 휴가를 불편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후에는 불이익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직장 내 보육시설이 더 확보되어야 여성의 취업이 높아질 수 있고** 양육을 위한 가족이나 본인 부모의 또 다른 희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육아를 마음 놓고 부탁할 수 있는 장소가 확충되기를 기대하며 더불어 양육비가 줄어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지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셋째, **여성과 남성이 차등 없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교 등에서 학부모 모임이 더 이상 어머니 모임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성도 당연히 번갈아 육아 휴직을 해야 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다. 영유아 자녀 부모 집단

대도시 지역 오래된 주택지역의 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함께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어머니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석자의 인적 사항은 다음 <표 VI-2-3>과 같다.

<표 VI-2-3> 제3차 포커스 집단 면접 참석자

참석자	연령	성별	학력	자녀 현황
M	33	여	고졸	9세(여), 5세(남)
N	35	여	대졸	4세(남), 3세(여)
O	35	여	대졸	6세(남), 4세(남), 3세(여)
P	39	여	대학원졸	4세(남), 4세(여)
Q	36	여	고졸	10세(여), 5세(남)
R	36	여	대졸	5세(남)

1) 자녀 가치: 정서적 가치 중시

영유아를 키우는 모(母)들의 특징은 **자녀가 주는 기쁨**을 최대한으로 크게 표시한다는 점이다. 자녀를 키우는 가치나 양육의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온 반응은 모두 현재의 시점에서 자녀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열거하였다. 요약하면, 자녀가 주는 기쁨이 크고 자신의 자녀가 커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또한 기쁨이라고 했다. 또한 자녀를 돌보면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고 자녀와 함께 세상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응답하였다. O씨는 여아를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셋째를 낳았으며 세 자녀를 키우는 기쁨은 더 크다고 하였다. 반면 힘든 점이 많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특히 자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자녀가 있음으로써 가족 관계와 결혼생활이 원만하고 화기에 대해 지는 점에 여러 명이 동의하였고, 나이가 들수록 자녀가 정서적 의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었다.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게 되는 힘든 점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로 동의된 사항은 **경제적인 면에 대한 지적**이었다. 참석자 중 고소득 맞벌이 가정인 P를 제외하고는 월소득이 평균 300만원 정도인 이 포커스 집단은 아직 자녀가 어린 시기인데도 양육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자녀교육과 관련한 교재의 구입 등에 비용이 높다는 불만을 보였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부모 자신의 육체적 고단함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세 자녀를 둔 모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와 집에서 혼자 키우기가 힘들어 아이들을 모두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아이의 건강, 안전 등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음과 부모의 기대나 속도에 자녀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얘기도 나왔다.

특히 시사점을 주는 내용은,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의 교육문제에 제일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정에 대한 확신이 없어 어렵고 의지해서 참고할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힘들어 한다는 점이다. 자녀를 몇 살부터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적당한지, 어떤 것은 꼭 가르쳐야 하는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발달에 큰 지장은 없는 것인지,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교재나 교구가 우리 아이에게 적당한지 등등 아이의 선택

가 불분명하고 재능적인 측면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유아기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결정해 주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이 없고 결정이 언제나 어렵다는 데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했다. 필요한 육아 정보나 양육 지침 등은 책을 통해 얻는다는 대답이 많았고 부모 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보육시설에서 형식적으로 한 1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자녀기대: 전문직, 딸에 대한 큰 기대

자녀에 대한 기대에서 이 포커스 집단의 특징적인 사항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기대가 다르며 여자 아이의 경우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갖기를 더 많이 기대한다는 데 있다. 집단 면담 참석자들이 모두 유아의 어머니였으므로 유아 아버지의 경우는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키 어려운 문제이나 참석자들은 이러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참석자들 중 R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아와 여아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녀 성별에 따른 자신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남아의 경우는 어떤 일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여아의 경우는 전문직을 갖게 키우고 싶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으며 여기에는 참석자 자신이 여성으로서 자아실현을 포기하며 살아온 삶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마음의 표출이 들어 있었다. 즉 여성인 자녀가 자격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을 가지게 되면 일을 포기하고 육아와 가사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 그나마 적어 질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여자 아이에게 교육적인 지지나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의견을 2명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1차 포커스 집단 면담 대상이었던 초등학교 부모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3. 양육관의 요소별 특징: 조사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양육관에 대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관의 각 하위요소별로 나타나는 응답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의 특징

1) 결혼의향이 없는 미혼 여성 10%

미혼 성인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 598명 중 7.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6%로, 10.3%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여성에 비해 비율이 낮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까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미혼 여성의 1/10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2) 향후 출산의향이 없는 미혼여성 13%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는 미혼 성인이 약 11% 가까이로 나왔고 여성은 13.1%가, 남성은 7.7%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을 즐기겠다는 의견(41.5%)이 가장 많았고 양육의 어려움도 20%를 차지하였다. 두 가지 이유 모두는 여성의 응답율이 높고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많이 들었다. 이를 통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일이나 관심사, 시간 등을 모두 희생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3) 미혼 성인의 자녀수 계획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짐

미혼자가 향후 결혼 후 자녀를 낳을 경우 **59.5%가 2명을 낳겠다고 하였고 1명을 낳겠다고 한 사람의 비율도 27.6%**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특히 경제수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2명을 자녀를 가지고 싶어 하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1명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자녀수를 계획하는 데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큰 관련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3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소득이 높을수록 2명의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현재 자녀가 없는 기혼자의 경우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는 없다고** 한 사람이 대다수(69.2%)였고 남녀 중에는 여아를 원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입양에 대해서는 17.4%의 미혼 응답자가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4) 젊은 부부세대일수록 1자녀 선호비율이 높음

본 조사에 의하면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1.92(표준편차 0.59)명으로 2명인 경우가 55.2%이고 한 명인 경우가 16.9%로 미혼 응답자의 앞으로의 자녀수 계획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더 이상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현재의 수에 만족한다는 것 외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는 연령에 따라 응답 차이를 분명히 보였는데, 20대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46.2%) 30대, 40대가 될수록 점차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대에 자녀가 1명인 비율이 62.2%인데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가량이고(52.7%) 이 중 46.2%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출산율 지원 정책의 주타겟이 되어야 할 집단이 어디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

5) 도시지역, 취업모가정일수록 양육관련 경제적 부담감 높음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사람 중 다자녀를 후회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경우는 11.9%로 조사되었고 이들 중 과반수인 59.0%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2명 이상 자녀를 낳은 것을 후회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여성은 15.5%, 남성은 7.8%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정도 많이 후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자녀 양육에 대한 현실적 책임이 크고 다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는 자녀가 전체 응답자의 63.8%로 조사된, 2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대 성인들이 가장 다자녀 키우기를 힘들어 하고 있었다. 다자녀에 대한 후회의 이유에서 도시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고 농어촌 군지역은 직장, 사회 생활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들었다. 이는 도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절대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도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분이 더 많다고 심리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도시의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적, 상업적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

취업주부인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자녀를 후회하였다는 비율이 전업주부집단(46.4%)보다 조금 더 높고 전업주부들은 양육의 육체적 어려움을 상당한 비율로 지적하였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간의 이러한 응답차는 눈여겨볼만

한다. 즉 한편으로는 취업주부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의 취업으로 대리 자녀양육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또한 짐작할 수 있다.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한 의견에서 농어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자녀 3명을 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대학원졸업자가 다른 학교 단위의 응답보다 3명의 자녀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 자녀 가치에 대한 의식의 특징

1)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출산의지 낮음

자녀 출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정도가 자녀는 꼭 낳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3.4%는 자녀를 낳지 않는 편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연령별로 뚜렷이 차이가 나는 바, **자녀를 꼭 낳는 것이 좋다는 입장은 20대의 경우는 40%정도였으나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높아서 50대는 61.1%였다.** 이는 세대별 차이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출산을 당연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취업주부보다는 전업주부가 자녀출산의 필요성에 절대적 찬성을 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따라서 **자녀출산은 결국 경제적 수준과 여성의 취업, 이것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세대별 차이에 따라 의식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2) 자녀를 통한 노후 보상 인식은 낮아짐

자녀 가치에 대해서는 자녀 양육의 즐거움이나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정서적·관계적 가치'**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특히, 도구적 가치 중 **'대를 잇기 위해'**라는 응답은 남성이 여성보다 확연히 많이 선택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자녀에 대한 가치 의식이 다를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자녀를 통해 노후를 보상 받고자 하는 도구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를 갖는 의미가 세대별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이 도구적 가치에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자녀를 갖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사람들은 부모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 자유롭지 못함이나 직장생활 어려움 등의 이유보다는 자녀 양육 측면의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즉 자녀 양육 자체가 어렵다거나 양육비/교육비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갖지 않는 편이 좋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20대의 응답자는 양육측면의 부정적 가치보다 부모 개인 측면의 부정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자녀를 안 갖고 싶어했으나 그 외 30대 이상에서는 양육측면의 어려움이 자녀를 갖기 싫게 한다는 데 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표하였다. 따라서 **자녀를 갖지 않는 편이 좋다고 보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그러하다고 짐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육의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다. 자녀양육에 관한 의식의 특징

1)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에게 허용적이고 애정표현이 많음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자녀의 자유로운 행동에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제지를 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었으며 과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의견이 높았다. 이에 비해 20,30대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자녀에게 허용적이고 아이에게 많은 애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한 아이에게 엄격하고 훈육과 통제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50대가 가장 많은 찬성의사를 보였고 20대가 가장 많은 반대를 보임으로써 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도시지역 응답자 보다는 군지역의 사람들이 훈육하고 통제하는 양육방식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2) 고연령 세대일수록 영유아 자녀모의 취업에 부정적임

어머니의 취업과 양육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자녀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키워야 한다**라는 의식이 높고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에 보다 부정적인 의식이 강하였다. 한편 월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연령이 높은 세대와 비슷한 보수적 의식을 보였고 전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3) 가사·양육분담 의식에 남녀간 차이가 큼

가사와 양육의 책임을 부부가 동일하게 져야한다라는 의식은 여성은 61%정도가 강한 찬성을 보인데 반해 남성은 35%만이 적극적 찬성의지를 보여 남녀간의 의식차가 여전함을 알 수 있고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가사 및 양육분담에 적극적이거나 40, 50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찬성 의지를 보였다.

4) 취업모 50%가 출산후 직접양육을 원함

취업모가 출산할 경우는 응답자의 50%정도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라도 부모가 직접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남성이 더욱 그러한 생각이 강하였다. 20%정도가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기를 원했고 18%정도는 교육/보육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인적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10%로 나와 30%정도가 시설이나 개인을 통한 대리양육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보육(교육)시설 이용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정도를 보면 거의 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정도로 나왔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응답은 5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대 우리나라 아버지의 과반수이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가 젊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는 어느 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모교육이 더 많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5) 집단중심보다 개인중심 가치를 자녀에게 더 강조하게 됨

우리나라 성인들은 과거의 전통적 의식과는 달리 가족과 사회를 우선시하는 집단중심가치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개인중심가치를 더 많이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여성에게서 보다 높고 남성은 오히려 집단중심가치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집단중심가치를 지향하는 입장이 높았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중심가치를 더 많이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녀의 성공은 부모와 환경에 달려있음: 성인의 80%

아동의 성공적 성장과 성취는 타고난 능력보다는 양육되는 환경과 부모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80%였고 연령이 젊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적 영향을 크게 보고 있었다. 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이 환경결정적인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민이 교육 및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의 성공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매우 결정적이라는 의견이 45%에 이르렀고 이는 여성에게서,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를 키우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는 소득과는 관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녀를 부모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끌 수 있는 초등학생기에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교육적 노력과 시도를 모든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하고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 47%정도였고 소득과는 무관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이러한 신념이 강하였다.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의 대학졸업까지는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반수이상(62.6%)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도시지역, 저학력 부모일수록 학업 성취 강조 경향이 높음

자녀에 대해 학문적, 지식적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명문대 진학을 강조하겠다는 입장(13.2%)보다는 자녀의 흥미와 자질에 맞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입장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고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성취를 강조하는 의향이 높았고 대학원졸업 학력자 집단이 자녀의 흥미와 소질을 중시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주도해가는 아동중심의 교육관, 즉 부모가 이끌어가기 보다는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부모중심 교육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 주도의 교육관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학력이 낮은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더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자녀에 대한 기대의 특징

1) 아들에게는 사회적 역량, 딸에게는 신체적 우월성 기대가 큼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기대가 조금씩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들은 성격·태도와 리더쉽·사회성 등 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대 높았고 딸의 경우는 이 외에 신체적 측면, 즉 용모나 키, 몸매 등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기대가 높았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자녀에 대한 이러한 기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부모들은 특히 이러한 기대를 딸에게 지우고 있음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늘어선 지역일수록 신체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부모들은 아들이 자신감, 책임감, 리더쉽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었고 딸에게는 특히 예절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의식은 아직도 딸과 아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다르게 나타나도록 영향을 주는 듯하다.

2) 40%이상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학력을 기대함

자녀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기를 바라는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문대 이하를 졸업토록 하겠다는 비율은 3%도 되지 않았다. 자녀의 대학이상 졸업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의 연구나 외국의 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자라 전문직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고 사회의 리더층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다만 딸에 대해서는 평범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비율이 34%가량 되었으며 이는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는 45%까지 나와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 교육 및 사회변화 문제에 대한 부모 의식의 특징

1) 자녀 조기유학에 긍정적임: 부모의 25%

응답자의 15%정도가 자녀를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정도가 자녀를 조기유학 보낼 의지가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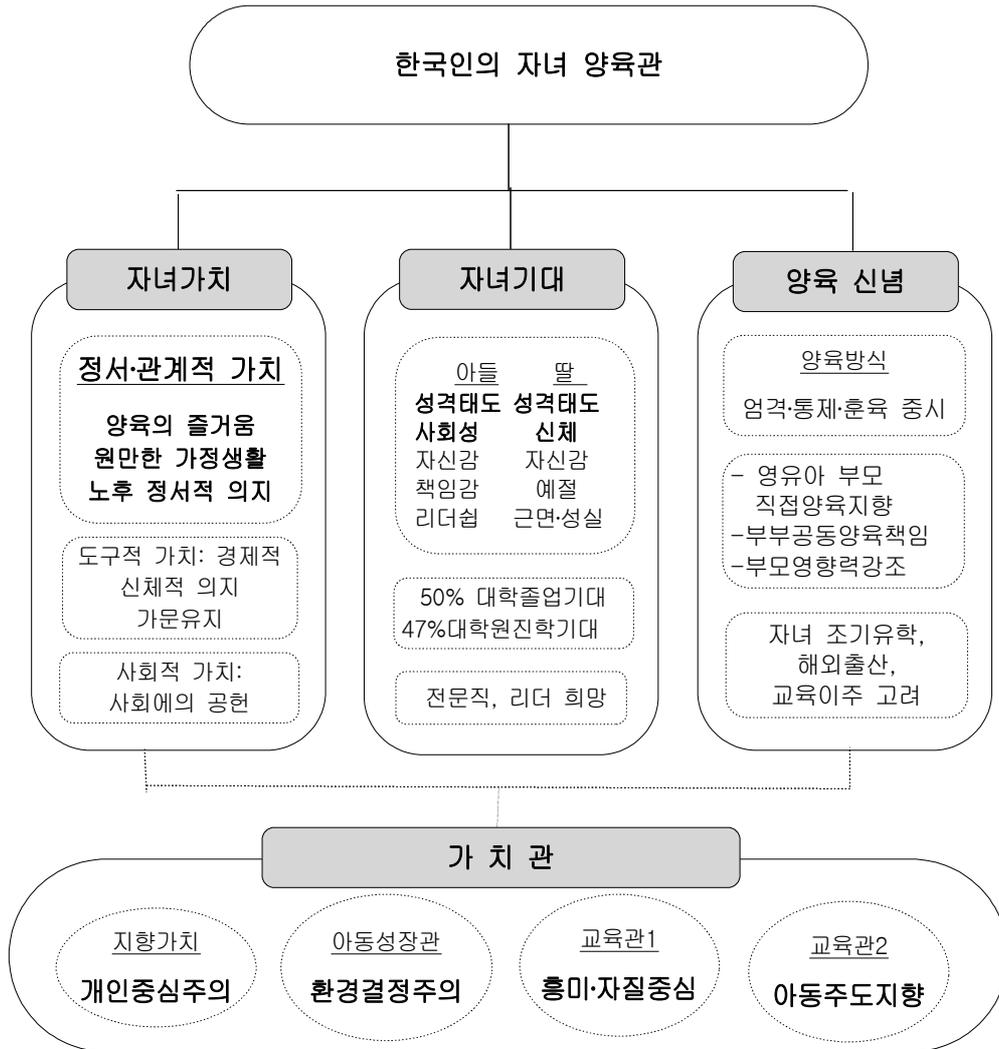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지역일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 향후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세대에서 우리나라 교육과 양육환경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보다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의식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교육과 증대되어 가는 외국유학생 비율 등에 연결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의 이주계획 비율 높음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사람이 39%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대도시가 아닐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더욱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이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적, 양육적 양질의 환경이 대도시나 일부 지역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다문화가정, 입양 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 높음

입양이나 이혼, 다문화가정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부모들은 이를 자녀와 연관시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다문화가정자녀나 이혼가정 자녀에 대해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교제를 반대하겠다는 의견이 30%를 넘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에 대한 차별의식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입양에 대해서는 22%정도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 상당히 개방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VI-3-1] 한국인 자녀 양육관의 특징

4. 연구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행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국가의 육아정책 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시사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정책 수립에서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며, 특히 둘째자녀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지원은 지금까지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서 주안점을 두어왔던 바이지만 본 조사의 결과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요구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절실하게 보여주었다. 즉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의 경우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2명보다는 1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말한 남성의 경우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현재 자녀를 둔 20,30대 기혼자인 경우도 더 이상의 출산을 바라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최우선 방향이며 특히 저소득층의 젊은 세대(20, 30대)에 대해 양육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처럼 셋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며 지원을 늘려가던 정책과는 달리 둘째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녀를 2명 갖겠다고 계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자녀 1명에 그치고 싶어한다. 이 때 경제적 수준이 중상인 사람에게 셋째 자녀 출산을 요구하기 보다는 경제력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며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출산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상적인 자녀수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60%가량이 2명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의 12%가 후회를 하였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논리는 수용되기 쉽지 않고 모든 가정에서 2명까지는 아무런 부담없이 키울 수 있다라는 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된다면 본 조사에 의한 1.9명이라는 가구당 평균 자녀수는 2점대 이상으로는 확실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는, 중상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2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2명 이상 자녀의 양육을 당연히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젊은 세대는 경제력이 불안하므로 1명 이상을 기르기가 힘들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타겟으로 둘째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

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부담 이외에 여성이 가지게 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는 조사 대상인 20~55세 미혼 성인 여성의 10%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미혼 여성도 11%였다. 다시 말해 전체 응답자의 19% 정도가 자녀 출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남성이 경제적 부담을 자녀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많이 지적한데 비해 여성은 자신의 개인적 삶이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41.5%) 양육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인식이 높았다(20%). 다시 말해, 직접 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여성의 경우 자녀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양육 자체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감은 사회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여성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의식이 없어져야 줄어들 것이다. 즉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녀 때문에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고 희생된다는 의식이 낮는데 여성도 남성도 동일한 정도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진다면 출산율의 제고는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취업 여성에게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보장해야하고 법적으로뿐 아니라 현실에서 직장과 사회는 여성이 박탈감 없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물론 가정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부부가 동등하게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 여성만이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취업여성이 아닌 전업주부의 경우 또한 양육이 힘들고 시간이 없음을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 비취업모도 자신의 시간을 가지고 양육 노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양육도우미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을 어디서나 손쉽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가격 또한 전혀 부담이 없어야 하고 택시를 이용하듯 양육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나 친지 등과 근거리에서 거주하고 싶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동경비지원, 전세자금지원 등이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육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 힘든 일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을 포기할 필요도 없으면서 보람은 느낄 수 있는 일이 된다면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줄어들 것이라 본다.

셋째, 취업모에 대한 차별적인 차등교육비·보육료의 지원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를 두 명이상 낳은 경우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그 이유를 경제적인 것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비취업모보다는 취업모들에게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 가정이 맞벌이인데도 경제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저소득층에 속할 만한데도 취업모이면 가정 내 소득은 높이 측정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함에도 차등보육료 대상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취업모의 소득이 자녀 보육이용료로 다 소비되어야 한다면 너무 불합리한 사태가 되므로, 취업모에 대해서는 차등보육료가 일반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준이 적용되어 저소득층 취업모에게 실질적인 보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육료지원 혜택이 골고루 '모든 영유아에게 무상을' 지향하기보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보다 우선적으로 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편이 좋겠다는 점이다. 영아의 경우 출산과 함께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전체 응답자 중 1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용희망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라도 부모가 직접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양육도우미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지원이 유아부터 무상을 지원하여 연령이 하향 확대되도록 하기보다는 보육재정이 저소득층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먼저 확대되고 점차 연령 상한되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때 유아교육이 무상을 지향하는 것은 영아 보육지원 확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다섯째, 자녀 출산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8%에 불과했다는 점은 영아를 보육시설로 무조건 끌어내겠다는 정책이 아직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는 취업모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18.7%). 태어난 영아의 20%이하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하고 이에 맞는 시설 수와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모를 포함하여 50%에 이를 정도의 응답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은 영아를 부모가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환경과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즉 육아휴

직이나 탄력근무제 등이 정착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서도 부모가 어린 자녀 양육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교육적으로 우수한 환경이 보편적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의 결과는 40% 정도의 응답자가 자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계획이라고 답하였고 이 중 50%정도가 보다 좋은 교육적 환경(학교, 학원 등)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수한 교육적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편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대도시 중심으로 양호한 교육환경이 집중되어 있어 어린 자녀의 부모들은 현재는 별 불만없이 살고 있더라도 앞으로 자녀가 자라면 옮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인구와 산업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적 인프라가 국가 어디에서나 보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국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1/4이 가능하다면 자녀를 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고 싶고 15%가 외국 국적을 위해 해외 출산을 할 수 있다고 한 통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고 다른 곳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소위 ‘기러기 아빠’라는 가족 해체적인 사태가 이제는 내 주변의 일이 되었고 유학을 통해 소비되는 외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최근의 신문기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내 조기유학생 수에 있어 1등이라고 보도하였다.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가족의 유지와 구성원 각자 인생의 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모와 떨어져 가는 조기유학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못된다. 이를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질적으로 우수한 공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애써야 할 것이고 국내 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경계를 두어야 할 시점이라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바로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다양하였으나 특히 자녀가 딸인 경우 신체적으로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율이 아들에

비해 높게 나왔다. 신체적인 외모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여전히 부모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지적 역량이나 사회적 역량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외모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 사회전반적으로 성형수술이나 성장주사 등 미용기술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가고 집중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만 외모에 대한 기대를 가짐으로써 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외모에 대한 기대가 온전히 나쁘기만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니나 편파적인 사고방식이나 사회적으로 과도한 외모집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문헌

-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89-106.
- 권용은(2003). 자녀가치에 대한 세대간 유사성과 상이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 어머니 할머니세대 집단간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용은·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유아교육, 13(1), 211-226.
- 권이중(1988). 한국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계몽아동연구소.
-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
- 김경동(1992). 교과서 분석에 나타난 유교가치관의 단편. 김경동 편,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변화의 경험적 추적. 서울: 박영사, 3-40.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43-65.
- 김규원(1995).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미숙·김의철·박영신(2007). 유아 부모집단의 자녀가치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유아교육, 제16권, 제4호
- 김의철, 박영신(1998). 한국인의 성공의식과 귀인양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김의철, 박영신(2006). 한국인의 자기 인식에 나타난 토착문화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1-36.
- 김의철·박영신·권용은(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총서1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오(1973). 부모의 자녀관, Research Bulletin, 제14집,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2005(4).
- 류혜령(1994). 전통 가정교육의 사회적 배경. 이계학, 류혜령, 손직수, 이홍우(공저).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22.
- 매일신문, 2007년 3월 9일자
- 문순덕(2007). 대학생과 부모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 인하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86). 자녀에 대한 가치관-어머니와 딸 두세대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
회지, 제24권 4호,
- 박영신·김의철(2004a).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
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김의철(2004b). 한국의 청소년 문화와 부모자녀관계: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김의철, 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와 성취에 대한 중단연
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박영신·김의철(2005). 한국인의 신뢰의식에 나타난 토착심리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집호), 21-55.
- 박영신·김의철, 탁수연(2002). IMF 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
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
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박혜인(1990).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가치관.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Ⅲ. 교문사.
- 부산일보, 2008년 3월 18일자
- 서병숙·김윤(1983).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
정관리학회지, 1(2), 127-138.
- 서은국(2007). 한국 청소년의 주요 생활경험과 행복감. 우리학생들은 행복한가?
2007년도 한국교육심리학회 연찬학술대회, 한국교육심리학회, 17-28.
- 설영숙(1977). 한국 부모들의 자녀관. 심리연구. Vol. 18.

- 오정숙·박영신·김의철(2007). 고등학생과 부모 집단의 자녀가치 인식에 대한 토착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4(2), 327-353.
- 옥선화(1992).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옥선화(2003). 20·30대 기혼남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지각수준과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집, 27-46.
- 이데일리, 2008년 3월 17일자
- 이삼식, 정운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순형(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간의 관계-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호)
- 이은주·민하영(2006). 부모의 양육가치와 양육신념이 유아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5권, 4호.
-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장진경(2005). 미혼남녀의 결혼관과 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3(11).
- 장혜경, 김인숙, 김태현, 김혜경, 변화순, 손승영, 은기수, 이미정, 이진숙, 장경섭, 정재훈, 정진주, 한경혜, 김영란, 나성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부.
- 정영숙·이선자(1980).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8, 25.
- 정현숙, 유계숙, 어주경, 전해정, 박주희(2002). 부모학. 서울: 신정.
- 천혜정(2004). 저출산 가정의 출산 행동 및 배우자 애착.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집 “저출산시대의 가정관리전략”, 1-12.
- 한웅덕(2006). 한국문화에서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5) 특집호, 45-79.
- 현은민(1994).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제1호.

- Arnold, F., & Fawcett, J.(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Honolulu: East West population Institute, East-West center.
- Berelson, B.(1973). *The value of children: A taxonomical essay*. A paper read at the Seminar on Child Rearing in Urban America at Harvard University.
- Fawcett, J. T., & Albores, S., & Arnold, F.(1972). *The value of children among ethnic groups in Hawaii: Exploratory measurement*, In J. T. Fawcett(Ed.), *The satisfaction and cost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Gardner, H. (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
- Hill, R.(1970). *Family development in three generations*, Cambridge: Schenkman.
- Hoffman, L. W. A.(1972).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the value of children to parents: Concepts and measures*. In J. T. Fawcett(Ed). *the satisfaction and cost of children: Theories, concepts, methods*.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Kim, U., & Park, Y. S.(2006).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al cultures: The role of self, relational and collective efficacy*. In F. Pajares & T. Urdan (Eds.), *Self-efficacy beliefs of adolescents*.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Kim, U., Park, Y. S., Kwon, Y. E., & Koo, J.(2005). *Values of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hange in Korea: Indigenous, cultural, and psychological analysis*.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65(3), 263-269.
- Kim, U., Yang, K. S., & Hwang, K. K.(2006). *Indigenous and cultural psychology: Understanding people in context*. New York: Springer.
- Lee, S. J., & Kim, J. O.(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Korea. Vol. 7. Honolulu. East-West Center.
- Peters, M., Seeds, K., Goldstein, A., and Coleman, N. (2007) *Parental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Survey* <<http://www.dcsf.gov.uk/research/data/uploadfiles/DCSF-RR034.pdf>> ,

Research brief: RB034, DCSF, May

- Trommsdorff, G.(2001). Value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 cross-cultural psychological study. Retrieved March 25, 2002, from University of Konstanz, Department of Psychology, Work Area Developmental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Website: <http://www.uni-konstanz.de/developmental-psychology/vocpsychologieaspects.pdf>.
- Trommsdorff, G., Zheng, G., & Tardif, T.(2002). Values of children and intergeneration relations in cultural context. In P. Boski, F. J. R. van de Vijver & A. M. Chodynicka(Eds.), *New direction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Selected papers from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ross-Cultural Psychology (581~60)*. Warszawa, Poland: Wydawnictwo Instytutu Psychology PAN.

부 록

1. 표집 대상 지역 및 표집가구수
2. 영국의 자녀 양육관 관련 자료
3. 설문지
4. 추가분석표

부록 1. 표집 대상 지역 및 표집가구수

행정구역명	20~55세 합계	지역가구수합계	계획표본	실제진행	차이(실제-계획)
전국(제주외)	2,820,911,3)		2000)	2105)	105)
서울특별시	624,993,2)	322,368,9)	443)	463)	20)
용산구	14,344,1)	0.0%	20)	22)	2)
동대문구	22,899,6)	0.1%	31)	33)	2)
성북구	28,384,8)	0.1%	39)	39)	-0)
노원구	36,430,5)	0.1%	50)	54)	4)
은평구	27,277,9)	0.1%	37)	37)	-0)
서대문구	20,903,5)	0.1%	29)	32)	3)
강서구	34,513,5)	0.1%	47)	47)	-0)
관악구	34,602,2)	0.1%	48)	49)	1)
강남구	35,367,7)	0.1%	49)	51)	2)
송파구	38,850,9)	0.1%	53)	59)	6)
강동구	28,794,2)	0.1%	40)	40)	0)
부산광역시	211,805,5)	90,094,1)	150)	156)	6)
부산진구	24,041,9)	0.3%	40)	41)	1)
북구	19,409,0)	0.2%	32)	33)	1)
해운대구	24,742,7)	0.3%	41)	45)	4)
사하구	21,900,5)	0.2%	37)	37)	0)
대구광역시	145,381,9)	87,462,9)	103)	106)	3)
북구	27,017,4)	0.3%	32)	34)	2)
수성구	25,296,2)	0.3%	30)	31)	1)
달서구	35,149,3)	0.4%	41)	41)	-0)
인천광역시	159,551,8)	83,203,4)	113)	124)	11)
남구	24,881,4)	0.3%	34)	41)	7)
부평구	34,453,4)	0.4%	47)	48)	1)
서구	23,868,6)	0.3%	32)	35)	3)
광주광역시	80,244,2)	44,470,4)	57)	63)	6)
북구	26,898,8)	0.6%	34)	38)	4)
광산구	17,571,6)	0.4%	23)	25)	2)

대전광역시	86,878,5)	44,223,9)	62)	66)	4)
동구	14,325,5)	0.3%	20)	22)	2)
서구	29,898,4)	0.7%	42)	44)	2)
울산광역시	66,041,4)		47)	49)	2)
남구	20,919,2)		47)	49)	2)
경기도	656,892,2)		466)	485)	19)
시부	641,271,9)	1.0%	455)	472)	17)
의정부시	24,741,9)		32)	34)	2)
안양시	37,780,6)		49)	53)	4)
부천시	53,231,8)		70)	73)	3)
평택시	22,995,8)		30)	33)	3)
안산시	42,687,1)		56)	64)	8)
고양시	53,719,6)		70)	61)	-9)
남양주시	28,345,5)		37)	39)	2)
용인시	46,120,7)		60)	63)	3)
파주시	17,203,3)		23)	23)	0)
화성시	21,773,8)		28)	29)	1)
군부	15,620,3)	0.0%	11)	13)	2)
여주군	5,763,5)		11)	13)	2)
강원도	82,227,7)		58)	62)	4)
시부	60,260,8)	0.7%	43)	45)	2)
강릉시	12,137,8)		43)	45)	2)
군부	21,966,9)	0.3%	15)	17)	2)
정선군	2,254,1)		15)	17)	2)
충청북도	83,215,1)		59)	63)	4)
시부	55,792,7)	0.7%	40)	44)	4)
충주시	11,156,9)		40)	44)	4)
군부	27,422,4)	0.3%	19)	19)	-0)
옥천군	2,708,6)		19)	19)	0)
충청남도	106,654,0)		76)	80)	4)
시부	72,811,5)	0.7%	52)	54)	2)
아산시	12,731,7)		52)	54)	2)
군부	33,842,5)	0.3%	24)	26)	2)

홍성군	4,343,9)		24)	26)	2)
전라북도	97,351,9)		69)	74)	5)
시부	80,995,5)	0.8%	57)	59)	2)
익산시	17,014,5)		57)	59)	2)
군부	16,356,4)	0.2%	12)	15)	3)
부안군	2,856,1)		12)	15)	3)
전라남도	96,075,8)		68)	71)	3)
시부	56,254,7)	0.6%	40)	41)	1)
순천시	14,488,9)		40)	41)	1)
군부	39,821,1)	0.4%	28)	30)	2)
영암군	2,894,5)		28)	30)	2)
경상북도	144,620,8)		102)	108)	6)
시부	117,260,4)	0.8%	83)	89)	6)
경주시	14,642,5)		32)	33)	1)
구미시	23,693,9)		51)	56)	5)
군부	27,360,4)	0.2%	19)	19)	-0)
영덕군	1,949,6)		19)	19)	0)
경상남도	178,977,3)		127)	135)	8)
시부	154,812,8)	0.9%	110)	117)	7)
마산시	24,480,8)		39)	43)	4)
진주시	18,497,9)		29)	32)	3)
김해시	26,870,5)		42)	42)	0)
군부	24,164,5)	0.1%	17)	18)	1)
합천군	2,441,1)		17)	18)	1)

부록 2. 영국의 자녀 양육관 관련 자료

<영국 런던대 Thomas Coram Center의 Iram Siraj-Blatchford 교수 인터뷰 내용>

“나는 가정내 가치가 많이 파괴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영국에는 당신네 한국처럼 유교전통이 없기 때문에 웃어른 공경이나 효도 등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호기심(curiosity)**을 많이 키워주려고 노력합니다. 호기심이 많으면 **독립심(independence)**도 키워질 수 있고 **도덕성(morality)**, **가족애(family love)**도 고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부모는 자녀들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많이 줄었어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다보니 더욱 그러하죠. 제 이웃에 한 여성이 있는데, 우리 집에 와서 집안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예요. 그 덕에 자녀가 둘 있는데, 같이 앉아 식사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니 아예 테이블조차 없어요. 자녀와 같이 보내는 가정 생활의 형태가 없어지고 달라지다보니 전통적인 가족구조 자체가 무너져 버렸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사회적·문화적 경험의 원천이 책이나 대화를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니라 TV와 연예인을 통해 얻어지고 있는 점도 이런 변화에 일조를 한 것이겠죠.

내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25년 정도 전에 비해 지금은 우리 사회에 중류층(middle class)이 굉장히 확대되었어요. 과거시대에 나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이었는데 이젠 50%이상이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의 10%정도가 노동자 계층의 매우 낮은 경제적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자녀 양육 체제(parenting system)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죠. 안좋은 집이 많아요 사실. 맞벌이가 는 데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으니... 사회적으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는 사회계층이나 인종, 성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지금은 3, 4세 이전의 유아교육의 효과가 전생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어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에 대해서는 전체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에 대한 교육(health education)에 중점을 두고 신체발달에 대한 검사와 교육과정을 수행해가고 있고 특히 출산부터 위험요소를 많이 가진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정 등에 정책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부록 3. 설문지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www.kicce.re.kr)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2008도 연구과제로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자녀양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전국의 2,000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 및 개인정보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8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 장 이 옥

조사원 기록 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조사원		조사일	2008년 월 일

먼저 귀하의 가족구성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다음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항은 20~55세의 가구원 중 한 분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가구주란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가구원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주말부부 등 포함), 기혼자의 경우 결혼이나 유학, 군대 등의 이유로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 12개월 미만의 아이는 만 0세로 적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에 대한 사항은 “①가구주”에 대해 가장 먼저 적어 주시고, 그 아래부터는 연령 순으로(나이가 많으신 분부터) 기입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1참조)	성별	연령	혼인상태 (보기2참조)	면접여부 (보기3참조)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만 ()세		
02			① 남 ② 여	만 ()세		
03			① 남 ② 여	만 ()세		
04			① 남 ② 여	만 ()세		
05			① 남 ② 여	만 ()세		
06			① 남 ② 여	만 ()세		
07			① 남 ② 여	만 ()세		
08			① 남 ② 여	만 ()세		
09			① 남 ② 여	만 ()세		
10			① 남 ② 여	만 ()세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 수		()명	20-55세 동거 가구원 수		()명	
가구 구성원 유형		① 부부 ② 부부+자녀 ③ 한부모+자녀 ④ (한)조부모+자녀 ⑤ 3세대이상 가구 ⑥ 부부+친인척 ⑦ 미혼가구(미혼+형제자매/친구 포함) ⑧ 독신가구(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⑨ 기타()				

(보기1)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2) 혼인상태	(보기3) 면접여부
① 가구주 ⑤ 부모/조부모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⑥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③ 자녀 및 그 배우자 ⑦ 기타 친인척 ④ 손자녀 및 그 배우자 ⑧ (비혈연) 동거인	① 미성년 ② 미혼 ③ 기혼 ④ 이혼/별거 ⑤ 사별	① 조사완료 ② 조사대상 아님 (연령제한) ③ 군입대, 유학 등으로 비동거 ④ 출장/타지역 거주 (주말부부 등)

시/도번호		지역번호		일련번호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조사지 (가구원용)

본 설문지의 질문들은 만 20~55세 사이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유무와 출산유무에 따라 질문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에 유의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 페이지에서 본인의 가구원 번호 기입 : ()
 ▶ 성별 : ① 남성 ② 여성 ▶ 연령 : 만 ()세

◆ 귀하의 결혼상태 및 자녀유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미혼인 경우  1페이지 문항부터 시작하십시오.
- ② 결혼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첫 아이 임신 중인 경우, 자녀 없이 이혼한 경우 포함)
 2페이지 문항부터 시작하십시오.
- ③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3페이지 문항부터 시작하십시오.

조사원 기록 사항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응답자 구분	성별	연령대	
	① 남 ② 여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5세

미혼인 경우

1. 귀하는 앞으로 결혼하실 생각입니까?

- 1) 1~2년 내에 할 계획이다
- 2) 언젠가는 할 생각이다
- 3) 하지 않을 것이다 (1-1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1,2번 응답자는 2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1-1.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 2)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 3) 결혼을 하면 자녀나 시댁, 처가 등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 4) 내 개인의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 5) 기타()

2. 만약 결혼을 한다면, 자녀를 가질 생각이십니까?

- 1) 그렇다 (2-1, 2-2, 2-3, 2-4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2) 아니다 (2-5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2-1. 자녀를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결혼을 하면 당연한 의무(역할)이기 때문에
- 2) 나의 핏줄을 이어가고 싶어서
- 3) 나와 배우자의 가족을 가지고 싶어서
- 4) 자녀가 있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
- 5) 기타()

2-5.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 2)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 3) 자녀보다는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
- 4) 부모로서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 5)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 6) 부모가 되기에 연령이 너무 많아서
- 7) 기타()

2-2. 몇 명의 자녀를 가질 계획이십니까?

- 1) 1명 (2-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2) 2명 (2-2-1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3) 3명 이상 (2-2-1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2-2-1.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에게 형제관계 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
- 2) 자녀가 외동이면 외로울까봐
- 3) 자녀가 외동이면 사회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 4) 자녀가 많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해지므로
- 5) 다양한 성별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 6) 기타()

2-3. 선호하는 자녀의 성별이 있습니까?

- 1) 남아
- 2) 여아
- 3) 없다

2-4. 자녀를 가지려고 계획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시험관시술을 해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할 것임
- 2)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포기하겠음
- 3) 입양하겠음
- 4) 기타()

2, 3페이지는 답하지 말고 4페이지로 바로 가십시오.

7-2.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정도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2) 양육비나 교육비 등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3) 아이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4) 아이가 있으면 직업을 갖기 힘들고, 직장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5) 아이가 있으면 배우자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6)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부사이에 갈등과 긴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7) 아이에게 충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8) 아이의 안전이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8.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이가 원하는 것을 되도록 제재하지 않아야 기가 꺾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 부모가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아이는 버릇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3)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엄격하게 대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아이를 사랑한다면 잘못할 때는 매를 들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5)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본다면 꾸짖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9.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 표 해 주십시오.

항 목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아무래도 자녀가 어릴 때(만5세 이전)는 어머니가 집에 있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②	③	④
2)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 본연의 모습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3) 취업을 한 어머니도 전업 주부 어머니만큼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과 여성은 가사와 양육에 대해 동등한 정도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주어진 두 개의 문장 중 귀하의 솔직한 생각에 보다 더 가까운 것을 선택하여 √표 해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1) 아동의 발달적 성취는 타고난 유전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input type="checkbox"/> 2) 아동의 발달적 성취는 자라나는 환경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된다
<input type="checkbox"/> 1)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 지도하여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input type="checkbox"/> 2) 자녀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찾아 자질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input type="checkbox"/> 1)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는,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1)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input type="checkbox"/> 2) 부모도 자신의 삶이 있으므로, 자녀 때문에 본인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input type="checkbox"/> 1) 부모가 키워주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 자녀는 나중에 보답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2) 키워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이므로 자녀가 보답할 필요는 없다

14. 자녀의 성장에 부모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 1) 자녀의 성장과 성공은 부모가 어떻게 키우고 지원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 2)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성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3)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일 뿐이다.
- 4) 자녀의 성장과 성공에 부모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 귀하의 경우,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 1) 대학 입학 전까지
- 2) 대학 졸업까지
- 3) 취업하기 전까지
- 4) 결혼할 때까지
- 5) 결혼 후 10년 정도(기반 안정될 때)까지
- 6) 평생 동안

다음은 출산 및 양육 관련 문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16. 귀하는 원정출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출산이란, 한 국가 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국적을 주는 국지주의원칙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외국에 가서 출산을 하고 그 나라 국적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가 국지주의에 속합니다.)

- 1) 할 수만 있다면 원정출산을 하고 싶다 (이유: _____)
- 2) 원정출산을 할 생각이 없다 (이유: _____)

17. 자녀에게 한글, 외국어, 수리, 예능 등을 처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만2세 이전	② 만2세	③ 만3세	④ 만4세	⑤ 만5세	⑥ 초등학교 취학이후
1) 한글	①	②	③	④	⑤	⑥
2) 외국어(영어, 한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3) 수리(수학적 개념, 연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4) 예능(음악, 미술, 체육 등)	①	②	③	④	⑤	⑥

18. 피아노나 미술, 운동 등 예체능 조기교육(취학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에 표 해 주십시오.

- 1) 조기 예체능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 2)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 3) 기본적 소양과 취미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 4) 장차 학교성적이나 내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 5)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
- 6) 아이 인성, 창의성 등 전인발달에 필요하다.
- 7) 기타()

19. 조기유학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조기유학이란 대학입학 이전에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를 말하며 단기와 장기유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 1) 반드시 내 자녀는 조기유학을 보낼 것이다 → (19-1번에 답해 주십시오)
- 2) 가능하면 내 자녀는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다 → (19-1번에 답해 주십시오)
- 3) 조기유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 → (19-2번에 답해 주십시오)

19-1. 조기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의 외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 2) 자녀를 외국 대학에 보내기 위해
- 3) 자녀를 외국에서 계속 살도록 하기위해
- 4) 외국의 교육과정과 학교체제가 훌륭하므로
- 5) 외국경험이 자녀의 진학, 취업에 도움이 되므로
- 6) 기타 ()

19-2. 조기유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
- 2) 우리나라 내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하기 때문
- 3) 유학은 대학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 4) 어릴 때의 외국 생활은 가치관, 국가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
- 5) 기타 ()

20. 귀하는 자녀를 위해 주거지를 이주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은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있다(20-1번에 답하고 21번으로 가십시오)
- 2) 없다(21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20-1. 귀하는 어떤 환경으로의 이주를 원하십니까? 혹은 원하셨습니까? (하나만)

- 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좋은 곳
- 2) 초중고 학교가 좋은 곳
- 3) 사교육 이용이 용이한 곳
- 4) 교통이나 치안 등이 안전한 곳
- 5) 자연환경이 좋은 곳
- 6) 기타()

21. 귀하는 자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는 입양을 할 수도 있다 → (21-1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2) 나는 입양을 할 수 없다 → (21-2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3) 입양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2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 4) 이미 입양한 경험이 있다 → (22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21-1. 왜 입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 1) 자녀를 더 갖고 싶은 데 임신이 안 되어
- 2) 자녀는 원하지만 출산하고 싶지 않아서
- 3) 다른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4) 어려운 아이도 돕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서
- 5) 기타()

21-2.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 1) 더 이상의 자녀를 키울 생각이 없어서
- 2) 상속 등 가족 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어서
- 3)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전혀 입양의사가 없어서
- 4) 핏줄이 다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 5)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 6) 기타()

22. 장차 귀하의 자녀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 **다문화 가정**이란 결혼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 1)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 2) 적극적으로 교제를 격려할 것이다.
 - 3) 내키지 않지만 자녀가 원하므로 허락할 것이다
 - 4) 만나지 않도록 타이를 것이다.
23. 장차 귀하의 자녀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 1)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 2) 적극적으로 교제를 격려할 것이다.
 - 3) 내키지 않지만 자녀가 원하므로 허락할 것이다
 - 4) 만나지 않도록 타이를 것이다.

※ 현재 미혼이시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자녀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입니다.

- ※ 다음 질문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응답하는 문항들입니다.
- 1) 한 성별의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별란에만 응답하시고, 아들·딸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성별란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2) 성별이 같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이 높은 자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3) 자녀가 이미 성인인 경우에는 과거 자녀의 성장 시기에 귀하가 가졌던 의견을 회상하여 제시하시면 됩니다.

24. 다음 중 자녀가 뛰어남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골라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아들: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딸: 1 순위 _____ 2 순위 _____

- | | |
|--------------------------|-----------------------|
| 1) 신체(용모, 키, 몸매 등) | 2) 학업 능력(학교 성적 등) |
| 3) 예체능적 자질(음악, 미술, 운동 등) | 4) 성격, 태도(책임감, 성실성 등) |
| 5) 사회성(대인관계, 리더십 등) | |

25. 다음 중 귀하의 자녀가 특히 갖추기를 바라는 덕목은 무엇인지 우선 순서대로 **3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아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딸: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자신감	2) 예절	3) 책임감	4) 근면·성실성
5) 독립심	6) 인내심	7) 정직성	8) 협동성
9) 창의성	10) 진취성	11) 경제관념	12) 겸손
13) 배려심	14) 리더십	15) 순종(잘 따름)	16) 사회성

26. 자녀를 어느 수준의 학교까지 교육시키고 싶으십니까?

- 아들 딸
- 1) 고등학교
 - 2) 전문대학 및 직업학교
 - 3) 4년제 대학교
 - 4) 대학원(석사학위)
 - 5) 대학원(박사학위)

27.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녀 의사와는 무관하게 귀하가 가장 원하는 직업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들 딸
- 1) 농업·어업·임업·축산업·원예업
 - 2) 자영업 (소규모 업소주인, 개인택시운전자 등)
 -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선반·목공, 숙련공 등)
 - 5) 사무·기술직 (일반회사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 6) 경영·관리직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7) 전문직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연구원, 언론인, 약사 등)
 - 8) 전업주부
 - 9) 종교인
 - 10) 예술가, 체육인, 연예인

28.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인생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아들 딸
- 1) 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일을 하여 유명인으로 사는 삶
 - 2)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여 리더로서 존경받으며 사는 삶
 - 3) 자신의 평범한 직업에 만족하며 가정의 행복을 우선시 하는 삶
 - 4)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즐기며 사는 삶
 - 5)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돌보며 봉사하고 희생하며 사는 삶
 - 6) 기타()

29. (이 문항은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귀하는 자녀마다 기대하는 것(성적, 직업 등)이 각각 다릅니까?

- 1) 같다(30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2) 다르다(29-1번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29-1. 다르다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만)	
<input type="checkbox"/> 1) 자녀들의 출생순위(첫째, 둘째, 막내 등)	<input type="checkbox"/> 2) 자녀들의 성별(아들, 딸)
<input type="checkbox"/> 3) 자녀들의 성격이나 능력	<input type="checkbox"/> 4) 기타()

34. 귀하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1) 힘든 경우가 별로 없었음
- 2) 경제적으로 양육비, 교육비의 부족
- 3) 자녀가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 것
- 4) 나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는 것
- 5) 배우자의 무관심이나 부재
- 6) 교육 관련 결정을 내려야할 때 확신이 없는 것
- 7)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 8) 기타()

35. 귀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있음(문35-1, 35-2에 답해 주십시오)
- 2) 없음(아래 지시문으로 바로 가십시오)

35-1. 지금까지 총 몇 회나 참여하셨습니다?

- 1) 1~2회
- 2) 3~5회
- 3) 5~9회
- 4) 10회 이상

35-2. 어디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 학원 등
- 2) 지역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 관공서
- 3)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 4)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사설 기관
- 5) 지역내 단체, 연합체 등
- 6)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장
- 7) 병원, 산후조리원 등
- 8) 본인의 학교(대학교, 고등학교)

※ 아래의 문항은 **취학전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답해 주십시오**. 해당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연령이 높은 영유아 자녀를 기준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영유아 자녀가 없는 분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의 응답자 특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36. 귀하의 자녀는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다니고 있습니까?

- 1) 현재 다니고 있음 → (36-1, 36-2, 36-3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2) 과거에 다녔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음
- 3) 현재 다니지 않으나 향후 보낼 예정임
- 4) 현재 다니지 않고 향후에도 보내지 않을 것임 → (37번 문항으로 바로 가십시오)

36-1. 귀하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모두 골라 주십시오.

- 1) 유치원
- 2) 어린이집
- 3) 학원(미술학원, 음악학원, 영어유치원 등)
- 4) 스포츠 단체
- 5) 사설 유아교육기관(짐보리, 놀이클럽 등)
- 6) 기타()

36-2. 귀하의 자녀가 위의 교육/보육 기관을 가장 처음 이용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1) 생후 0~12개월
- 2) 13~24개월
- 3) 25~36개월
- 4) 36~48개월
- 5) 만4세 이후 만5세 미만
- 6) 만5세 이후

36-3. 귀하가 자녀를 위의 기관에 보내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본인의 직장 때문에
- 2) 양육이 힘에 부쳐서
- 3)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 4) 자녀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
- 5) 남들이 모두 보내니까
- 6) 기타()

부록 4. 추가분석표

〈부표 1〉 자녀를 2명 이상 가지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녀에게 형제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녀가 외동이면 외로울까 봐	자녀가 외동이면 사회성이 부족할까 봐	자녀가 많으면 가족이 더욱 화목하므로	다양한 성별의 자녀를 원해서	계	$\chi^2(df)$
전체	38.2	32.7	12.7	10.9	3.6	100.0(55)	
성별							
남성	33.3	36.7	13.3	10.0	6.7	100.0(30)	2.4(4)
여성	45.8	29.2	12.5	12.5		100.0(24)	
연령별							
20대	33.3	38.9	16.7	5.6	5.6	100.0(18)	4.8(8)
30대	38.2	32.4	11.8	14.7	2.9	100.0(34)	
40대	100.0	0.0	0.0	0.0	0.0	100.0(2)	
지역규모별							
대도시	50.0	23.3	13.3	13.3	0.0	100.0(30)	14.2(8)
중소도시	26.1	47.8	8.7	8.7	8.7	100.0(23)	
군지역	0.0	0.0	100.0	0.0	0.0	100.0(1)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0.0	20.0		40.0	20.0	100.0(5)	21.4(16)
200~299만원	33.3	40.0	13.3	13.3	0.0	100.0(15)	
300~399만원	47.4	36.8	15.8	0.0	0.0	100.0(19)	
400~499만원	50.0	37.5	0.0	0.0	12.5	100.0(8)	
500만원 이상	28.6	14.3	28.6	28.6	0.0	100.0(7)	
경제수준별							
중	46.9	31.3	9.4	9.4	3.1	100.0(32)	16.8(8)
중하	25.0	40.0	20.0	15.0	0.0	100.0(20)	
하	50.0	0.0	0.0	0.0	50.0	100.0(2)	
종교별							
개신교	45.8	25.0	16.7	4.2	8.3	100.0(24)	10.0(12)
불교	33.3	50.0	0.0	16.7	0.0	100.0(6)	
천주교	25.0	50.0	0.0	25.0	0.0	100.0(8)	
종교없음	37.5	31.3	18.8	12.5	0.0	100.0(16)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7.4	26.3	15.8	10.5	0.0	100.0(19)	1.4.(3)
전업주부	40.0	40.0	0.0	20.0	0.0	100.0(5)	

〈부표 2〉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행동

단위: %(명)

구 분	시험관 시술 등 노력할 것임	포기하겠음	입양하겠음	계	$\chi^2(df)$
전체	57.4	35.1	6.4	100.0(94)	
성별					
남성	60.0	33.3	6.7	100.0(45)	0.2(2)
여성	56.3	37.5	6.3	100.0(48)	
연령별					
20대	66.7	29.6	3.7	100.0(27)	8.4(6)
30대	60.7	32.1	7.1	100.0(56)	
40대	25.0	62.5	12.5	100.0(8)	
50대	0.0	100.0	0.0	100.0(2)	
지역규모별					
대도시	60.8	29.4	9.8	100.0(51)	6.1(4)
중소도시	51.3	46.2	2.6	100.0(39)	
군지역	100.0	0.0	0.0	100.0(3)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50.0	41.7	8.3	100.0(12)	5.7(8)
200~299만원	58.6	34.5	6.9	100.0(29)	
300~399만원	61.3	35.5	3.2	100.0(31)	
400~499만원	72.7	27.3	0.0	100.0(11)	
500만원 이상	40.0	40.0	20.0	100.0(10)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00.0	0.0	0.0	100.0(1)	4.4(6)
중	65.4	28.8	5.8	100.0(52)	
중하	45.9	45.9	8.1	100.0(37)	
하	66.7	33.3	0.0	100.0(3)	
종교별					
개신교	57.6	36.4	6.1	100.0(33)	0.2(6)
불교	61.5	30.8	7.7	100.0(13)	
천주교	57.1	35.7	7.1	100.0(14)	
종교없음	57.6	36.4	6.1	100.0(33)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54.8	38.1	7.1	100.0(42)	0.6(2)
전업주부	66.7	33.3	0.0	100.0(6)	

〈부표 3〉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서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재혼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계	$\chi^2(df)$
전체	33.3	11.1	44.4	11.1	100.0(9)	
성별						
남성	66.7	0.0	33.3	0.0	100.0(3)	2.6(3)
여성	16.7	16.7	50.0	16.7	100.0(6)	
연령별						
30대	75.0	25.0	0.0	0.0	100.0(4)	10.5(6)
40대	0.0	0.0	66.7	33.3	100.0(3)	
50대	0.0	0.0	100.0	0.0	100.0(2)	
지역규모별						
대도시	42.9	14.3	42.9	0.0	100.0(7)	4.7(3)
중소도시	0.0	0.0	50.0	50.0	100.0(2)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0.0	0.0	100.0	0.0	100.0(1)	4.0(6)
200~299만원	40.0	0.0	40.0	20.0	100.0(5)	
500만원 이상	33.3	33.3	33.3	0.0	100.0(3)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50.0	50.0	0.0	0.0	100.0(2)	9.6(9)
중	50.0	0.0	25.0	25.0	100.0(4)	
중하	0.0	0.0	100.0	0.0	100.0(2)	
하	0.0	0.0	100.0	0.0	100.0(1)	
종교별						
개신교	0.0	0.0	50.0	50.0	100.0(32)	6.4(6)
불교	0.0	0.0	100.0	0.0	100.0(1)	
종교없음	50.0	16.7	33.3	0.0	100.0(6)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33.3	33.3	33.3	0.0	100.0(3)	3.3(3)
전업주부	0.0	0.0	66.7	33.3	100.0(3)	

〈부표 4〉 자녀를 더 가지려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다양한 형제관계 경험을 갖게 하고 싶어서	자녀가 외로울 까 봐	자녀의 사회성 을 키워주 려고	자녀가 많으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기 위하여	아이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 서	부모가 원해서	아이가 동생을 원해서	계	$\chi^2(df)$
전체	19.8	34.4	3.3	27.8	10.4	2.8	0.9	0.5	100.0(212)	
성별										
남성	24.6	30.5	3.4	29.7	9.3	1.7	0.8	0.0	100.0(118)	7.3(7)
여성	13.8	39.4	3.2	25.5	11.7	4.3	1.1	1.1	100.0(94)	
연령별										
20대	17.1	37.1	5.7	20.0	14.3	2.9	2.9	0.0	100.0(35)	11.5(21)
30대	20.9	34.6	3.3	28.8	9.2	2.0	0.7	0.7	100.0(153)	
40대	17.4	30.4	0.0	30.4	13.0	8.7	0.0	0.0	100.0(23)	
50대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1)	
지역규모별										
대도시	20.0	31.0	2.0	30.0	13.0	2.0	2.0	0.0	100.0(100)	12.3(14)
중소도시	22.5	32.5	3.8	26.3	10.0	3.8	0.0	1.3	100.0(80)	
군지역	12.5	50.0	6.3	25.0	3.1	3.1	0.0	0.0	100.0(32)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4.2	30.3	0.0	33.3	12.1	0.0	0.0	0.0	100.0(33)	22.4(28)
200~299만원	17.6	35.3	4.7	28.2	7.1	4.7	2.4	0.0	100.0(85)	
300~399만원	14.0	38.0	4.0	26.0	14.0	4.0	0.0	0.0	100.0(50)	
400~499만원	25.0	32.1	3.6	28.6	7.1	0.0	0.0	3.6	100.0(28)	
500만원 이상	31.3	31.3	0.0	18.8	18.8	0.0	0.0	0.0	100.0(16)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2.5	37.5	0.0	25.0	12.5	12.5	0.0	0.0	100.0(8)	25.8(21)
중	14.4	39.2	5.6	25.6	9.6	3.2	1.6	0.8	100.0(125)	
중하	29.0	29.0	0.0	29.0	13.0	0.0	0.0	0.0	100.0(69)	
하	30.0	10.0	0.0	50.0	0.0	10.0	0.0	0.0	100.0(10)	
종교별										
개신교	24.6	26.2	3.3	27.9	13.1	3.3	1.6	0.0	100.0(61)	17.6(21)
불교	13.9	38.9	2.8	22.2	13.9	8.3	0.0	0.0	100.0(36)	
천주교	10.0	30.0	0.0	60.0	0.0	0.0	0.0	0.0	100.0(10)	
종교없음	19.4	38.8	2.9	27.2	8.7	1.0	1.0	1.0	100.0(103)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8.1	43.2	0.0	35.1	8.1	5.4	0.0	0.0	100.0(37)	8.0(7)
전업주부	17.5	36.8	5.3	19.3	14.0	3.5	1.8	1.8	100.0(57)	
자녀 연령별										
0~5세	19.8	36.8	3.8	26.4	9.3	2.2	1.1	0.5	100.0(182)	
6~11세	10.3	13.8	0.0	44.8	27.6	3.4	0.0	0.0	100.0(29)	-
12~17세	35.7	14.3	0.0	35.7	0.0	14.3	0.0	0.0	100.0(14)	
18세 이상	0.0	0.0	0.0	33.3	0.0	66.7	0.0	0.0	100.0(3)	
자녀 성별										
아들	24.8	33.6	2.7	28.3	7.1	3.5	0.0	0.0	100.0(113)	-
딸	15.8	30.0	4.2	30.8	12.5	4.2	1.7	0.8	100.0(120)	

〈부표 5〉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녀에게 형제관계 경험 갖게해 주 려고	외동이 면 외로운 까 봐	외동이 면 성격 발달 원활 하지 않을 것 같 아 서	자녀가 많으면 더 화 목 하 므 로	원하는 성별의 자녀 낳으 려고	자녀가 생겼 기 때 문 에	계	$\chi^2(df)$
전체	39.1	31.7	5.9	9.0	6.4	7.9	100.0(2,394)	
성별								7.6(5)
남성	39.2	30.6	5.5	10.5	6.0	8.3	100.0(1,108)	
여성	39.0	32.7	6.3	7.7	6.8	7.5	100.0(1,286)	
연령별								17.5(15)
20대	32.1	28.6	14.3	10.7	3.6	10.7	100.0(28)	
30대	39.0	32.6	5.6	9.1	5.0	8.8	100.0(826)	
40대	39.1	31.9	5.9	9.4	6.5	7.3	100.0(1,227)	
50대	39.9	29.1	6.4	7.0	9.9	7.7	100.0(313)	
지역규모별								9.8(10)
대도시	39.3	32.7	5.1	9.0	5.3	8.5	100.0(1,197)	
중소도시	39.0	30.7	6.6	9.0	7.4	7.4	100.0(1,034)	
군지역	38.7	30.7	8.0	8.6	8.0	6.1	100.0(163)	
월 소득별								24.6(20)
200만원 미만	36.0	30.3	9.6	11.8	3.5	8.8	100.0(228)	
200~299만원	40.0	32.1	4.5	8.6	6.3	8.5	100.0(695)	
300~399만원	40.2	30.7	6.4	8.9	5.9	7.8	100.0(716)	
400~499만원	39.6	31.9	5.4	9.9	6.7	6.4	100.0(404)	
500만원 이상	35.8	33.8	6.1	6.9	9.2	8.1	100.0(346)	
경제수준별								21.2(15)
중상 이상	39.0	26.0	7.0	11.5	8.5	8.0	100.0(200)	
중	37.9	34.3	6.0	8.4	6.0	7.4	100.0(1,231)	
중하	41.7	29.1	4.9	8.9	6.6	8.9	100.0(835)	
하	34.1	32.5	10.3	11.1	5.6	6.3	100.0(126)	
종교별								22.0(15)
개신교	36.0	33.6	7.2	8.5	5.7	9.1	100.0(614)	
불교	38.1	29.6	6.1	12.6	7.4	6.3	100.0(446)	
천주교	44.9	30.8	4.0	8.1	5.7	6.5	100.0(247)	
종교없음	40.0	31.7	5.7	7.7	6.6	8.2	100.0(1,031)	
모취업여부								3.4(5)
취업주부	39.5	33.5	5.4	7.6	7.4	6.5	100.0(552)	
전업주부	38.7	32.0	6.9	7.8	6.3	8.3	100.0(734)	
자녀 연령								
0~5세 자녀	38.3	32.0	6.3	9.5	5.3	8.6	100.0(624)	
6~11세 자녀	38.1	30.8	5.1	10.9	5.6	9.5	100.0(1,063)	-
12~17세 자녀	38.6	32.6	6.3	8.6	6.4	7.5	100.0(1,127)	
18세 이상 자녀	39.2	28.6	6.5	8.5	10.2	7.0	100.0(762)	
자녀 성별								
아들	39.9	31.0	6.2	8.9	6.5	7.5	100.0(1,983)	-
딸	37.8	31.0	5.7	9.9	7.6	7.8	100.0(1,829)	

〈부표 6〉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의 자녀수가 많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계획하지 않은 임신 때문	배우자나 주위 사람들의 희망 때문	자녀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	원하는 성별을 낳기 위해서	쌍둥이 출산으로	계	$\chi^2(df)$
전체	30.3	31.3	27.9	3.0	2.5	100.0	
성별							
남성	27.3	32.5	32.5	3.9	3.9	100.0(77)	2.4(4)
여성	35.1	33.3	27.2	2.6	1.8	100.0(114)	
연령별							
20대	0.0	25.0	75.0	0.0	0.0	100.0(8)	17.9(12)
30대	37.7	27.9	29.5	0.0	4.9	100.0(61)	
40대	33.0	33.0	26.8	5.2	2.1	100.0(97)	
50대	24.0	48.0	24.0	4.0	0.0	100.0(25)	
지역규모별							
대도시	35.6	27.8	31.1	3.3	2.2	100.0(90)	21.0(8)**
중소도시	30.5	35.4	31.7	2.4	0.0	100.0(82)	
군지역	21.1	47.4	10.5	5.3	15.8	100.0(19)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0.0	25.0	75.0	0.0	0.0	100.0(8)	11.3(8)
기혼 무자녀	0.0	100.0	0.0	0.0	0.0	100.0(1)	
기혼 유자녀	33.5	33.0	27.5	3.3	2.7	100.0(182)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8.1	19.0	42.9	0.0	0.0	100.0(21)	21.4(16)
200~299만원	22.2	38.1	25.4	7.9	6.3	100.0(63)	
300~399만원	41.7	31.3	25.0	0.0	2.1	100.0(48)	
400~499만원	37.9	31.0	31.0	0.0	0.0	100.0(29)	
500만원 이상	26.7	36.7	33.3	3.3	0.0	100.0(30)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7.5	33.3	25.0	4.2	0.0	100.0(24)	7.6(12)
중	31.5	27.0	34.8	3.4	3.4	100.0(89)	
중하	29.5	42.6	24.6	1.6	1.6	100.0(61)	
하	35.3	29.4	23.5	5.9	5.9	100.(17)	
종교별							
개신교	53.3	15.6	28.9	2.2	0.0	100.0(45)	23.9(12)**
불교	15.2	45.5	33.3	0.0	6.1	100.0(33)	
천주교	30.4	26.1	39.1	4.3	0.0	100.0(23)	
종교없음	28.4	39.8	23.9	4.5	3.4	100.0(88)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1.3	34.8	17.4	4.3	2.2	100.0(46)	3.4(4)
전업주부	32.3	33.8	30.8	1.5	1.5	100.0(65)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7.5	27.1	27.1	2.1	6.3	100.0(48)	
6~11세 자녀	35.7	27.6	30.6	4.1	2.0	100.0(98)	-
12~17세 자녀	40.2	25.6	29.1	3.4	1.7	100.0(117)	
18세 이상 자녀	24.6	49.2	18.0	4.9	3.3	100.0(61)	
자녀 성별							
아들	31.7	35.9	26.1	2.8	3.5	100.0(142)	-
딸	31.4	34.6	27.0	3.8	3.1	100.0(159)	

** $p < .01$

〈부표 7〉 이상적 자녀수보다 현실의 자녀수가 적은 이유

단위: %(명)

구 분	경제적 이유	심리적, 육체적 어려움	배우자 가 원치 않음	출산이 힘든 신체 이유	더이상 임신이 안됨	더 낳을 예정임	기타	계	$\chi^2(df)$
전체	48.5	19.0	7.1	7.7	5.4	6.1	6.3	100.0(1,568)	
성별									
남성	49.9	13.9	13.2	6.7	4.2	7.9	4.3	100.0(674)	97.5(6)***
여성	47.5	22.8	2.5	8.4	6.4	4.7	7.7	100.0(894)	
연령별									
20대	46.1	29.4	1.7	0.0	1.7	11.1	10.0	100.0(180)	195.5(18)***
30대	53.2	18.2	6.1	4.5	2.4	10.4	5.4	100.0(628)	
40대	46.9	16.9	9.5	13.0	6.7	1.6	5.4	100.0(610)	
50대	38.7	18.7	8.0	8.7	17.3	0.0	8.7	100.0(150)	
지역규모별									
대도시	50.0	17.5	7.9	7.4	5.7	5.3	6.1	100.0(732)	15.3(12)
중소도시	47.3	20.3	6.5	8.5	5.4	5.8	6.1	100.0(719)	
군지역	47.0	20.5	5.1	4.3	3.4	12.0	7.7	100.0(117)	
결혼/자녀 여부별									
미혼	45.2	33.3	1.6	1.1	0.0	2.7	16.1	100.0(186)	104.9(12)***
기혼 무자녀	41.7	14.6	4.2	4.2	12.5	10.4	12.5	100.0(48)	
기혼 유자녀	49.3	17.2	7.9	8.7	5.9	6.4	4.6	100.0(1,338)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9.4	23.4	3.1	4.1	4.4	5.6	10.0	100.0(320)	76.5(24)***
200~299만원	55.1	14.3	6.1	6.8	5.7	7.5	4.5	100.0(441)	
300~399만원	49.7	17.8	7.3	9.0	5.3	6.5	4.3	100.0(398)	
400~499만원	40.5	22.4	9.7	7.2	7.6	5.9	6.8	100.0(237)	
500만원 이상	38.4	20.9	12.8	14.0	4.1	2.3	7.6	100.0(172)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40.6	16.8	11.9	15.8	3.0	3.0	8.9	100.0(101)	56.2(18)***
중	43.2	22.4	8.2	7.1	5.4	7.3	6.5	100.0(821)	
중하	56.5	14.3	5.5	7.5	6.1	5.1	5.0	100.0(545)	
하	56.6	19.2	2.0	5.1	5.1	4.0	8.1	100.0(99)	
종교별									
개신교	49.8	19.7	5.5	8.6	5.0	4.6	6.8	100.0(456)	31.7(18)*
불교	44.6	18.7	5.4	7.9	8.6	7.2	7.6	100.0(278)	
천주교	38.7	23.3	9.2	11.0	7.4	4.9	5.5	100.0(163)	
종교없음	51.5	17.7	8.2	6.2	3.9	6.9	5.6	100.0(662)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7.4	19.7	3.0	8.0	8.6	3.6	9.7	100.0(361)	21.7(6)**
전업주부	50.5	21.0	2.7	10.7	6.3	6.1	2.7	100.0(410)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50.9	18.7	4.9	3.6	1.9	16.7	3.2	100.0(466)	
6~11세 자녀	56.6	16.2	9.6	9.8	3.0	1.5	3.4	100.0(470)	-
12~17세 자녀	51.1	15.8	9.1	12.0	7.1	4.9	0.0	100.0(450)	
18세 이상 자녀	48.8	16.5	7.7	10.4	9.8	6.7	0.0	100.0(297)	
자녀 성별									
아들	51.1	18.0	8.7	8.4	4.9	4.7	0.0	100.0(993)	-
딸	51.1	18.3	8.4	7.6	4.6	5.3	0.0	100.0(832)	

** $p < .01$ *** $p < .001$

〈부표 8〉 영역별 적정 (체계적) 교육시기-한글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초등학 교 취학 이후	계	$\chi^2(df)$
전체	3.9	7.7	22.9	30.3	32.4	2.9	100.0(3,745)	
성별								
남성	3.7	7.4	21.5	30.0	33.6	3.7	100.0(1,695)	12.2(5)*
여성	4.0	8.0	24.0	30.4	31.3	2.2	100.0(2,050)	
연령별								
20대	11.1	15.1	25.9	29.4	17.2	1.3	100.0(541)	215.6(15)***
30대	2.6	7.1	25.0	31.4	31.7	2.3	100.0(1,333)	
40대	2.5	5.4	21.3	29.0	38.1	3.6	100.0(1,491)	
50대	3.4	8.4	17.4	32.6	33.4	4.7	100.0(38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8.1	12.6	21.8	29.5	24.7	3.2	100.0(792)	128.6(20)***
200~299만원	3.5	7.0	23.7	25.7	36.5	3.6	100.0(1,047)	
300~399만원	1.6	6.2	23.0	32.4	34.8	2.0	100.0(936)	
400~499만원	2.8	5.4	23.7	34.5	31.9	1.7	100.0(536)	
500만원 이상	3.5	6.1	22.0	33.0	31.4	4.0	100.0(427)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0	5.7	27.0	30.4	28.9	4.9	100.0(263)	42.2(15)***
중	4.7	8.5	23.3	29.7	31.2	2.6	100.0(1,918)	
중하	2.6	7.2	20.9	31.3	35.6	2.4	100.0(1,341)	
하	5.5	5.9	26.5	28.8	27.4	5.9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2.8	6.6	21.0	29.2	36.9	3.6	100.0(1,427)	51.2(15)***
전문대학 졸	4.2	9.4	25.7	29.4	29.3	2.0	100.0(837)	
대학교 졸	5.0	7.2	23.1	32.6	29.5	2.6	100.0(1,327)	
대학원 졸	3.6	13.7	24.5	23.7	30.9	3.6	100.0(139)	
종교별								
개신교	5.5	8.2	23.7	30.7	29.4	2.4	100.0(948)	41.9(15)**
불교	3.7	5.8	21.5	31.5	35.4	2.1	100.0(670)	
천주교	3.7	11.2	21.7	22.5	35.8	5.1	100.0(374)	
종교없음	3.2	7.5	23.3	31.1	32.0	2.9	100.0(1,735)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9〉 영역별 적정 (체계적) 교육시기-외국어(영어, 한자 등)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초등학 교 취학 이후	계	$\chi^2(df)$
전체	0.4	1.9	6.7	16.2	31.0	43.9	100.0(3,742)	
성별								
남성	0.4	1.4	6.0	15.2	30.2	46.9	100.0(1,695)	16.0(5)**
여성	0.4	2.3	7.3	17.0	31.7	41.3	100.0(2,047)	
연령별								
20대	0.7	4.1	12.0	22.7	29.6	30.9	100.0(541)	138.2(15)***
30대	0.4	2.1	6.6	18.0	33.0	39.9	100.0(1,332)	
40대	0.3	0.9	5.0	12.4	29.1	52.2	100.0(1,489)	
50대	0.3	1.8	5.8	15.3	33.4	43.4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0.3	1.9	5.8	15.9	34.0	42.0	100.0(1,851)	40.4(10)***
중소도시	0.6	1.8	7.5	17.9	27.8	44.4	100.0(1,636)	
군지역	0.4	1.6	7.8	7.1	29.4	53.7	100.0(25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0.3	2.7	7.7	17.3	29.0	43.1	100.0(791)	37.7(20)*
200~299만원	0.6	1.4	7.4	14.3	30.3	46.0	100.0(1,048)	
300~399만원	0.1	1.9	5.2	20.1	31.0	41.6	100.0(935)	
400~499만원	0.6	1.7	6.3	13.4	31.7	46.3	100.0(536)	
500만원 이상	0.7	1.4	6.8	13.3	35.6	42.2	100.0(427)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0.2	1.2	5.6	12.0	32.0	49.0	100.0(1,425)	60.0(15)***
전문대학 졸	0.4	2.4	7.6	19.2	29.9	40.5	100.0(837)	
대학교 졸	0.6	2.0	6.9	18.5	31.3	40.7	100.0(1,325)	
대학원 졸	0.7	4.3	10.7	17.1	25.7	41.4	100.0(14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0〉 영역별 적정 (체계적) 교육시기-수리(수학적 개념, 연산 등)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이후	계	$\chi^2(df)$
전체	0.4	1.6	6.6	20.7	42.1	28.5	100.0(3,745)	
성별								
남성	0.4	1.3	5.7	19.3	40.8	32.6	100.0(1,695)	28.9(5)***
여성	0.4	1.9	7.5	22.0	43.2	25.1	100.0(2,050)	
연령별								
20대	0.7	1.8	10.2	23.7	39.0	24.6	100.0(541)	108.1(15)***
30대	0.5	2.3	7.6	23.0	45.1	21.6	100.0(1,332)	
40대	0.1	0.9	4.3	19.4	40.8	34.5	100.0(1,492)	
50대	0.8	1.8	7.6	13.9	41.3	34.5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0.4	1.6	5.9	19.9	43.3	28.8	100.0(1,853)	9.4(10)
중소도시	0.4	1.5	7.3	22.0	41.1	27.7	100.0(1,637)	
군지역	0.0	2.0	7.8	18.8	39.6	31.8	100.0(255)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0.0	1.1	7.6	22.8	38.8	29.7	100.0(263)	26.4(15)*
중	0.7	1.5	7.0	20.4	41.9	28.5	100.0(1,917)	
중하	0.1	1.8	5.7	20.6	44.8	27.0	100.0(1,342)	
하	0.0	2.3	7.8	22.8	32.0	35.2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0.1	1.7	5.1	19.2	42.3	31.7	100.0(1,427)	36.1(15)*
전문대학 졸	0.8	1.1	7.3	22.3	42.8	25.7	100.0(837)	
대학교 졸	0.5	1.8	7.6	21.3	42.5	26.4	100.0(1,326)	
대학원 졸	0.7	2.1	10.0	22.9	32.9	31.4	100.0(140)	
종교별								
개신교	0.3	2.4	8.8	21.5	37.0	30.0	100.0(948)	46.3(15)***
불교	0.4	0.3	4.3	20.8	43.2	30.9	100.0(669)	
천주교	0.5	1.3	9.4	17.1	40.6	31.0	100.0(374)	
종교없음	0.4	1.7	5.9	21.1	44.5	26.3	100.0(1,736)	

* $p < .05$ *** $p < .001$

〈부표 11〉 영역별 적정 (체계적) 교육시기-예능(음악, 미술, 체육 등)

단위: %(명)

구 분	만2세 이전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초등학교 취학 이후	계	$\chi^2(df)$
전체	1.2	2.3	8.4	18.7	40.3	29.0	100.0(3,746)	
성별								
남성	0.8	1.7	7.8	17.7	39.9	32.2	100.0(1,696)	24.8(5)***
여성	1.6	2.8	9.0	19.6	40.7	26.3	100.0(2,050)	
연령별								
20대	3.5	4.6	14.4	22.4	38.4	16.6	100.0(541)	141.7(15)***
30대	1.4	2.4	9.4	20.3	38.8	27.8	100.0(1,333)	
40대	0.5	1.4	6.0	17.0	41.6	33.4	100.0(1,492)	
50대	0.3	2.4	6.1	15.0	43.2	33.2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0.9	2.1	7.4	18.8	43.7	27.1	100.0(1,854)	34.0(10)***
중소도시	1.6	2.2	9.7	19.2	36.5	30.8	100.0(1,637)	
군지역	1.6	4.7	7.8	15.3	40.0	30.6	100.0(255)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8	3.9	9.8	18.9	39.5	26.0	100.0(792)	39.8(20)**
200~299만원	1.9	2.4	7.5	17.7	39.0	31.5	100.0(1,048)	
300~399만원	0.4	1.2	8.0	19.1	41.8	29.5	100.0(936)	
400~499만원	0.9	2.1	9.5	20.5	40.7	26.3	100.0(536)	
500만원 이상	0.7	2.1	7.7	17.8	41.0	30.7	100.0(427)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0.0	0.4	9.9	20.9	42.2	26.6	100.0(263)	33.3(15)**
중	1.4	2.3	9.4	19.4	39.9	27.5	100.0(1,918)	
중하	1.3	2.2	7.2	17.3	40.6	31.4	100.0(1,342)	
하	0.5	5.5	5.9	18.7	39.3	30.1	100.0(219)	
최종학력별								
고졸 이하	0.7	1.8	5.8	17.0	41.9	32.9	100.0(1,427)	54.4(15)***
전문대학 졸	1.4	3.2	9.2	21.5	37.6	27.0	100.0(837)	
대학교 졸	1.7	2.4	10.7	18.5	40.7	26.0	100.0(1,327)	
대학원 졸	0.7	2.1	10.0	21.4	35.7	30.0	100.0(140)	
종교별								
개신교	0.8	3.0	9.0	19.0	38.9	29.3	100.0(948)	25.1(15)*
불교	1.5	1.2	7.9	19.4	41.3	28.7	100.0(670)	
천주교	2.7	2.9	10.4	13.1	41.7	29.1	100.0(374)	
종교없음	1.0	2.3	7.9	19.6	40.2	28.9	100.0(1,736)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2〉 예체능 조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

단위: %(명)

구 분	조기 예체능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본적 소양과 취미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장차 학교 성적이나 내신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아이 인성, 창의성 등에 필요하다	아이가 흥미를 갖고 있다면 필요하다	계	$\chi^2(df)$
전체	4.8	25.0	31.0	2.6	4.2	32.5	0.1	100.0(3,747)	
성별									
남성	6.8	26.1	31.3	2.2	4.0	29.5	0.1	100.0(1,697)	38.0(6)***
여성	3.1	24.0	30.6	2.9	4.4	34.9	0.0	100.0(2,050)	
연령별									
20대	2.4	30.4	25.6	2.2	2.8	36.5	0.0	100.0(542)	57.0(18)***
30대	3.2	23.6	32.6	2.4	3.9	34.1	0.2	100.0(1,333)	
40대	6.6	24.3	31.3	2.7	4.7	30.4	0.0	100.0(1,492)	
50대	6.3	25.0	31.3	2.9	5.5	28.9	0.0	100.0(380)	
지역규모별									
대도시	4.3	22.5	31.2	3.1	5.1	33.7	0.1	100.0(18,55)	35.5(12)***
중소도시	4.9	28.1	29.6	2.1	3.5	31.6	0.1	100.0(1,637)	
군지역	7.1	23.1	37.6	1.6	2.0	28.6		100.0(255)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4.0	31.3	25.4	1.8	3.5	33.8	0.2	100.0(598)	28.6(12)**
기혼 무자녀	3.9	19.4	30.1	1.9	2.9	41.7	0.0	100.0(103)	
기혼 유자녀	5.0	23.9	32.1	2.7	4.4	31.9	0.0	100.0(3,046)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5	28.5	25.9	1.6	4.4	34.9	0.1	100.0(793)	49.6(24)**
200~299만원	5.3	26.3	28.0	3.2	4.4	32.7	0.0	100.0(1,048)	
300~399만원	4.6	23.4	35.3	3.2	4.5	29.0	0.1	100.0(936)	
400~499만원	3.9	22.8	33.0	2.4	3.0	34.9	0.0	100.0(536)	
500만원 이상	5.4	21.1	35.8	1.4	4.2	32.1	0.0	100.0(427)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4.9	23.1	29.9	2.7	6.1	33.3	0.0	100.0(264)	28.6(18)
중	4.0	24.0	33.6	2.6	3.2	32.6	0.1	100.0(1,918)	
중하	5.6	26.5	28.1	2.5	4.9	32.3	0.1	100.0(1,342)	
하	6.4	27.4	26.9	2.7	6.4	30.1	0.0	100.0(219)	
종교별									
개신교	4.5	27.6	29.0	1.9	3.8	33.1	0.0	100.0(948)	21.0(18)
불교	5.8	21.3	33.3	2.7	4.2	32.7	0.0	100.0(670)	
천주교	4.5	23.0	29.9	1.9	4.0	36.6	0.0	100.0(374)	
종교없음	4.5	25.4	31.2	3.0	4.5	31.3	0.1	100.0(1,737)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3.2	23.3	31.1	3.4	6.0	32.9	0.0	100.0(771)	7.9(6)
전업주부	3.0	21.9	33.2	3.0	3.6	35.2	0.1	100.0(928)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8	25.9	29.8	2.1	3.4	34.9	0.1	100.0(912)	
6~11세 자녀	3.9	21.5	35.5	3.1	4.6	31.4	0.0	100.0(1,187)	-
12~17세 자녀	5.8	24.4	32.0	2.6	4.7	30.5	0.0	100.0(1,243)	
18세 이상 자녀	6.8	25.4	31.4	2.8	5.1	28.5	0.0	100.0(866)	
자녀 성별									
아들	5.2	23.7	32.2	2.8	4.4	31.6	0.0	100.0(2,351)	-
딸	4.8	24.0	32.8	2.5	4.4	31.4	0.0	100.0(2,093)	

** $p < .01$ *** $p < .001$

<부표 13> 조기유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 내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해서	유학은 대학이후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어릴 때의 외국생활은 가뭇만 국가관 형성에 좋지 않아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환경적 위험요소가 많아서	외화 유출이므로	계	$\chi^2(df)$
전체	30.3	25.1	20.1	23.0	1.4	0.1	0.0	100.0(2,819)	
성별									
남성	29.0	26.8	18.8	23.6	1.5	0.0	0.0	100.0(1,327)	9.2(6)
여성	31.2	23.5	21.2	22.5	1.3	0.1	0.1	100.0(1,492)	
연령별									
20대	27.9	22.5	16.3	32.8	0.5	0.0	0.0	100.0(369)	53.8(18)***
30대	34.0	23.7	19.7	20.7	1.7	0.2	0.0	100.0(992)	
40대	29.4	26.6	20.8	21.5	1.7	0.0	0.0	100.0(1,172)	
50대	24.7	26.7	23.6	24.3	0.3	0.0	0.3	100.0(296)	
지역규모별									
대도시	29.4	23.6	22.9	22.3	1.6	0.1	0.0	100.0(1,388)	21.4(12)*
중소도시	30.7	26.5	18.0	23.6	1.1	0.0	0.1	100.0(1,233)	
군지역	34.3	26.3	13.6	23.7	2.0	0.0	0.0	100.0(198)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28.8	20.8	17.7	32.2	0.5	0.0	0.0	100.0(413)	48.0(12)***
기혼 무자녀	31.5	30.3	11.2	25.8	0.0	1.1	0.0	100.0(89)	
기혼 유자녀	30.5	25.6	20.9	21.2	1.6	0.0	0.0	100.0(2,317)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30.0	25.0	16.2	26.9	1.9	0.0	0.0	100.0(587)	41.8(24)*
200~299만원	29.9	28.0	19.6	20.9	1.6	0.0	0.0	100.0(815)	
300~399만원	28.9	26.6	21.2	21.8	1.4	0.0	0.0	100.0(706)	
400~499만원	31.1	22.4	21.4	23.6	1.0	0.2	0.2	100.0(402)	
500만원 이상	34.1	17.7	23.9	23.3	0.7	0.3	0.0	100.0(305)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4.2	22.1	17.4	25.8	0.5	0.0	0.0	100.0(190)	34.4(18)*
중	32.2	24.7	18.1	24.0	0.9	0.1	0.1	100.0(1,453)	
중하	26.5	26.4	23.1	21.4	2.5	0.1	0.0	100.0(1,011)	
하	31.5	23.5	22.8	21.6	0.6	0.0	0.0	100.0(162)	
종교별									
개신교	34.7	19.9	20.2	23.3	2.0	0.0	0.0	100.0(709)	50.2(18)***
불교	27.5	30.3	19.7	21.6	0.7	0.2	0.0	100.0(538)	
천주교	32.6	19.0	20.5	26.7	0.4	0.4	0.4	100.0(273)	
종교없음	28.4	27.0	20.3	22.7	1.6	0.0	0.0	100.0(1,283)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31.4	25.3	19.6	21.8	1.6	0.2	0.2	100.0(577)	4.6(6)
전업주부	31.0	22.4	23.5	21.3	1.6	0.1	0.0	100.0(684)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2.9	25.0	20.1	19.5	2.4	0.2	0.0	100.0(663)	
6~11세 자녀	33.1	22.9	21.5	20.2	2.3	0.1	0.0	100.0(888)	-
12~17세 자녀	31.2	26.0	21.4	20.0	1.4	0.0	0.0	100.0(956)	
18세 이상 자녀	22.9	27.6	22.5	26.1	0.7	0.1	0.1	100.0(689)	
자녀 성별									
아들	29.9	26.2	20.6	21.6	1.6	0.1	0.0	100.0(1,785)	-
딸	30.9	25.2	20.8	21.5	1.5	0.1	0.1	100.0(1,602)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4〉 입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녀를 더 갖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어	자녀는 원하지 만 출산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려운 아이도 돌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행복감	다른 성별의 자녀를 얻기 위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배우자가 원해서	계	$\chi^2(df)$
전체	13.6	8.9	7.8	67.9	0.5	0.9	0.4	0.1	100.0(810)	
성별										
남성	15.4	6.8	7.7	68.8	0.3	0.6	0.0	0.3	100.0(311)	8.0(7)
여성	12.4	10.2	7.8	67.3	0.6	1.0	0.6	0.0	100.0(499)	
연령별										
20대	29.1	9.0	5.5	55.8	0.0	0.5	0.0	0.0	100.0(199)	90.0(21)***
30대	10.2	13.5	10.5	63.3	1.1	0.7	0.4	0.4	100.0(275)	
40대	7.0	5.5	7.0	79.1	0.0	0.7	0.7	0.7	100.0(273)	
50대	7.8	3.2	6.3	77.8	1.6	3.2	0.0	0.0	100.0(63)	
지역규모별										
대도시	15.0	7.5	7.2	67.6	0.5	1.5	0.5	0.2	100.0(401)	27.4(14)*
중소도시	10.1	8.7	9.2	70.8	0.6	0.3	0.3	0.0	100.0(346)	
군지역	23.8	19.0	3.2	54.0	0.0	0.0	0.0	0.0	100.0(63)	
결혼/자녀 유무별										
미혼	29.6	8.3	6.1	55.2	0.0	0.0	0.9	0.0	100.0(230)	97.6(14)***
기혼 무자녀	39.1	4.3	4.3	52.2	0.0	0.0	0.0	0.0	100.0(23)	
기혼 유자녀	5.9	9.3	8.6	73.8	0.7	1.3	0.2	0.2	100.0(557)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1.9	7.8	7.8	60.6	0.4	0.4	0.7	0.4	100.0(269)	58.4(28)**
200~299만원	13.2	8.3	12.2	64.4	0.0	1.5	0.5	0.0	100.0(205)	
300~399만원	6.0	8.0	4.0	80.7	0.7	0.7	0.0	0.0	100.0(150)	
400~499만원	10.1	12.4	7.9	69.7	0.0	0.0	0.0	0.0	100.0(89)	
500만원 이상	6.2	11.3	4.1	74.2	2.1	2.1	0.0	0.0	100.0(97)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3.1	11.5	6.6	65.6	1.6	1.6	0.0	0.0	100.0(61)	10.9(21)
중	15.0	9.1	7.3	67.0	0.5	0.7	0.2	0.2	100.0(427)	
중하	12.4	8.3	8.3	69.2	0.4	1.1	0.4	0.0	100.0(266)	
하	9.3	7.4	9.3	72.2	0.0	0.0	1.9	0.0	100.0(54)	
종교별										
개신교	11.2	5.2	6.3	75.1	0.7	0.7	0.4	0.4	100.0(269)	29.1(21)
불교	14.3	12.8	11.3	60.2	0.8	0.8	0.0	0.0	100.0(133)	
천주교	11.0	5.9	6.8	75.4	0.0	0.0	0.8	0.0	100.0(118)	
종교없음	17.0	11.3	8.1	61.5	0.4	1.4	0.4	0.0	100.0(283)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8.6	7.4	7.4	73.1	1.1	1.7	0.6	0.0	100.0(175)	7.4(6)
전업주부	4.1	12.9	9.9	71.3	0.6	1.2	0.0	0.0	100.0(171)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5.5	13.3	7.9	70.3	0.0	1.8	0.6	0.6	100.0(165)	
6~11세 자녀	5.6	13.0	9.1	70.1	1.3	0.4	0.4	0.0	100.0(231)	-
12~17세 자녀	3.7	6.0	9.7	78.2	1.4	0.9	0.0	0.9	100.0(216)	
18세 이상 자녀	5.1	2.2	5.8	84.8	0.7	1.4	0.0	0.0	100.0(138)	
자녀 성별										
아들	4.4	10.1	8.3	74.2	0.9	1.6	0.2	0.2	100.0(434)	-
딸	5.0	6.5	8.2	79.5	0.6	0.0	0.0	0.0	100.0(34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5〉 자녀에 따라 기대수준이 다른 이유

단위: %(명)

구 분	자녀들의 출생순위	자녀들의 성별	자녀들의 성격이나 능력	계	$\chi^2(df)$
전체	2.6	16.7	80.7	100.0(1,553)	
성별					
남성	2.8	17.7	79.5	100.0(708)	1.3(2)
여성	2.4	15.9	81.8	100.0(845)	
연령별					
20대		23.1	76.9	100.0(13)	8.4(6)
30대	3.0	13.3	83.7	100.0(496)	
40대	2.1	18.1	79.8	100.0(818)	
50대	3.5	18.6	77.9	100.0(226)	
지역규모별					
대도시	2.1	17.1	80.9	100.0(780)	1.9(4)
중소도시	3.1	16.4	80.6	100.0(654)	
군지역	3.4	16.0	80.7	100.0(119)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2.5	16.8	80.7	100.0(161)	11.8(8)
200~299만원	3.5	20.8	75.7	100.0(428)	
300~399만원	1.8	15.6	82.6	100.0(495)	
400~499만원	3.1	13.4	83.6	100.0(262)	
500만원 이상	2.0	15.1	82.9	100.0(205)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7	15.1	83.2	100.0(119)	4.7(6)
중	2.2	16.1	81.7	100.0(782)	
중하	3.5	17.7	78.8	100.0(566)	
하	1.2	17.6	81.2	100.0(85)	
종교별					
개신교	3.8	14.2	82.0	100.0(423)	26.2(6)***
불교	1.7	22.9	75.4	100.0(297)	
천주교	2.4	6.6	91.0	100.0(166)	
종교없음	2.3	18.2	79.5	100.0(654)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2.4	14.2	83.4	100.0(374)	1.4(2)
전업주부	2.3	17.2	80.5	100.0(471)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3.3	14.0	82.7	100.0(336)	
6~11세 자녀	2.3	14.5	83.2	100.0(689)	-
12~17세 자녀	2.1	15.6	82.3	100.0(762)	
18세 이상 자녀	3.0	21.6	75.4	100.0(528)	
자녀 성별					
아들	2.5	20.5	77.0	100.0(1,262)	-
딸	1.9	21.9	76.2	100.0(1,172)	

*** $p < .001$

〈부표 16〉 자녀와의 관계8: 가정교육을 위해 자녀의 행동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위: %(명)

구 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별로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계	$\chi^2(df)$
전체	12.1	61.2	24.9	1.7	100.0(3,044)	
성별						
남성	12.0	62.3	24.0	1.7	100.0(1,402)	3.0(4)
여성	12.2	60.4	25.7	1.7	100.0(1,642)	
연령별						
20대	9.5	60.8	25.7	4.1	100.0(74)	11.8(12)
30대	11.5	59.7	26.9	1.9	100.0(1,141)	
40대	12.4	62.3	23.8	1.5	100.0(1,455)	
50대	13.6	62.0	23.0	1.3	100.0(374)	
지역규모별						
대도시	11.3	61.7	25.5	1.5	100.0(1,493)	8.4(8)
중소도시	13.0	61.2	24.2	1.7	100.0(1,332)	
군지역	12.8	58.4	25.6	3.2	100.0(219)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16.3	60.4	22.1	1.2	100.0(326)	10.5(12)
200~299만원	12.4	59.8	25.6	2.1	100.0(909)	
300~399만원	12.0	62.1	24.3	1.6	100.0(884)	
400~499만원	10.5	62.8	24.9	1.8	100.0(514)	
500만원 이상	10.6	61.3	26.6	1.5	100.0(406)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17.0	59.6	21.1	2.2	100.0(223)	28.8(9)**
중	11.8	60.2	26.4	1.6	100.0(1,576)	
중하	10.5	64.9	22.8	1.8	100.0(1,081)	
하	19.9	48.4	29.8	1.9	100.0(161)	
종교별						
개신교	13.2	58.3	26.1	2.4	100.0(763)	7.8(9)
불교	12.6	62.3	23.9	1.2	100.0(581)	
천주교	11.8	62.5	23.3	2.4	100.0(298)	
종교없음	11.5	62.1	24.9	1.4	100.0(1,386)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12.1	58.9	27.4	1.5	100.0(725)	2.3(3)
전업주부	12.3	61.5	24.3	1.9	100.0(917)	
자녀 연령별						
0~5세 자녀	10.9	59.2	27.9	2.1	100.0(912)	
6~11세 자녀	11.0	63.2	24.3	1.5	100.0(1,187)	
12~17세 자녀	13.1	61.8	23.7	1.5	100.0(1,241)	
18세 이상 자녀	14.1	62.0	22.8	1.2	100.0(865)	
자녀 성별						
아들	11.8	62.3	24.3	1.6	100.0(2,349)	
딸	12.7	60.7	25.1	1.5	100.0(2,092)	

** $p < .01$

〈부표 17〉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횟수

단위: %(명)

구분	1~2회	3~5회	5~9회	10회 이상	계	$\chi^2(df)$
전체	40.7	34.8	10.1	14.5	100.0(843)	
성별						
남성	57.4	29.3	9.0	4.3	100.0(188)	36.5(3)***
여성	35.9	36.3	10.4	17.4	100.0(655)	
연령별						
20대	53.3	40.0	6.7	0.0	100.0(15)	5.6(9)
30대	42.3	33.6	9.9	14.1	100.0(333)	
40대	39.2	34.6	10.2	16.0	100.0(413)	
50대	39.0	39.0	11.0	11.0	100.0(82)	
지역규모별						
대도시	39.5	33.2	12.7	14.6	100.0(425)	14.8(6)*
중소도시	44.3	34.5	7.3	13.9	100.0(368)	
군지역	24.0	50.0	8.0	18.0	100.0(5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6.4	34.5	7.1	11.9	100.0(84)	16.7(12)
200~299만원	40.8	37.3	10.7	11.2	100.0(233)	
300~399만원	42.0	33.6	10.6	13.7	100.0(226)	
400~499만원	42.3	34.0	10.9	12.8	100.0(156)	
500만원 이상	33.3	33.3	9.0	24.3	100.0(144)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34.1	29.7	12.1	24.2	100.0(91)	25.8(9)**
중	37.0	35.6	10.7	16.7	100.0(449)	
중하	47.3	36.0	8.3	8.3	100.0(264)	
하	55.3	26.3	10.5	7.9	100.0(38)	
종교별						
개신교	39.9	34.9	12.0	13.2	100.0(258)	16.5(9)
불교	38.9	34.4	8.3	18.3	100.0(180)	
천주교	31.8	34.6	12.1	21.5	100.0(107)	
종교없음	46.3	35.0	8.2	10.5	100.0(294)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39.8	30.5	8.9	20.8	100.0(259)	9.7(3)*
전업주부	33.3	40.2	11.4	15.2	100.0(396)	
자녀 연령별						
0~5세	49.0	31.6	7.8	11.7	100.0(206)	-
6~11세	40.9	36.6	10.7	11.8	100.0(392)	
12~17세	36.2	35.6	12.3	15.9	100.0(365)	
18세 이상	36.7	34.4	9.2	19.7	100.0(218)	
자녀 성별						
아들	40.3	35.5	9.8	14.4	100.0(661)	-
딸	39.2	35.6	10.7	14.6	100.0(590)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18〉 참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등	지역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 관공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 시설기관	지역내 단체, 연합체 등	본인이 배우자의 직장	병원, 산후조리원 등	본인의 학교(대학, 고교)	모름/무응답	계
전체	46.8	13.7	45.3	23.3	13.3	4.3	2.6	4.5	0.1	100.0(844)
성별										
남성	52.1	7.4	31.4	13.3	11.2	8.5	1.6	6.4	0.0	100.0(188)
여성	45.3	15.5	49.2	26.2	13.9	3.0	2.9	4.0	0.2	100.0(656)
연령별										
20대	33.3	6.7	0.0	40.0	13.3	6.7	6.7	6.7	0.0	100.0(15)
30대	60.2	15.0	34.1	24.0	10.2	2.4	4.5	2.4	0.0	100.0(334)
40대	38.7	12.6	55.2	22.8	15.5	5.3	1.0	5.8	0.2	100.0(413)
50대	35.4	15.9	48.8	20.7	14.6	6.1	2.4	6.1	0.0	100.0(82)
지역규모별										
대도시	46.9	14.1	50.9	22.8	15.3	4.2	2.8	3.3	0.2	100.0(426)
중소도시	46.5	13.6	39.9	24.5	11.1	4.6	1.9	5.4	0.0	100.0(368)
군지역	48.0	12.0	36.0	20.0	12.0	2.0	6.0	8.0	0.0	100.0(50)
월 소득별										
200만원 미만	45.9	10.6	35.3	18.8	10.6	1.2	2.4	10.6	0.0	100.0(85)
200~299만원	45.9	16.7	45.9	21.5	9.4	3.0	3.4	3.0	0.0	100.0(233)
300~399만원	47.3	10.6	48.2	25.7	11.1	4.4	2.2	2.7	0.0	100.0(226)
400~499만원	48.7	17.9	51.9	21.8	14.7	6.4	1.3	4.5	0.6	100.0(156)
500만원 이상	45.8	11.1	38.2	27.1	22.9	5.6	3.5	6.3	0.0	100.0(144)
경제수준별										
중상 이상	45.1	7.7	40.7	24.2	15.4	4.4	4.4	11.0	0.0	100.0(91)
중	46.8	16.9	45.2	25.8	14.0	5.1	2.9	4.0	0.2	100.0(449)
중하	47.2	10.6	46.0	20.0	11.3	2.6	1.9	2.3	0.0	100.0(265)
하	50.0	13.2	50.0	15.8	13.2	5.3	0.0	10.5	0.0	100.0(38)
종교별										
개신교	46.9	15.1	45.7	23.3	15.1	4.3	1.6	5.8	0.4	100.0(258)
불교	43.3	13.9	55.0	23.3	14.4	2.8	3.3	3.3	0.0	100.0(180)
천주교	45.8	16.8	38.3	26.2	19.6	4.7	2.8	4.7	0.0	100.0(107)
종교없음	49.5	11.2	41.4	22.4	8.8	5.1	3.1	4.1	0.0	100.0(295)
모취업여부										
취업주부	47.1	13.1	51.7	23.2	11.6	5.0	2.7	5.4	0.4	100.0(259)
전업주부	44.1	17.1	47.6	28.2	15.4	1.8	3.0	3.0	0.0	100.0(397)
자녀 연령별										
0~5세	60.9	15.0	19.8	21.7	9.2	3.9	7.2	4.8	0.0	100.0(207)
6~11세	55.9	14.3	43.9	23.2	12.8	4.3	1.8	1.5	0.3	100.0(392)
12~17세	38.4	12.1	62.7	23.6	14.8	5.2	0.8	4.1	0.3	100.0(365)
18세 이상	32.6	16.5	53.2	23.4	18.3	6.0	0.9	6.0	0.0	100.0(218)
자녀 성별										
아들	48.4	14.5	47.5	22.8	12.7	4.1	2.6	4.5	0.0	100.0(661)
딸	48.0	14.2	48.5	24.1	14.7	5.1	1.7	4.2	0.2	100.0(590)

연구보고 2008-06

한국인의 자녀 양육관 연구

발행일 2008년 12월

발행인 조복희

발행처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29-5 93330